

이대리의 짧은 유머

Tho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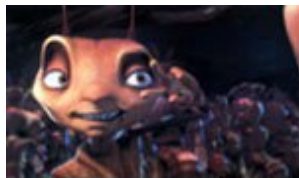
소개글

이대리라는 분께서 웃대에 올려주신 짧은 유머들입니다

목차

1	전쟁이 시작됐다! (상편)	4
2	전쟁이 시작됐다! (하편)	28
3	사기당했다! -_- 일단, 10초 안에 우겨줄게!	64
4	야한 생각을 해야만 했다 (상편)	115
5	야한 생각을 해야만 했다 (중편)	149
6	야한 생각을 해야만 했다 (하편)	177
7	축구하다 쫓겨난 이유	228
8	천사의 선물! 그리고 불알친구의 선물!	245
9	★ 스타 카의 몰락	278
10	[♫ 성인] ♫ 목욕탕 사람들 ♫	305

* 이번 이야기는 얼마 전부터 집안에서 곤육을 치러야만 했던
개미들과의 전쟁을 다룬 글입니다.
글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개미들의 세계를 나름대로 묘사해봤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총총..



전쟁이..

시작됐다!



이름만 들어도 여자들에게 '까아아!' 소리를 끼치게 만드는

영원한 인류의 적이자 말썽꾸러기인 바퀴벌레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곤충이라고 소문난 개미,

그리고 그 밖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온갖 잡스러운 벌레들.

이들은 VIP급 고정출연자로서 우리들 안방스타디움에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해 왔다.

이들의 활동무대는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그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든 이들의 출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인간들이 벌레와의 대 전쟁을 치르며

막대한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고 있고

나 또한 지금까지 엄청난 연구비와 국방비(살상무기 수입비)를

소모해가며 이들과 맞서 싸워왔다.

에프킬러, 모기향, 바퀴벌레 약, 쏘드기.. 기타등등.

정말 지겹도록 귀차니즘스러운 놈들이다. -_-

그런데 참 신기 한 건.

1년 전에 이사 온 현재의 우리 집은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폭풍전야일까?

아무튼.. 길거리에서 연예인을 보는 만큼 이들을

집에서 보기가 매우 힘들 정도가 됐다.

가끔가다 특별 출연하는 놈들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게 벌레 없는 평화로운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엄마와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젠장, 역시 폭풍전야였다. -_-

어느 날이었다.

동화 속의 '어느 날'과는 거리가 먼 얼마 전의 어느 날이었다.

집에 들어오니 외출하기 전에 따라왔던 복숭아맛 쿵피스가

컵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목이 마른 김에 주스를 벌컥벌컥 마셔댔다.

그렇게 컵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주스를 바라보며 목을 축이고 있는데..

순간, 노란색 주스 위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개미 두 마리가

내 동공에 포착된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목에 뭔가가 걸리는 듯한 역겨운 느낌.

바로 싱크대 하수구에 쿵피스를 내뿜고야 말았다.

이대라: **푸아아악! 튼! 카아악~~~ 튼에~~~ ≥■≤**

이것이 놈들과의 첫 대면이자 악연의 시작이었다. -_-

그리고 놈들과 두 번째로 대면하게 된 사건은 이러했다.

우리 집 거실엔 빈 요구르트 병을 모으는 검정 봉지가 걸려있다.

그 날도 요구르트를 마시고 빈 병을 버리기 위해 그 봉지 쪽으로 다가갔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서 너무나 놀라 소리를 썩지르고야 말았다.

이대라: **뜨아아악!!! 0_0**

개미 1개 대대 병력이 요구르트병 가득한 봉다리 안에서 아주 제 집인 냥

신나서 방방뛰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얀색의 요구르트 병들이 흑갈색으로 보일 정도였다.

젼싸게 비닐봉지를 밖으로 빼버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벽지에 달라붙어 있는 개미 중 한 놈을 골랐다.

그리고는 놈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 놈의 몸을 살짝 짓눌러

찰과상만 입히고는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살인을 저지를만한 분노까지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나의 인내심은 바닥나버리고

결국 초강력 전사로 돌변해야만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제과점에서 거금을 들여 내가 좋아하는 롤케이크 빵을 사왔다.

한번에 다 먹으면 허무할까봐 아껴먹기 위해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식욕을 참아내고 그 빵을 식탁 위에 보관해두었는데..

다음날 밤에 집에 들어와서 설레이는 맘으로 롤케익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해야했다.

수 백 마리의 개미떼들이 빵에 달라붙어 딱따구리처럼 빵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다.

이대리: 으아아아아!!!! (/≥■≤\)

분노 게이지가 무한대로 상승하고 전투력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갔다.

더 이상 참을 순 없었다.

웬만해선 놈들의 의식주 해결에 대해 눈감아 주려고 했는데..

역시 인간과 개미가 한 집에서 공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놈들이 죽던가 내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대리: 좋다! 전쟁이다! -_-!

뺨에 달라붙어 있는 놈들을 꼬집어내 엄지손가락 융단폭격으로

전원 몰살시키며 놈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물론 몇 마리는 하반신만 마비시킨 후 적지로 돌려보냈다.

그래야 놈들이 전쟁을 받아들이고 전투준비를 하던가,

아니면 모두 피난을 가던가 할 것이 아닌가.

나도 나름대로 페어플레이를 추구하는 놈이다. -_-

그렇게 놈들의 부대에 큰 타격을 입히자

한동안 개미 한 마리 보이질 않았다.

놈들은 모두 새가슴이었던 것이다.

아니면 간이 콩알만한 놈들이던가.

아무튼..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며

다시 평화로운 삶으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된장, 나만의 착각이었던 것이다. -_-

얼마 가지 않아..

벽지에서, 천장에서, 바닥에서, 책상에서, 화장실에서..

놈들의 모습이 또다시 내 눈앞에 무단 침입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대리: 이런 화장실 하수구에 낀 찌꺼기만도 못한 놈들.

그래 오늘 할 일도 없었는데 잘 됐다. 아주 끝을 보자!

50cm짜리 긴 자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자의 탄력성을 이용해 최대한 구부린 다음

벽에 달라붙어 있는 놈들을 한 놈씩 조져버렸다.

그렇게 거대한 자에 짓눌린 놈들은 벽지에 딱 달라붙어 화석이 되어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병력이동을 하고 있는 놈들은 대야에 있는 물을 부어

모두 익사시켜버렸고 내 책상 위에서 기어다니고 있던 놈들은 특별히

자근자근 썰어서 토막을 내주었다.

그 중에선 명이 긴 놈인지 꿈틀대며 이동하는 개미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놈의 뒤를 조심스럽게 한 번 따라가 보았다.

개미구멍을 찾아내 모든 종족을 말살시키려는 나의 기막힌 전략이었다.

그 놈은 나의 미행을 눈치채지 못하고 아지트로 들어갔고..

난 그 아지트 안에다가 에프킬라 한 통을 가득 뿌려주었다.

이대리: 으하하하!!! 유쾌통쾌상쾌! ^____^/

그 뒤로도 간탱이가 세포분열을 일으킨 놈들이

벽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난이도 10점 만점의

개강을 부리곤 했는데 그 특별손님들에게는 특별히

귀빈대우를 해주었다.

먼저 개미 주위에 동그랗게 선을 그은 다음 멀리서

M-16 BB탄 총을 장전하고 조준자세를 취했다.

그 다음....

시~~인~~나~~게 갈겨댔다.

이대리: 아다다다다!!!!!! √(‘ ∇ ’ √)



놈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서 음식물을 버리고 종나게 튀어보지만..

결국 무자비하게 날아드는 BB탄에 짓눌려 저승으로 향하고 말았다.

그렇게 놈들에게 몇차례 폭격을 가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저지르자

놈들은 그 후부터 쥐죽은듯이 조용했다.

하루가 지나도.. 이들이 지나도..

놈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무 것도 안 하시는 나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던 놈들이

갑자기 안보이니 삶이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함께 있을 땐 상대방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못 느끼다가

서로 한동안 못봐야 상대방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듯이

놈들이 너무 그리워져서 상사병에 걸릴 것만 같았다.

꿈속에서도 '개미'를 외쳐댔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엄마에게 '개미'를 못 봤냐며

정신병자처럼 묻곤 했다.

너무 과장이 심했나? -_-;

아무튼 난 그렇게 놈들과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방바닥에 뒹굴고 다녀야만 하는 아픔에 젖어가고 있었다.

아, 미칠 듯이 보고싶은 개미여,

그대는 정녕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대와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난 행복할 텐데..

〈개미세상〉



왕개미: 오늘의 사망자 수는?

개미1: 계란 세 판입니다. -_-

왕개미: 뭐야?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개미1: 병력이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자식이..

왕개미:?

개미1: 마루에서 튕구르는 바람에 그만.. -_-;

왕개미: 우리의 주요 행군로인 마루에서 튕굴렀다고?
아니, 그 놈은 도대체 뭐 하는 놈인데?

개미1: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걸로 봐서는 백수가 분명합니다.

왕개미: 드럽게 할 일없는 색히! 개는 취직도 안 하느냐?

개미1: 우리들 죽이는 게 인생의 낙이 된 것 같습니다.

왕개미: 개 같은 놈.

개미2: 대장님.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장님의 오른팔이던 일개미가 28토막으로 절단되었답니다. 크흑..

왕개미: 뭣이! 그 놈은 조리퐁 속에 침투한 놈 아니더냐!
그런데 어떻게 놈에게 발각됐다는 말이냐!

개미2: 놈이 조리퐁 개수를 세고 있었답니다. -_-

왕개미: 존내 할 일 없는 색히!
근데 우리의 몸이 28토막이나 날 수 있는 몸이냐?

개미2: 벼룩의 간도 100토막 낼 수 있는 놈입니다.
그리고 파리 뒷다리에 실뭍어서 연날리기까지 하던 놈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왕개미: 벼룩의 피까지 빨아먹을 놈!

개미1: 그 자식이 항상 집에서만 빠기고 있어 식량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모두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왕개미: 게으름뱅이 같은 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릴 죽여?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흠... 정 그렇다면 천장을 타고 침투하는 방법밖에..

개미1: 절대 천장은 안됩니다.
그 놈 주특기가 천장에 새겨진 무늬 새는 겁니다.
그리로 갔다가는 모두 개죽음 당합니다. -_-

왕개미: 그럼 벽지는?

개미1: 마찬가지로입니다. -_-
가끔 벽에 새겨진 꽃무늬 보면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놈입니다.
그곳도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왕개미: 그렇다면 방바닥도 안되고 천장도 안되고 벽지도 안되고
도대체 어디로 침투를 해야한단 말이냐!
흐음.. 어두운 물건을 타고 침투하는 것은 어떠냐?

개미1: 그것도 위험합니다.
저번에 검정색 리모콘 위로 행군을 하다가
냉동실에 갇혔던 일개미가 있습니다.

왕개미: 냉동실에? 아니, 왜?

개미1: 건강증이 심한 놈이라 걸핏하면 아무 물건이나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_-

왕개미: 그럼 그 일개미는 죽었던 말이나?

개미1: 그 놈이 멍청해서 3일 후에야 기억을 찾고 냉동실에서 빼냈지만..
제 부하는 탕탕 얼어버린 생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_-
냉동실에 갇히면 최소한 3일입니다.
그 시간동안 살아 남을 수 있는 부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왕개미: 씨방새! 이대로 나갔다가는 그놈한테 모두 멸종되고 말겠구나!

개미1: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22세기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_-

왕개미: 그렇다면 방법은 온리 하나!
최대한 몸을 낮추거나 위장하고서 침투하라!

개미1: 대장님..

왕개미: 뭣이냐.

개미1: 전.. 그 놈한테 짓눌려 전치 6주 나왔습니다. 당분간 좀 쉬어야겠습니다. -_-;;

왕개미: 음. 가장 열심히 일하던 놈이었는데... 뭐 할 수 없지.

개미2: 대장님. 저도... 어깨가 결려서.. 좀 쉬어야 할 것....

왕개미: 씨바! 파스 붙이고 해!

개미2: 네. -_-



〈인간세상〉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처럼..

개미들을 잡기 위해 하루종일 개미굴 찾기 수색작업을 펼쳐봤다.

그러나 바늘 구멍만한 개미 구멍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곳곳에 돌아다니던 개미들이 보이지 않는 걸 보면 모두 멸종된 것일까?

된장, 후회가 막심하구나.

몇 마리 살려보내서 종족 번식을 일으키게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이 집에 사는 동안 심심하지 않을텐데.

후~~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구나.. 막막해..

여느때와 같이 거실 바닥에 가슴을 철석 달라 붙이고 누워

x-ray촬영을 시작했다.

가슴을 촬영하고 나면 부친개 뒤집듯 몸을 뒤집어 등골을 촬영하고

등골촬영이 끝나면 다시 앞으로 몸을 뒤집어 가슴을 촬영하곤 했다.

그렇게 여러차례 반복하다가 힘들어서 잠시 쉬었다 하려고

얼굴을 바닥에 파묻고 있는데..

바닥 위로 뭔가가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방바닥에 최대한 눈알을 붙이고 방 지면을 쭈욱~ 훑어보았다.

그런데...

이 자세로 바닥을 바라보니.. 움직이는 생물체들이 한 눈에

다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생물체들은 재미였다.

이대리: 야호~! 심봤다!! ^0^//

놈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

환호성을 질러댔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일단 나에게 일용할 재미거리를 만들어준 놈들에게로

재빨리 엉금엉금 기어가서..

팍팍팍!!! ㄹ(‘ ㄷ ’)ノ

고통스럽지 않게끔 한방에 한 놈씩 세 놈을 몽개버렸다.

그동안 너무 굶었는지 보자마자 바로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던 것이다.

그렇게 놈들을 죽이고 나서 다시 바닥에 얼굴을 기대었다.

앗!! 두 놈 적발!!!

엉금엉금~~ o(-_-)O

팍팍!!! ㄹ(‘ ㄷ ’)ノ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육지로 침투하는 놈들을

모두 물리치고야 말았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해상으로 침투하는 놈들을 잡아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보았다.

고개를 밑으로 깔고 물기 묻은 화장실 타일바닥을 잘 살펴보았다.

앗! 다섯 놈 적발!! (*.*)++++

챱싸게 대한민국가정집 슈퍼1호미사일인 초울트라 샤워기를 손에 쥐고

고압력으로 튼 다음 놈들에게로 멋지게 발사해주었다.

그렇게 물세례를 맞은 놈들은 물에 쏠려 순식간에 하수구로 떠내려가고 말았다.

이대리: 으하하하!! 이번에도 나의 승리구나! ^__^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공중으로 침투하는 놈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공중전에선 놈들의 모습을 식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한민국가정집 최첨단 망원경1호인 엄마의 돋보기를 꺼내들었다.

그렇게 돋보기를 들고 이곳저곳 저공으로 비행정찰을 시작했다.

슈우우웅~~~~~

막.. 식탁지역을 지나 싱크대지역으로 접어드는 순간...

자신의 색과 비슷한 색의 싱크대 서랍을 타고 기어올라가고 있는 놈의

모습이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개미: 허걱!!

이대라: 이리 와. 너 딱 걸렸어. (-_-) º

개미: 저.. 오늘 휴가 나왔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T_T

팍~!!!!!! ㄹ(` ㄷ ')ノ

개미: 팩! *(")x(")*

계속해서 비행정찰을 하면서 무려 10마리도 넘게 놈들을 적발할 수 있었고

놈들을 모두 강스매싱에 백어택으로 후려쳐 버려 납작 오징어로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또 한번의 전쟁은...

막을 내리고야 말았다.

〈개미세상〉



왕개미: 뭣이?? 육군, 공군, 해군 모두 다?

개미: 놈의 최첨단 장비 앞에 모두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_-

왕개미: 그 개자식은 개미박멸을 위해 태어난 특수인간이더냐!!

개미: 아무 것도 안 하는 놈한테 우리가 재밌는 일거리를
협찬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왕개미: 으.. 끓는구나! 끓어!!

개미: 뭔가 대책을 세워할 때입니다.
안 그랬다가는 모두 영양실조에 걸리게 생겼습니다.

왕개미: 음... 흥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놈의 집 설계도를 펼쳐봐라.

개미: 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아지트입니다.

왕개미: 그래. 놈의 지역에서 가장 식량이 많은 곳은 어디더냐.

개미: 놈의 방에는 1년 치 비상식량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왕개미: 1년 치냐??

개미: 컴퓨터 앞에서 텐트치고 사는 놈입니다.
그래서 모든 끼니를 방안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왕개미: 개념 없는 놈.
이 설계도를 보아하니 놈의 아지트와 베란다가 연결되어있군.

개미: 그렇습니다. 이 베란다로 침투해서 놈의 아지트로 상륙작전을
펼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왕개미: 좋다. 이번 공격루트는 베란다다.
베란다를 타고 놈의 지역으로 기습하는 거대!

개미: 충성!! (-_\\)



〈인간세상〉

요즘 따라 개미들 보는 게 모래사장에서 진주 찾아내는 일보다 어려워졌다.

거실에도, 방에도, 책상에도, 천장에도, 벽에도 놈들의 모습은 통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삶이 재미가 없어졌다.

내일까지 개미들을 못 보면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것만 같다.

썩썩한 마음에 담배 각을 열었다.

된장. 뚝대 남았다.

이거 피우고 나면 또 병 팔러 다녀야 하는 건가.

정말 짜증의 연속이구나. 아, 허무한 인생.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방문을 열더니 소리쳤다.

엄마: 너구리 잡을 일 있어!! 나가서 피우라고 했지!!

나에게 엄청난 노동을 바라다니.. -_-

아, 짜증나는 인생.

베란다로 나가 옆 집 벽을 바라보며 담배를 뽕뽕 펴댔다.

(-.-)す~ 후~~ (￣へ￣)ず

담배를 빨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데..

벽에 기어다니는 뭔가가 내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개미들이었다.

이대리: 친구들, 왔어?

개미1: 허걱! 들켰다!

개미2: 씨파! 좇됐다!! 튀어!!

이대리: 도망가지 마. 오늘은 너희를 죽일 맘 없어.

너희들이 살아야 앞으로 나랑 놀지. (-.-)す~ 후~~

개미1: 정말 안 죽일 건가요?

이대리: 말했잖아. 안 죽인다고.

뛰지 말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 ^^

개미1: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개미2: 야. 이거 불안한데. 믿어도 되는 걸까?

개미1: 도망가봤자 죽는 건 마찬가지야. 일단 믿어보자구.

계속해서 옆집 빨간 벽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고 있는데..

엄마가 베란다 문을 확 열어제치면서 소리쳤다.

엄마: 지금이 몇인데 아직도 이불을 안 개고 있어!

엄마가 또 개야 돼? 엄마가 무슨 파출부야!

이대리: 어차피 다시 펴야 할 거 뭐 하러 개. -,-

엄마: 그래? 그럼 앞으로 밥도 먹지 말아라!

밑으로 쌀 건데 뭐 하러 먹어. 안 그래?

이대리: 에이.. 그거랑 이거랑은 틀리지.

엄마: 이걸 확 그냥 사골 국에 같이 넣고 끓여버릴 수도 없고!

아무튼 한번만 더 이불 안개고 있으면 이불이랑 같이 창밖에 털어 버릴 테니
알아서 해!!

이대리: -_-;

아. 허무한 인생.

점점 살기가 싫어지는 구나..

필터까지 바짝 태운 담배 불을

벽에다가 문지르고 방으로 들어왔다.

개미1: 으악!! 내 얼굴!!! 꽤꾸닥...

개미: 으아악!! 저 개새! 이럴 줄 알았다니까! 꽤꾸닥....

〈개미세상〉



왕개미: 뭣이? 모두 불에 타 죽었다고?

개미: 개자식이 담배불로 지져버렸습니다.

왕개미: 오! 지져쓰!!

천인공노상을 수여받아도 시원찮을 놈!

근데 그 놈이 우리의 침투로를 어떻게 눈치챘지?

개미: 우리 중에 간첩이 한 놈 있는 것 같습니다.

왕개미: 뭣이? 간첩??

잠깐.. 이리와봐. (` _) ॰

개미: 네. 왔습니다. (—.—)3))

왕개미: 죽고 싶냐?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 상.

개미: - _ -;;

왕개미: 그럼 침투에 성공한 놈들은 한 놈도 없단 말인가?

개미: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왕개미: 아니, 뭇 때문에?

개미: 숨을 담배로 쉬는 놈입니다. -_-

왕개미: 으.. 끊는다 끊어!!

잠깐! 그 놈 1월 1일부터 담배 끊었다며??

개미: 1년에 최소한 100번은 끊는 놈입니다. -_-

왕개미: 아휴~! 독종 색히!!

그럼 그 방으로 앞으론 영영 침투할 수 없단 말이나?

개미: 아직 한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담배 값이 인상한다면..

놈이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왕개미: 확실한 것이냐?

개미: 얼마 전에 저금통 까부시는 거 목격한 놈이 있습니다. -_-

왕개미: 흠.. 그래?

그렇다고 그 때까지 기다려볼 수도 없고 이거 문제군.

참, 여왕개미를 보내서 미인계를 써보는 건 어떨까?

개미: 야동에 미쳐있는 놈이라 여왕개미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왕개미: 제길!! 별의 별 짓을 다하는 놈이구나.

기왕 이렇게 된 거 그 놈이 잠자는 시간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코구멍으로 쳐들어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죽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

개미: 어림 3분의 1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놈의 시도 때도 없이 날려대는 한숨의 강풍으로 모두

추락사하고 말 것입니다.

왕개미: 염병! 도대체 방법이 안 서는구나!! 방법이!!

개미: 일단 놈이 빈틈을 보일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왕개미: 흐으... 좋다.

일단 굶주린 백성들에게 비상식량을 지원하고

이들만 버텨보기로 하자.

개미: 냇!

〈인간세상〉



아...

또다시 그리움이 물결을 치는 구나.

내가 놈들에게 너무 심하게 굴었나. -_-

왜 더이상 나랑 놀아주질 않는걸까.

나 지금.. 개미한테도 왕따당하는 건가?

된장, 베란다에 있던 놈들은 살려서 보냈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의리있는 놈이라고 소문이 짝 퍼져서 놈들이 날 믿고

들락날락 할 텐데 말야.

참.. 그 때 베란다 천장에 한 놈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놈이 가서 불었나???

아.. 몰라몰라.. 머리 아프다..

그나저나..

방콕 파타야섬의 파도처럼 밀려드는 이 지루함은

어떻게 달랜단 말이나.

다시 놈들과 재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す~ 후~~

(-.-)す~ 후~~

(-.-)す~ 후~~

번쩍~!! +_+

아하~ y(^o^)y

놈들이 나오게끔 유인구를 던지면 되겠구나.

이런 아인슈타인 같은 놈. 흐흐.

놈들이 좋아하는 과자부스러기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찌꺼기,

딸기잼 등을 동원해서 거실 곳곳에 지뢰밭을 만들었다.

그리고 놈들이 마음놓고 침투할 수 있도록 거실 불도 꺼두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개미들의 특성에 맞게끔 보일러도 풀가동을 해두었다.

이제 놈들이 닷에 걸리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ㅎㅎㅎ...

이번엔 신나게 좀 놀아볼 수 있겠구나. (ㄱ,,ㄱ)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 여러분의..

맑은 물방울 같은 작은 글귀 하나가..

저에겐 크나큰 힘이 됩니다.

Written by 이대리 (2005.2.25)



〈개미세상〉

군단장개미: 놈이 이번엔 미끼를 던졌습니다.

왕개미: 뭣이? 미끼라고?

죽일 색히! 우리 민족을 뿌리 채 뽑아서
갈기갈기 찢어 햇볕에 말리려고 작정을 했군.

군단장개미: 저 미끼라도 건져와야 합니다.
안 그럼 다들 소말리아인 되게 생겼습니다.

왕개미: 성공률은!

군단장개미: 지금 상황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왕개미: 그렇다면 대책은 있나?

군단장개미: 놈이 잠자는 새벽에 쥐도 새도 모르게 침투하면 문제없습니다.

왕개미: 놈이 미끼를 던졌다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일 텐데?

군단장개미: 놈은 B형입니다.
짱구도 못 말리는 다혈질이라 좀만 기다리다 싫증내고 말 겁니다.
그리고 지가 벌려놓고 지가 수습 못하고서 지 스스로 광분하는 놈이죠.
우린 그걸 역이용하면 됩니다.

왕개미: 음.. 아무래도 놈이 머리를 쓰고 있을 것 같은데.

군단장개미: 놈의 아이큐는 두 자리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니, 우리가 머리만 잘 굴리면 놈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알지, 둘이라는 것은 어따 써먹는 건지도 모르는 놈입니다.
괜히 그 놈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끼리 머리 아프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왕개미: 좋다. 병력을 준비시켜라.
오늘 새벽 04시에 침투한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끝낸다.

군단장개미: 옛썰!!

〈인간세상〉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zZ~~

양 이백 칠십 오마리.. 양 이백 칠십 육마리.. 양 이백 칠십... 칠십.. 칠십...

으아아! 또 까먹었어!!!!

난 왜 삼백 마리를 못 넘기는 거야!!

아후~~ 잠도 안 오고 아주 환장하겠네!!! (` ˆ `)

된장! 한게임이나 하다 자야겠다!

- 한게임 접속 1시간 후 -

=====

"에그머니야~!"

"내놔~!"

"가져가~!"

"아자~ 고!"

"아싸~ 감사합니다~"

=====

개자식. 한 판을 안 저주네. -_-

쩍싸게 채팅창에다 대화를 시도했다.

□

이대리: 저.. 이번 한 판만 저주시면 안될까요? --;;

김부장: 노인정 화투 쳐요?? 빨리 치거나 해요!

이대리: 신님.. 이 불쌍한 백성의 소원을 부디 거들어주세요.
평민에서 벗어나 보는 게 제 꿈이거든요.

김부장: 개꿈 같은 소리 후다닥 집어치우고 빨리 치거나 해요!

이대리: 김부장님.. 제발.. 흑흑! π_π

김부장: 거참. 비굴하게도 하네.

이런데 와서 그렇게 매달리면서까지 돈 벌고 싶어요?

이대리: 이번에 올인하면 30분 동안 못 들어오거든요. --;;

김부장: 에이... 알았어요. 한 번 드세요.

이대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암~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마일리지로 적립시켜두겠습니다!

=====

"에그머니야~!"

"내놔~!"

"가져가~!"

"아자~ 고!"

=====

이대리: 이 양아치 같은 색히! 저 준다면서 왜 고를 하고 지랄이야!

김부장: 거 참. 이러다 독박 써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네요!

이대리: 아.. 그런 깊고 깊은 뜻이. ^^;

어느 골짜기 능성 구씨사당에 있는 유명한 우물보다 더 속이 깊군요. 하하..

=====

"아따~ 고!"

=====

이대리: 저.. 대략 확실한 거죠?

김부장: 왜 일케 못 믿어요? 패 뭐 들었어요?

이대리: 비 두 장 들었거든요. ^^

김부장: 그래요?

=====

"헤헤헤~~ 고!"

=====

이대리: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

"아싸~ 감사합니다~"

=====



이대리: 이 개백따구 구닥다리색히! 너 나한테 사기 친 거지!!!



김부장: 빙~! 순진하기는..

이대리: 양아치 같은 놈! 감히 날 속여?
너 초딩이지!!

김부장: 으헤헤! 이제 알았냐?!

울 아빠 아이디 빌려서 들어왔다! 어쩔래!

이대리: 어린놈의 색히가 벌써부터 도박질에 사기질까지 하고 말야!
너 정말 깔끔하게 뒤흔들라!

김부장: 예라.. 이거나 처먹어라! KIN



이대리: 뭐야! 영어로 욕하면 내가 모를 것 같냐!

김부장: 멍청한 놈. 옆으로 봐라!

-.) -> KIN

:) --> 즐

이대리: 으잉?? 즐? 이 개자식이 진짜..
너 내가 아이디추적해서...

-김부장님 퇴장-

빨쭈... -_-;;

이런 개 젓 같은 놈!! (나 욕 안 했다. -_-)

한게임에서 초딩에게 강간당할 줄이야.

아후~! 혈압 올라.

이 끓어오르는 스트레스를 어디서 일시불로 시원하게 풀지!

이틀 동안 잠만 잘까?

온 동네 초인종 누르고 털까?

초등학교 가서 뽕 뜯고 올까?

-_-!

아침! 거실에 미끼를 던져놨구나!

그래.. 개미들이 있었지!

니들은 오늘 다 죽었다!!!! ㄴ(ㄱ_ㄱ)ㄴ

쩍싸게 거실로 뛰쳐나가 불을 켜다.

개미들: 앓! 조명탄이다!

대대장개미: 제길! 걸렸다!

모두 은폐 엄폐하라!

이대리: 역시 니들 밖에 없구나!

나 지금 기분이 울릉도 호박엿 같거든! 미안하지만 모두 없었던 걸로 해줄게!!

팍팍팍팍!!!! ㄹ(ㄷ ') ㄴ

대대장개미: 으아악! 어서 구급병을 불러라!!

놈들에게 엄지손가락으로 마구잡이 융단폭격을 가했지만

수가 워낙 많아 내 호흡이 점점 울퉁불퉁 거칠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인해전술로 등장한 놈들을 한 놈 한 놈 죽이다가는

그 전에 내가 쓰러질 것만 같았다.

뭔가 속전속결로 무찌를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가 없나 주위를 둘러보던 찰나!

마침 오디오 위에 올려져 있는 넓은 유리테이프가 내 동공을 빛내주었다.

쩍싸게 테이프를 길게 뜯어서 원을 만든 다음 손바닥에 장착을 했다.

그리고는 옷에서 부프레기를 띠어내듯이 바닥에 달라 붙어있는 놈들을

무자비하게 대량으로 수거해버렸다.

이대리: 짹! 짹! 짹! 짹! ≡ (ㄴ ㄴ ㄴ ㄴ)

개미들 : 으악! 으악! 으악! *(")x(")* *(")x(")* *(")x(")*

그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나니 놈들은 테이프에 잔인하게 달라붙으며

비명횡사를 했고 모두들 머리 위에 동그랑땡을 하나씩 달고 하늘로 승천했다.

아직도 한게임에서 초딩에게 농락당한 것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은 난..

테이프를 들고 구석구석을 쥐잡듯이 허겁지겁 뒤져봤지만,

놈들이 모두 전멸되었는지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다.

이대리: 씹씹... 이 개미새끼들아! 또 나와!! 나오라고!!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목이 터져라 외쳐댔지만..

놈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야말로 썰렁했다~

썰렁~~ □

이대리: 안 나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라 쿵... 쓰박! 이게 아니잖아. -_-;
에잇! 김쌌다!! -_-!



〈개미세상〉

왕개미: 뭣이? 또 실패했다고??
25사단은?

개미: 대량살상무기에 전원 사살됐습니다. -_-

왕개미: 81연대는?

개미: 초토화됐습니다. -_-;

왕개미: 공수부대는?

개미: 마찬가지로입니다. -_-;;

왕개미: 설마 해병대도??

개미: (ㄲㄴㄲ)

왕개미: 아후~ 빌어먹을 만물의 영장시끼!
아주 지글지글 한 놈이구나!!

개미: 놈은 밤과 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불면증이 있어 아침에 애국가 듣기 전까진 절대 잠을 안 자는 놈이었습니다.

왕개미: 아후!! 인간 에프킬러같은 색히! 살충제 같은 색히!!
귀신은 그런 놈 안 잡아가고 뭐하냐!!!

개미: 그냥 놈의 코구멍으로 들어가 자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왕개미: 요즘 바퀴벌레들이랑 영역다툼을 하느라
안 그래도 병력이 딸려 미치겠는데.. 이거 완전 돌아가시겠군.
그놈들과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하는데 식량을 가지러
나간 놈들은 소식도 없고 말야.

개미: 뭐라 지껄일 말이 없습니다. -_-;

왕개미: 안되겠다. 이번엔 우리가 놈한테 미끼를 던질 차례다.
놈이 자주 머무는 곳이 놈의 방이라고 했나?

개미: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방구석에서 노숙을 하며 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왕개미: 좋아. 일개미, 너가 놈의 책상 유리로 들어가서 시간을 끌어라.
그 동안 나머지 병력은 식탁을 침범하는 것이다!

개미: 전.. 살이 찌서 유리 안으로 들어가기가...

왕개미: 아, 씨바! 똥몸 일으키기하고 자.

개미: ... -_-;;

왕개미: 무슨 일이 있어도 10분은 끌어야 한다.

개미: 네.. -_-;;

〈인간세상〉



어제 밤새도록 다운 받아 둔 야구_-동영상을 즐감하고 있었다.

한참 흐릿한 영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엄마가 들어오는 것이었다.

썩새게 화면을 덮어버렸다. -_-;

엄마: 웬일이야? 영어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이대리: 응. 이제부터 영어 좀 다시 해보게. -_-

엄마: 이제야 철들었네? 포항제철에서 철이라도 들고 온 거야?

이대리: 엄마, 그 한마디에 지금쯤 한강 얼었을 거야. -_-

엄마: 오호호! 내 눈에 흠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못 볼 것만 같던 광경이
서울랜드 야간개장의 레이저쇼처럼 펼쳐지니까 엄마가 흥분을 했나봐.

이대리: 엄마, 태평양도 열리려고 그래? 집중 안 되니까 좀 나가 줘.

가만.. 뭐 외우고 있었드라. 아.. 글래머.. 글래머.. 글래머.. 글래머... [—, —]

미리 준비해뒀던 영어사전 화면을 펼쳐두고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척 하자..

엄마가 흡족한 미소를 보이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스피커에서!!!!

스피커: 아~~ 아~~ 오빠~~

엄마: 오잉?? 이 소리는??

앗.. 개냥패다. -_-;;

엄마: 오호호... 우리 아드님. 오늘 완벽하게 걸리셨네.

이대리: 어.. 엄마.... —"—oo

순간.. 삼각 조르기, 맨손 조르기, 관절 압박, 팔 얹어 비틀기,

뒤꿈치 비틀기가 5연타로 날아들고

$(\) \times (\prime \) \rightarrow \langle \rangle \nabla \langle \rangle \langle \rangle \rightarrow \Leftrightarrow (\) \langle \rangle \Rightarrow \rightarrow _ (\geq \nabla \leq) \text{ノ} \ni \rightarrow \neg (\) \langle \rangle \text{ノ}$

히딩크식 어퍼컷으로 깔끔한 마무리를 하는 엄마.

(= ` ^ ') / @ _ O 펍!!

이에 너다운 당한 이대리.

헤롱헤롱.... (@_★)

엄마: 그럼 그렇지!!

오늘은 이 정도지만 한번 더 걸리면 그 땀 식물인간 준비하고 있어라!

이대리: 네.. π_π

처참하게 반 봉신상태가 되어 책상 앞에 쫓그리고 앉았다.

앞으로 나의 성교육 체험실습현장이 위기에 처할 것 같은 느낌에

내 모든 감정이 슬픔속으로 몰입하고 있는데..

나의 서글픈 눈동자에 뒷다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는

개미 녀석이 한 폭의 그림처럼 비춰졌다.

이대리: 이 잡색히! 너가 날 비웃어!!! ㄴ(`■´)

주먹을 불끈 쥐고는 망치로 대못을 박듯이 책상유리를 쿵 찍어댔다.

그러나 내 주먹만 종나게 아프고 그 놈은 멀쩡히 살아 있었다.

이상해서 자세를 낮추고 놈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

헛!! 놈이 책상과 유리 사이에 끼있는 것이었다.

이대리: 어쭈? 오늘은 머리 좀 굴렸네?

어쨌니 니놈은 대가리가 크드라.

놈의 대가리를 찌부시키려고 엄지손가락으로 유리를 짹 눌러댔다.

그러나 아스팔트에 들러붙은 껌딱지마냥 책상에 딱 들러붙어 있는 놈을

짜부시키기에는 무리였다.

유리와 책상의 틈새가 놈의 키보다 높은 것이다.

놈은 계속해서 뒷다리를 살랑살랑 흔들며대며 날 비웃고 있었고

난 무한대로 상승하는 불쾌지수를 못이기고는

쩍새게 설탕 한봉지를 들고와서 책상유리 입구에 놓고선 놈을 유인했다.

그랬더니 고개를 한 번 쭈욱~ 빼더니 살레살레 흔들고는

약올리며 다시 유리 안으로 들어가는 놈이다.

이대리: 어쩔씨구리! 분노게이지를 상승시켜서 좋을 것 없을 텐데!

좋았어! 넌 오늘 특별히 300토막이다!

놈을 유리에서 빼내기 위해

얇은 명함을 꺼내들고는 책상과 유리 틈으로 쓰욱~ 넣었다.

그랬더니 이 놈이..

멀리 달아나는 것이다. -_-

이번엔 책받침을 꺼내들었다.

유리사이로 쭈욱 낀 다음.. 샤삭~!! 흔들어댔다.

그런데 이 놈이 유리에 바짝 매달려 책받침을 폴짝폴짝, 피하는 것이다.

이번엔 지렛대원리를 이용해서 책받침 끝 부분을 밑으로 내리며 샤삭~ 흔들어댔다.

그랬더니 바닥에 몸을 숙이고는 복서처럼 몸을 획획, 피하는 것이다.

이대리: 어쭈? 잘 피하는데?

좋았어. 좀 귀찮긴 하지만 오늘 끝장을 보자고!

유리를 들어내고서 놈을 생포하기 위해..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다.

프린터기부터 시작해서 액자, 시계, 저금통, 휴지, 책, 필통.. 등등

모조리 다 내려버렸다.

그렇게 모든 물건을 내린 다음 유리를 번쩍 들었다.

ㄴ(`■´)ㄴ 이잇...

오잉~!

어떻게 된거지??? 그 놈이 안 보인다. 0_0a

이대리: 이 개미색히! 어디 숨었어!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오란 말야!!

그러나 녀석은 대답이 없었다.

당연한 거지. -_-;

이것저것 잔뜩 펼쳐진 어지러운 방을 본 엄마가 또다시

방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엄마: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다 난지도 만들 일 있어!

이대리: 개미가...

엄마: 이그 웬수같은 놈! 빨리 안 치워!

이대리: -_-;

씩씩거리며 내려던 물건들을 다시 하나씩 올려야 했다.

정말 왕짜증이었다.

그렇게 힘들게 하나씩 다 올려 원상복귀시키고 나니까..

방금 전까지 안 보이던 그 빌어먹을 놈이

유리 사이에서 수산시장 산낙지처럼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개미: 사랑살랑~ 으쓱~ 으쓱~ 쭈욱~ 쭈욱~

이대리: 으아아악!!! 무당이 성경책 펴고 굿 할 때까지 맞아도 시원찮을 색히!
진짜 사람 열 받게 만드네!!!

드디어 분노게이지가 폭발하고야 말았다.

이대리: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죽어봐라!!!

결국 에프킬러를 손에 들고야 말았다.

내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놈이 설치는 모습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화학가스를 살포하려는 것이다.

화기를 유리 틈새에 조준하고서 무자비하게 발사했다.

이대리: 칙! 칙! 칙! 치이이이익~~~!!! (ノ-O-)ノ

개미: 으윽... 비겁한 놈...

이대리: 죽어랏! 칙칙!! 치이익!!! (ノ`へ´)ノ

개미: 헉.. 헉... 헉.. 헉.. 흐으.. 꽤꾸닥.. (ㅡ)

그렇게 에프킬러를 한 가득 마셔댄 놈은 그 안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대리: 아직 더 남았어! 일어나! 일어나라구! (/ * ` ㄴ ´) /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난..

놈의 주검을 책받침으로 꺼내서 자근자근 썰어 퍼즐조각으로 만들어주었다. -_-!

그리고는..

다른 놈들도 다 없애버리기 위해

젹싸게 테이프를 쭈우우우욱~~~ 늘려 입으로 끈은 다음 거실로 향했다.

이대리: 이것들.. 감히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뽑았겠다?

씩~다! 디졌어! ㄴ(' ▣ ') ㄴ

거실로 나와보니 놀랍게도..

수많은 개미들이 입에 뭔가를 물고 2열 종대로 행군을 하고 있었다.

이대리: 오호라! 아까 그 놈이 유도병이었군!

아무튼 니들 잘 걸렸다. 전부다 복명 복창해라!

오늘이 제삿날이라고!!

개미: 씨파! 떴다!! 튀어!!!

개미2: 그 봉신 같은 놈! 10분만 벌여보라니까!

이대리: 이야얏! 간다!!!!

으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조오겟~~~~! ㄹ(' ㄷ ') ㄴ

□□

〈개미세상〉



왕개미: 아. 끓는다. 끓어!!
그러니까 한 놈도 못살아왔다고?

국방부장관개미: 후~ 더 이상 우리에게 생존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단장개미: 파병요청을 하든가.. 철수명령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군사령관개미: 전.. 죽어도 저런 무식한 놈이랑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1개 군단 병력과 함께 이 곳을 떠나겠습니다.

왕개미: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떠날 곳이 어딴다구!!

국방부장관개미: -_-;

여단장개미: -_-;

군사령관개미: -_-;

왕개미: 흐음.. 그동안 사살당한 우리의 병력은 총 얼마나 돼지?

중대장개미: 네. 그동안 사살당한 병력은..
28사단에서 맥주 네 박스.

81연대에서 새우깡 한 봉지.
공수부대에서 담배 한 갑.
그리고 6군단에선..
알밥이라 보시면 됩니다. -_-

왕개미: 이런.. 히틀러같은 놈!
지금까지 희생당한 아군들 명단 파악 읊어봐!

중대장개미: 네.
문턱을 올라가고 있는데 놈이 문을 닫는 바람에 내장이 터져 죽은 전우,
쓰레기 봉투 속에서 먹이 찾다가 봉지 묶이는 바람에 숨막혀 죽은 전우,
하수구에서 깔짚대다가 커다란 파도에 휩쓸려간 전우,
바지 주머니 속에 잘 못 들어갔다가 세탁기에 돌림땡 당한 전우,
여름에 파리 옆에서 깔짚대다가 파리채에 파리랑 함께 목숨을 끊은 전우,
김밥 속에 들어갔다가 단무지와 함께 절단 당한 전우,
토마토에 들어갔다가 빙삭기에 갈린 전우,
냄비에 들어갔다가 펄펄 끓는 물에 온 몸을 불사른 전우,
휴지 위에서 낮잠자다가 향문에 끼쳐 죽은 전우,
놈의 등에 깔려 오징어가 된 전우,
놈의 엄지손가락에 짓눌려 납작구이가 된 전우,
놈이 뿌린 에프킬러 방사능에 오염되어 죽은 전우,
그리고...

왕개미: 그만!! 그만!!!
으아아!! 끓는다! 끓어!!

중대장개미: 대장님. 진정하십시오.

왕개미: 지금이 진정할 때냐?
아우~ 화병으로 쓰러질 것만 같네.
그건 그렇고.. 현재 식량은 얼마나 남았지?

중대장개미: 바닥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_-

왕개미: 후우우....
좋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작전은 하나밖에 없다!
놈이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건져 오는 수밖에!
쓰레기통으로 침투한다!

여단장개미: 안 됩니다.

그 작전은 바늘구멍에 개미 집어넣는 일보다 어려운 작전입니다.

왕개미: 아니, 왜 또???

여단장개미: 쓰레기통으로 가기 위해선 죽음의 문턱이라 불리우는

양말 골짜기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곳을 넘어선 군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왕개미: 양말 골짜기라니??

여단장개미: 쓰레기통 옆에 쌓아둔 빨래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위낙 구린내가 심해서 방독면을 쓰고있어도 호흡곤란으로 바로 즉사하고 말 겁니다.

왕개미: 아후~ 더러운 놈!!!

그 자식은 무슨 빈 틈도 없단 말이나!! 아후~끓어 올라!!

씨바~! 이 짓도 못해먹겠네 진짜.

국방부장관개미: 그동안 써먹을 방법은 다 써먹어봤습니다.

이젠 도 아니면 모입니다.

왕개미: 그렇다면 좋다!

어차피 뒤질거 나가 싸우다 뒤지는 거대!!

간부개미들: (#_(*_(-.#)_=)

왕개미: 장성들은 잘 들어라! 이번엔 전면전이다!

내일 총공세를 펼쳐 아주 끝장을 내겠다!!!

지금 즉시 모든 병력을 대기 시켜라!!

간부개미들: 옛!! (#_(*_(-.#)_=)

〈인간세상〉



날이갈수록 재미들과 싸우는 것이 지겹게만 느껴져 간다. (ㅡ.ㅡ)ㅜ ~ 후~~

그리고..

시체 처리문제와 전쟁유지비만 해도 막대한 노동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귀차니즘에 빠져있는 내게 그런 3D업종은 더이상 즐거움이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내겐 더이상 전쟁 자금을 조달할 여유도 없다.

놈들에게 미끼로 던져야 할 과자부스러기나 아이스크림, 짬,

그리고 놈들을 대량으로 살상할 유리테이프, 에프킬러..

이런 것도 다 돈이다. -_-

게다가..

앞으로도 수많은 적들이 등장할 텐데 재미들한테만

많은 시간과 자본을 할애할 순 없다.

바퀴벌레가 대기석에서 다음 타자로 몸을 풀고 있고

파리, 모기들도 번호표 뽑아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_-

밀려오는 귀차니즘의 압박으로 인해..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던 중...

원더풀한 대량 살상무기가 내 눈에 초롱초롱 감겨 들어왔다.

ㅎㅎㅎㅎ.... (こ,,こ)

저벅저벅..

진공청소기로 다가가서 콘센트에 코드를 꼽아 충전을 시켰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와

집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 찌꺼기들을 꺼내 한 가운데다 진수성찬을 차려두었다.

바로 이것이..

놈들의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이다.

뿌드득... ギ. ごメ

〈개미세상〉



왕개미: 죽일 놈. 또다시 미끼를 던졌구나!
이젠 저것이 미끼인 줄 알면서도..
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린 지옥속으로 다이빙할 수밖에 없다.

개미들: (-_(-_(-_(-_)-)-)-)

왕개미: 국방부장관!
자신있나?

국방부장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_-

왕개미: 여단장!

여단장개미: 조국 앞에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_-

왕개미: 군사령관!

군사령관개미: 제 목숨은 국가와 민족의 것입니다. -_-

왕개미: 모두들 좋다!
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
이제 끝을 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_=

간부개미들: (#_*(-.#)_=)

왕개미: 이번 작전은 내가 직접 지시하겠다!
전차부대가 화력을 앞세워 최전방으로 돌격하고
그 후방을 보병부대가 맞는다.
81연대는 28사단을 지원사격해주고 6군단은
재빨리 감제고지를 점령한다.
그리고!! 특수부대는...
이곳에 남는다. =_ =

특수부대개미들: 대장님....

왕개미: 우리가 모두 전사하면 그 때 너희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곳을 떠나는 임무다.

특수부대개미들: 대장님... (° ˘ ˘ °) (_ _ 도) (ㅎㅎ) (ㄲ ㄲ)

왕개미: 시간이 없다!
바로 놈의 진지로 돌격을 하겠다!
모두들! 돌격 앞으로!!

간부개미들: 돌격하라!!!

개미들: 으아아!! 돌격 앞으로!!!



아침부터 웬 목소리 깜직한 여성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첫 번째는, 차 빼달라는 전화였다. -_-

두 번째는, 잘 못 걸려온 전화였다. -_-

세 번째는, 내일까지 핸드폰 요금 납부 안 할 경우 바로 서비스를

중지시켜버리겠다는 백수들의 공포대상인 sk텔레콤의 전화였다. -_-

청년실업 50만을 육박한 가혹한 시대에 핸드폰 요금

마련하기가 하늘의 태양따기라며 제발 1주일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사정 사정을 했더니 치즈에 마가린 발라먹으면서

리마리오를 보고있는 듯한 느끼한 웃음소리로 마음껏 내놓고 비웃더니

내일까지 꼭 내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 힘이 쭉쭉 빠진다.

이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괴로움이구나. -_-

무료함을 달래며 담배 한 대 빨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우리집 거실 장판이 흑갈색이었나? -_-a

오잉??? ㅇ.,0a

허걱~~ 0_0

개미들이 단체할인으로 겁대가리를 상실했는지,

지금까지 봐왔던 놈들과는 짹도 안 될 정도로 수많은 개미들이

거실 장판 무늬를 흑갈색으로 뒤덮고 있는 것이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비명을 꽤앳~! 질렀겠지만..

오늘은 기분도 옛같고 놈들을 버르고 있었기에 두 주먹을 꽂악 쥐며 이를 갈았다.

이대리: 안그래도 니놈들과 오늘 끝장을 내려던 참이었는데 스스로 무덤에 매트리스를 까는 구나. 잘됐다!! 오늘로서 대전쟁의 막을 내려주겠다!

놈들과 대전쟁을 치르기 전에..

안방에서 열심히 tv시청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문을 열고 외쳤다.

이대리: 엄마! 나 지금 우리 집을 위해서 큰 일을 치를 거니까!
시끄러워도 나오지 말고 절대 나 말려선 안 돼!

엄마: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대리: 알았지!!!

크게 외치고는 문을 쿵!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진공청소기의 버튼을 위로 올렸다.

위이이이이잉~~~~!!!!!!

이대리: 그동안 즐거웠다. 모두들 패키지로 묶어서 저승행 열차에 실어주마.
위이이이이잉~~~~!!!! 위이이이잉~~~~!!!! √(‘ ㅅ ’ √)

거실을 부리나케 뛰어다니며 놈들을 진공청소기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렸다.

이에 놈들은 가미가제처럼 모두 죽기살기로 자폭을 하려는 것인지..

인해전술로 끊임없이 나와 맞서 싸웠다.

이대리: 오냐! 모두 와라! 다 날려주마~!!! √(‘ ㅍ ’ √)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조리 쓸어담아버렸다.

빨려들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힘을 쓰며 버티는 놈들도 있었지만..

엄청난 회오리 바람에 모두들 끈기를 잃고서 하나 둘씩 빨려들고 말았다.

그리고 내가 흘려둔 음식물들도 놈들과 함께 청소기 안으로 요란하게 빨려 들어갔다.

이대리: 죽어랏!! 죽어!!

위이어잉~~! 위이어잉!!! √(‘ ㅍ ’ √)

놈들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쓸어담는데도 놈들의 모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모든 병력을 총동원했는지 끌려들어가는 만큼 어디선가 기어나오는 것이었다.

난 잘됐다는 듯이 닥치는 대로 놈들을 빨아들이느라 바빴다.

엄마가 시끄럽다며 나와서 소리쳤지만 난 이미 이성을 잃고 말았다.

이번 기회에 한 놈도 살리지 말고 놈들을 모두 멸종시켜버려야만 했다.

이대리: 이야아아앗!!! 위이어잉!! √(‘ ㅍ ’ √)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모두 죽어버린 전쟁터처럼 희뿌연 먼지만 가득 날리며

놈들의 모습이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수색해 보아도 놈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간혹가다 한 두마리 보이긴 했지만..

그 놈들은 나의 발꼬락에 밟혀 납작오징어가 된 놈들이었다.

혹시나 잔여 병력이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한참을 기다려보았지만..

놈들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난 그제서야...

흔적도 없이 모두 삼켜버린 진공청소기를 번쩍 들어올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대리: 으하하하!! 드디어 끝났구나!!

야호~~ 내가 이겼다! 만세!! 우리집 독립 만세! \(^0^)/

그러나..

이것은 나만의 커다란 착각이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는데 이상하게 팔이 가려운 것이다.

눈을 비벼뜨고는 팔을 들어올려 가려운 곳을 확인해보았다.

허걱~! 0_0

이건 모야!!

개... 개미잖아!! 0_0

어제 다 죽은 줄만 알았던 개미가 내 팔을 엉큼엉큼 기어오르며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껏 한 놈 살아남은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놈을 손바닥으로 짓눌러버린 다음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갔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서는 다시 한 번 놀라 수밖에 없었다.

개미 두 마리가 내 뺨따구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대리: 이런 쌍!!

내 싸대기를 갈겨서 한 놈씩 조져버렸다.

철썩~! (-_★\) 철썩~! (/★_-)

꼭 이렇게 죽어야 했나.. -_-;

아무튼..

이번에도 그냥 우연히 살아남은 놈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머리를 감으려고 물을 받아둔 세수대야에

머리를 푹~ 담궜다.

그런데...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현장을 보고야 말았다.

이대리: 프아악! 0_0

세수대야에 개미들이 동동동 떠다니는 것이었다.

비듬을 털어내듯.. 머리를 마구잡이로 털어보았다.

그러자..

세수대야로 한 놈씩 다이빙하는 개미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대리: 허거덕.. 0_0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니들은 어제 다 죽었잖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열린 머리를 행구고 방으로 뛰어들어와봤다.

그리고 진공청소기 쪽을 보자..

이대리: 뜨아아아악!!!! @,.@

수많은 개미들이 진공청소기를 타고 바닥으로 하강하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표정을 금치 못하고 시선을 침대 쪽으로 옮겨보았다.

허걱.. 이곳에도.. 0_0

이번엔 책상으로 시선을 옮겨보았다.

흐악.. 마찬가지로.. 0_0

□

그 어느 곳으로 시선을 옮겨도 개미들이 내 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는...

호.. 혹시.. 진공 청소기..?? 0_0a

쩍싸게 진공청소기를 열어보았다.

허걱~!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인다.

그렇다면..

이대리: 으아악!! 똥됐다! 똥됐어!!!

그렇다.

진공청소기 안에서 모두 죽었을 줄만 알았던 수 백, 수 천 마리의 개미들이

틈사이로 빠져나와 내 방 온 구석구석으로 퍼지고 만 것이다.

이대리: 오 마이 갓~!!!! 꼬르르르...룩. (/≥■≤\)

난 그만 실신해버리고 말았다.

...는 아니고,

수 많은 개미들로 점령이 되버린 내 방구석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럴 수가... 0_0

북태평양에 있던 적군들을 내 영토로 옮겨 준 꼴이 되버리다니.

물건 하나하나에 수없이 달라붙어 성을 쌓고 있는 놈들의 모습을 보니

그저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다.

이 놈들은 급속도로 수를 늘려가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으며

난 그러한 놈들의 번식상황을 두 눈 뜨고서 지켜보고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나에겐 저 놈들을 모조리 죽일 수 있는 기력도 방법도 없었다.

나의 작전 미스টে이크로 깨끗이 패하고 만 것이다.

두 손 두 발을 높이 들며 놈들에게 패배를 인정했다.

이대리: 내가 졌다. \π_π/

이 날 이후로 내 방은..

놈들의 지상낙원이 되었고

내 몸은 놈들의 안식처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내 간식들은 놈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전쟁은..

허무하게 끝나고야 말았다.

그리고!!

개미세상이 시작되었다..

〈끝〉 □

* 보도에 따르면 붉은 불가미는 일반 개미와 달리 공격성이 강하고 독액 성분도 특수해서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이 물리면 쇼크까지 일으키며, 일반 체질의 사람도 잘못 처리할 경우 병균이 퍼져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개미들은 돌아다니며 세균이나 병균을 옮겨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세요~! π_π

Written by 이대리 (2005.3.11)



사기당했다! -_-

일단, 10초 안에 우겨줄게!

째각.. 째각..

1초

.

.

2초

.

.

3초

.

.

4초

.

.

.

5초

.

.

.

6초

.

·

·

·

7초

·

·

.

.

8초

.

.

.

9초

.

▪

▪

▪

▪

▪

우

.

10초

아싸~! 10초 안에 우겼다!!!! ^^/

휴~ 아슬아슬했네. --;;

약속대로 10초 안에 우긴거 맞지? 그지??

난 분명히 거짓말도 안했고 약속도 지켰다. 에헴~

--;;

미안해. --;;

웃찾사, 개콘 보기 1분 전 상태처럼..

기대 이빠이 하고 배꼽 빼낼 준비하고 있었는데..

순간, 너무나 허무해서 오장육부가 뒤틀렸지??

나도 알아.

분명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야. --;;

아마...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기대하고 따라갔더니

다단계 판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분처럼 크게 당한 기분일 거야. --;;

만약, 저런 저질적인 쓰레기만두급 유머에

크게 한 번 박장대소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근데...

내가 초반부터 왜 이런 쓰레기차에 매달린 음식물 찌꺼기같은

구질구질한 유머를 자행한지 알아?

실은...

나도 여러분처럼 크게 한 번 당했었거든. --;;

기대 이빠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속은거였더군. --;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

자.. 이제 영양가 없는 발언은 그만 할 테니....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구.. -0-/

며칠 전, 어느 카페에서 날라 온 전체 메일을 읽게 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만 하면 그 중 100명을 추첨해 고가의 상품을

택배로 보내준 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 설문조사와 베를린장벽보다 두꺼운 장벽을 쌓고

철조망까지 3단으로 설치하고서 42.195키로 미터나 동떨어져 살고 있던 나라...

그냥 삭제 버튼을 눌러버렸다.

근데 그 메일이 삭제되는 눈깜작 할 사이의 아주 짧은 순간...

메일 내용 중, "부모님을 위한 효도 선물"이라는 글귀 하나가

깊은 밤, 한 순간에 떨어지는 별뿔뿔처럼 눈에 찰막하게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피리릿~~! --++

얼마 안 있으면 2005년 새해인데,

새해부턴 나도 엄마에게 더 이상 청개구리가 아닌

심청이의 모습으로 효도하며 살아가자고 맘먹고 있던 차라..

썹싸게 휴지통으로 다이빙 해보았다.

다행히도 방금 전에 내가 멋지게 소각해버렸던 그 메일이

휴지통 한 구석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메일을 열어 정독을 해가며 설문조사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모 브랜드에 대한 20개의 설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 10개가 주관식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 중 100명을 추첨해 40만원 상당의 홍삼 한 박스와 가족 사진

촬영권을 보내준다는 것이었다.

평상시엔 관심조차 갖지 않을 설문조사였지만...

상품이 상품인만큼...

잘만하면 돈 안들이고 엄마한테 새해부터 점수 따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룩한 생각에, 마치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마음자세로 그 문제들을

하나씩 정성들여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 때, 객관식문제에선 신나게 연필 굴려 찍다가

주관식문제 나오면 시험지 덮고 책상에 엎드리듯...

나도 막힘 없이 개관식을 풀어나가다가 주관식 질문이 나오니까

속도가 다운되기 시작했다.

주관식이 짜증나서 효도고 뭐고.. 화면을 야-_-동 화면으로 확 덮어버릴까 했지만..

엄마 이마에 새겨진 지렁이들이 내 눈앞에서 꿈틀꿈틀 슬라이드로 펼쳐지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날 위해 30년 가까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늙어보이네. -_-)

날 위해 오-_-랜 시간 동안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믿어주시고

희생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랑해주신...

어머님께 효도를 해야겠다는 굳은 일념으로

이곳저곳 사이트를 뒤져가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서는

머리 쥐뜯어가며 주관식 문항에 내 의견을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지망만으로는 불안하다는 생각에...

수북히 쌓여있는 메일 중 설문조사 이벤트 메일들만 걸러내서

2지망 3지망까지 해가며 이곳저곳 설문조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게 설문조사에 응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까.

전무후무한 기적과도 같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자: 호호.. 안녕하세요? 이대리님이시죠?

이대리: 네. 그런데요. 폰팅요청이면 정중하게 사절할게요. -_-

여자: 풋. 이번 설문조사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전화 한 거예요. 축하드려요.

이대리: 네? 제가 당첨되었다구요? 정말요? 0_0a

여자: 네. 정말이에요.

이대리: 우와~~ 진짜죠??

이거 장난 전화 아니죠?? 그렇지??

여자: 호호. 정말이라니까요.

이대리: 야호~~ 우르르르 빠세이~~~ ^ ____ ^

만약, 제 가슴 이렇게 붕붕 뛰어서 남산타워 꼭대기에 걸어두었다가
나중에 장난전화라고 끊어버리면 전...

님의 브래지어를 뽑아서 학교운동장 태극기 옆에 걸어둘 거예요! 정말 요!!

여자: 호호. 거참 말 쌍스럽게 하네요.
주소 불러주시면 효도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도착할 거예요.

이대리: 우와~~ 정말인가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드디어 엄마한테 효도를.. 흑흑.. (-_ど)

여자: 약속대로 40만원 상당의 홍삼 진액 골드 한 박스랑
가족사진 티켓 10만원짜리를 보내드리거든요?
물건 받으시면 박스 개봉해서 확인하시고 배달원한테 착불금
3만3천원만 내시면 돼요. 착불금은 동의하세요?

이대리: 그! 럼! 요!
그까짓 착불금이 문제인가요!!
배꼽보다 배가 더 큰데!!
넌름 보내주세요!! ^ ____ ^

여자: 네. 그럼 바로 접수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호호..

이대리: 두 말 하면 잔소리.
하하..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아마 세계의 중심이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 사랑해요~~ 쪽~! 쪽~! 쪽~! (^■^*)

지금까지 이벤트에 당첨되었던 일이 가뭄에 완두콩 나뭇 거의 없었던 터라..

이 날 나의 기쁨은 놀이동산에서 솜사탕을 들고서 회전목마를 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이들의 천연덕스러운 기쁨처럼 무공해 자연산 천연기념물스러운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말할 틈도 주지 않고서

따발총으로 자랑을 해대고...

또 내 카페에 들어가서 3천만 회원... 아니, 3천-_-명 회원들에게도 자랑을 해대며

난리부르스윌리스를 떨어댔다.

심지어는 이 나라가 너무 위대해 보여 애국가를 틀어놓고

각기춤에 웨이브춤까지 추려고도 했었다.

그러나 행복 뒤엔 항상 불행이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나 다름없었다. -_-;

며칠 후.

딩동~! 딩동~! 하는 경쾌한 초인종 리듬이 들려왔다.

이대리: 누~♪ 구~♪ 세~♪ 요~♪ ^____^

남자: 네. 택배원입니다!

문을 열어주자, 아침 창문 틈새로 비취는 싱그러운 햇살처럼

택배원의 얼굴이 화사하게 비취졌다.

택배원: 헉, 헉, 이대리님이신가요?

박스 무게 압박에 택배원의 얼굴이 많이 찌그러져 있었지만..

그런 만큼 내 표정은 더욱더 밝게 빛났다.

이대리: 네. 이대리님 맞습니다. ^^

아이구. 5층까지 올라오시느라 적당히 힘드셨죠?

무거울텐데 님의 무거운 짐을 저에게 살짝 패스해 주시겠어요? ^0^

택배원: 그 전에 돈을 보여주시죠. _ _;

이대리: 물건은 틀림없습니까? _ _!

택배원: 거래 한 두 번 해보십니까? _ _

이대리: 세 번 해봤습니다. _ _

택배원: 하하.. 제 유머에 맞받아 친 사람은 지금까지 님이 처음이네요.

전 그럼 물러날 테니 물건 확인해보세요. ^0^

이대리: 네. 감사합니다. ^.,^

택배원이 착불금을 받고 사라지자 잼싸게 칼로 푸욱 그어 박스를 찢어버렸다.

그러자, 홍삼세트 한 박스가 보였고..

누드모델이 해변가에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처럼..

홍삼 박스 위에 편지봉투 하나가 요염한 자세로 누워있는 게 보였다.

잼싸게 그 편지봉투를 들어 겉에 포장된 옷을 후다닥 벗겨버렸다.

약속대로 가족사진 촬영권 10만원 권이 광을 내뿜고 있었다.

그런데...

가족사진 촬영권과 몸을 맞대고 있는 한 변태같은 녀이 보였는데..

그 녀를 들어보자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다.

장뇌산삼은 강장제로서 피로회복 및 수술이나 질병 후 기력회복에 좋고 노약자에게 좋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 과학연구결과에 의하면 암, 당뇨, 동맥경하등 성인병에 효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뇌산삼은 체질 자체를 개선시켜 줌으로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하여 일정량을 복용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심신이 건강하게 된다.

아하~! 장뇌산삼을 소개하는 복권이였다.

복권 우측 상단을 보니 즉석복권처럼 은색으로 모자이크 처리 되어있는 게 보였다.

* 아래를 동전으로 긁어주세요!

????????????????

같은 글씨 3개가 동일하면 해당상품 당첨!

오호라~~ 상품이라~~~??? @_@

성격 급한 이대리.

당장 동전을 찾으려고 방으로 들어가 눈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리저리 훑어봤다.

두리번~ 두리번~ (``)(``)(``)

된장. 안 보인다.

젹싸게 저금통을 까부셨다.

100원 짜리 세 개랑 500원 짜리 하나가 떨어졌는데... -_-;

기왕 큰 게 좋을 것 같아 500원 짜리를 들고서

조심스럽게 은색으로 덮힌 부분을 긁어보았다.

첫 번째 단어를 살짝 긁어보니...

'장뇌산삼'이었다.

장뇌산삼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살짝 긁어보니...

'장'이었다.

장뇌산삼 장

우후~!

그리고 또 한 글자를 살며시 굽어보니...

'뇌'였다.

장뇌산삼 장뇌

아싸~! ^0^

순간, 장뇌산삼일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동전을 확 굽어버렸다.

역시나 '장뇌산삼'이었다.

아싸가오리~~ @(^_^)@

장뇌산삼 장뇌산삼

이제 하나만 더 맞으면 장뇌산삼은 나에게로.. ^.,^

마지막 세 번째 글자로 넘어갔다.

이번엔 스릴을 즐기기 위해 뒤에서부터 조심스럽게 굽어보았다.

장뇌산삼 장뇌산삼 삼

유후~! ^0^/

그러나 아직 좋아하긴 이르다.

'흥삼'일 수도 있다. _ _

다시 끝에서 두 번째 글자를 살짝 굼어보았다.

허걱~!! 0_0

'산'이었다.

장뇌산삼 장뇌산삼 산삼

너무나 떨려....

몸이 부들부들 진동모드로 돌입하기 시작했다.

아직 좋아하긴 이르다.

혹시..

'장뇌산삼'이 아니라..

'천 년 묵은 산삼'일 수도 있다. -_-;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동전에 바짝 힘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첫 글자 모서리 부분에 동전을 살짝 올려두었다.

복권을 굽어야 하는데 도무지 용기가 나질 않아

동전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부들부들 떨다가 용기를 내서

확!!!!!! 굽어버렸다.

눈을 감고서. -_-;

이제 눈만 떠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눈을 실로 꼬매봤는지 떠지지가 않았다. >_<;

남자가 겨우 장뇌산삼에 눈이 멀어 눈이 떠지질 않다니..

정말 쪽팔리도다.

에라 모르겠다!!!

굳게 닫혀 있던 눈을 활짝 떴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고서.. -_-;

자.. 이젠 손가락만 치우면 된다... 꿀깍... -_-;;

과연 저 글자가 무엇일까..

스릴 넘치는 순간이다.

침을 꿀깍꿀깍 삼키고서는...

글자를 가리고 있는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슬며시 미끄러뜨렸다.

마치..

도신 영화 속에 나오는 주성치가 마지막 히트카드를 받고서

카드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것처럼..

앗~!

'장'이다!!! 0_0

장뇌산삼 장뇌산삼 장 산삼

우하하하!!!! 이제 한 글자만 남았다.

그러나 아직도 좋아하긴 이른다.

혹시 '장군산삼'으로 샤킹을 쓰는 걸지도 모르니

최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엄지손가락을...

시속...

0.00000000001km의 속도로....

미끄러뜨렸다.

아..

글씨가 보이기 시작한다....

앗..

'ㄴ'이 보인다.

장뇌산삼 장뇌산삼 장ㄴ산삼

긴장을 늦추지 말자.

'장난산삼' 일 수도 있다.

꿀꺽~ -_-;;

가슴을 진정시킨 다음..

모음을 가리고 있던 손가락을 옆으로 재빨리 치워버렸다.

헉뜨~!!!! 0_0

"장뇌산삼"

장뇌산삼 장뇌산삼 장뇌산삼

산.. 산삼... 산삼.... 산삼..... 0_0

이대리: 으와아아아!!!! 심봤따~~!! ^0^//

홍삼에 이어 산삼까지 당첨되었다는 크나 큰 기쁨에...

복권을 들고 마루에서 강충강충 펄쩍펄쩍 출랑출랑 뛰어대면서

소리를 까아아아아!! 질러댔다.

마치 월드컵 때 우리 나라가 4강에 진출할 때의 기쁨처럼

가슴이 뜨겁게 달아 올라 자제할 수가 없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 같이 천방지축 날뛰어 대야했다.



밑에 집 아줌마가 올라와서 한 번만 더 쿵광거리면

이번 인라인 정기모임을 빌라 옥상에서 개최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바람에

냉수 한 잔을 원샷하고서 닳아오른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래도 흥분이 가시지 않아 태극기 들고 서울대전대구부산을

차례대로 찍고 오고 싶을 정도였다.

왜냐??

28년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거든. ^.,^

홍삼에다가 장뇌산삼에다가 가족사진 촬영권까지 보여드리면

엄마 기절하겠지??

그렇다면.. 119대기 시켜둘까?? ^.,^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만 보여드릴까? ^.,^

그렇게 온갖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9시 뉴스에서 살-_-인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쯤 엄마의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보통 엄마는 집 열쇠를 꺼내기 전에 벨을 한번 누르는 습관이 있는데

난..집에 없다는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죽였다.

깜짝 이벤트로 놀라게 하려고 조용히 엄마가 들어올 때까지 문 옆에 숨어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다.

홍삼박스를 들고서. ^^

초인종 소리가 몇 번 시끄럽게 울려 퍼지더니 열쇠를 꺼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출입문 벽면에 최대한 몸을 숨기고서 작전준비를 시작했다.

곧, 문이 삐걱삐걱 열렸고 문 안으로 들어선 엄마의 모습이 얼핏 보였다.

하나..

둘..

셋!!

이대리: 째~~~ $y(^o^)$

홍삼박스를 들고 경충 뛰어서 엄마 앞에 마법사처럼 째~ 등장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내 머리통을 때리드라... -_-

엄마: 쌍놈아!! 집에 있었으면 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냐?
열쇠 찾느라 애먹었잖아!!

순간, 김이 팍 섰다. -_-

하지만..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홍삼을 못 봤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 번 제자리에서 꺽충 뛰면서

리플레이를 해드렸다.

이대리: 째~~~ y(^o^)y

그제서야..

홍삼박스를 본 엄마가 물었다.

엄마: 이게 뭐야?

이대리: 호오오옹~삼!!!! ^0^

114안내직원의 목소리보다 상냥하고 맑고 고운 소리로 말하고는

닭살스러운 웃음을 선보이는 에어로빅선수처럼 활짝활짝 웃어대며

엄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일까..

내게로 번지점프를 해서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출싹 달라붙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댈 줄 알았던 엄마는..

눈동자에서 칼날을 갈고 있는지 눈빛이 엄청 날카로워지더니

싸울 때 기선제압을 하는 사람처럼 눈을 위로 최대한 치켜뜨고는

날 째려보는 것이었다.

엄마: 어디서 났어? -.--+

이대리: 아... 내가 어디서 돈 주고 사온 줄 아나본데...

엄마.. 놀라지마. 나 이벤트 당첨돼서 공짜로 얻었어. 히히.. ^^v

그러나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현관문 앞에 서서 계속해서 눈을 치켜 뜨고 있었다.

엄마: 완전 공짜야? -.++

이대리: 아니... 택배비는 내가 부담했지. ^^;

엄마: 얼마. -_-+

이대리: 3만3천원. ^^;

말이 끝나자 엄마의 오른 손이 어디론가 은근슬쩍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곧 고공에서 구두주걱이 날아왔다.

퍽퍽!!!!

엄마: 이 등신아!! 택배비가 5천원이면 돼지!!!
무슨 3만 3천원이야!!!!

이대리: 아야!!!
지금 그게 문제야! 홍삼이 왔는데! >_<

엄마: 이구... 내가 못살아.

이걸 등골을 뽐아서 사골 국 끓여먹을 수도 없고..

그 홍삼 2만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대리: 아냐! 분명 40만원짜리라고 그랬단 말야~!

엄마: 어휴~ 이런 머저리같은 놈!

이 녀석아~ 개네들 홍삼 안 팔리니까 이런 식으로 파는 거라구!

엄마는 3만3천원이 아니라 2만원에 가져가라고 전화가 빗발쳐!!

된장!! -_-

효도 좀 해보려고 신나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백태클을 걸다니.

좋다. 엄마가 정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비장의 카드가 있지.

젼싸게 방으로 뛰어 들어가 티켓 한 장을 들고 쫄레쫄레 달려나왔다.

그리고 부웅 점프를 해서 엄마 앞에 쿵 착지를 하며 복권을 살랑살랑

흔들어댔다.

이대리: 짬~ 그래도 요건 뭐라고 못할걸? 살랑살랑~ (*-^*)㉠

그러나.. 엄마의 눈빛은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 따가운 눈총에선 금방이라도 총알이 날아올 것만 같았다.

엄마: 그건 모냐. -. = +

이대리: 엄마 절대 놀라서 쓰러지면 안 돼~ 알았지??

엄마: 집에 있는 식칼은 다 치웠냐. =. = +

이대리: 에이~ 이번엔 엄마도 좋아 죽을거라니까 그러네. ^0^

엄마: 시간 끝지 말고 빨리 시작해라. =. = ++

이대리: 그니까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말이지.....

뚜그뚜그뚜그뚜그..... o(^ ^)o

엄마: 셋만 샌다. 3... 2.... 1..... =. = +

이대리: 네~~~~ 장뇌산삼이 당첨되었습니다!!!!!!

으하하하하!!!! ^ _____ ^

엄마: 오~ 그래?

그건 착불금 얼마데?

이대리: 최소 재반 경비랑 택배비랑 합해서 3만3천원만 내면 돼. ^^

엄마: 돈이 튀는 구나. -. = +

이대리: 엄마 이래봬도 산삼이야. 산삼~~~

엄마 이거만 먹으면 100년은 더 살 수 있을 걸??

아하하!! ^0^

엄마: 그래서... 그것도 신청했니? -. -+

이대리: 응. 내일 올 거야. ^0^

순간.. 엄마의 오른손이 보이지 않았다.

오른 손의 행적을 살펴보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술래 쪽으로

슬그머니 다가오는 아이들처럼 신발장 옆으로 조금씩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방향 끝에는...

뽀족한 장대우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대리: 엄마.... 설마.. 0_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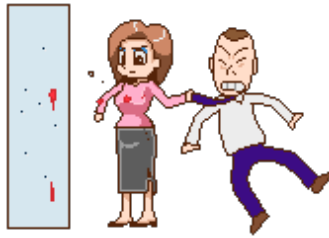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엄마는 당근대신 채찍을 선택했다.

그리고 복어처럼 맞아야 했다.

엄마: 오늘 너죽고 나 죽어보자!! 응!!!!

팍!!! 팍!! \ (' ㅅ ') \



이대리: 으아악! 엄마 왜 그래!!!! (/)_< \)

엄마: 몰라서 물어??? ㅁ (' ㅅ ') /

이 멍청한 자식님아~

예전에 우리집 비디오방 할 적에 손님들한테 나눠 준 쿠폰 어땀어?

다 1등이었잖아!!!

다 1등 나눠줘서 다시 한 번 오게 만들었잖아!!

이것도 다 장사 속인거 몰라!!

그렇게 세상물정 몰라서 어떻게 살아나갈래!! 응!!!

뭐?? 장뇌산삼???

요즘 천년 묵은 산삼도 천원이면 사!!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똥을 된장이라고 속여 팔아도 사겠구나!!



이대리: 아악!! 아아!!!!

알았어!! 알았어!!!

다 엄마 말대로 그렇다고 쳐!!!

이번엔 진짜 뭐라고 못할 거야!!!!

엄마: 헉헉..... 또 있냐. +_+

이대리: 에이.. 기다려봐... ㄱ(∞—, —)ㄴ

엄마는 현관문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네킹처럼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며 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난 다시 방으로

부랴부랴 뛰어 들어가 마지막 히든 카드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들고 나왔다.

엄마: 그건 모냐.+_+

이대리: 가족사진 촬영권 10만원 짜리야.

우리 집은 가족사진 한 장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찍으면 돼.

어때? 좋지?

내일 형이랑 누나랑 불러서 같이

사진 찍으러 가자. 응? ^^

엄마: 그것만 있으면 공짜로 찍냐.+_+

이대리: 아니.. 2만원만 보태면 돼. ^^

엄마: 풋.^.~

이대리: 나두 첨엔 공짜인 줄 알았는데..

상품권 뒷면에 보니까 가족사진 찍는데 12만원이래.

그러니까 이 티켓에다 2만원만 보태면 되는 거야. 히히. ^^

엄마: 호호....^^

이대리: 헤헤.. 엄마도 참..
결국엔 좋아할 거면서.. ^^a

순간. 엄마의 눈동자 초점이 사시가 되었는지...

내 눈동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은근슬쩍 시선을 옮기는 엄마의 눈동자를 따라가 보았다. 

그러자....

거실 모퉁이에서 반짝 반짝 빛나고 있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가 보였다.

이대리: 엄마... 0_0^{oo}

순간.. 엄마가 하늘 높이 몸을 부웅 날렸다.

나도 잼싸게 몸을 부웅 날려 마루바닥에 배를 대고

쭈욱~~ 슬라이딩했다.

하늘에서는 엄마가 날아갔고 육지에서는 내가 슬라이딩하고 있는

광경이 찻막하게 펼쳐졌다.

엄마는 전철에서 빈자리를 뉘아채는 대한민국 아줌마의 날렵함을 선보였지만

다행히도..

내 팔이 훨씬 길어서 내가 먼저 방망이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인생 마감할 뻔한 순간이었다. -_-;;

엄마: 내놔. -.-

이대리: 엄마.. 정말 이러기야??

가족사진 찍는데 2만원으로 찍을 수 있어?

엄마: 등신아! 그건 분명히 만 오천 원 정도 하는 거야.

엄마랑 내기할까!

이대리: 엄마 정말 너무해.

뽕뽕뽕!! 뽕뽕뽕!! \(\▽▽\) (/▽▽)/

엄마: 뭐가 너무해!!

이대리: 그래도 다 엄마한테 효도해보려고 그랬던건데...

왜 내 맘을 그렇게 몰라주는 거야.

엄마 나 때문에 웃는 모습 본 지 오래돼서 한 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말야. -_-;;

엄마: 가만히 있는게 효도하는 거라고 하루 삼세번씩

주구장창 외쳐댔던 것 같은데. -.-+

이대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귀여운 재롱둥이 막내 아들한테 그렇게 상처받을 말을..

내가 무슨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고라도 치나?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바이러스 같은 존재야?

그러자..

엄마가 주머니에서 과태료 용지 같은 걸 꺼내더니 딸랑딸랑 흔들었다.

엄마: 이번엔 150으로 달렸더라?

이대리: 앗.. 그건.... 0_0;

엄마: 과태료 용지 모아서 백과사전 만드려고 그래?

차 끌고 나갔다 하면 야외촬영하고 오드라. -.~+

이대리: 그러니까.... 그건... 0_0a

엄마: 장래 꿈이 카레이싱가봐?

이대리: 엄마.. 그 땐 정말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어. 0_0a

엄마: 왜? 집에 야동 켜 놓고 나갔었니?

이대리: 그.. 그걸.. 어떻게... -_-;;

엄마: 엄마가 께다. -.~+

이대리: --;;

엄마: 아무튼 한 번만 더 사기꾼들에게 돈 퍼다나르면...

짐 싸서 나갈 준비해라. -.~+

이대리: --;;

엄마: 요즘같은 불경기에 허리띠 조여매고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쓸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여기저기다 돈 퍼주고 다닐 때야?
이번 한 번만 봐줄테니 그리 알아.

이대리: 엄마.... 근데 이 홍삼 먹긴 먹을 거지?? (￣_〰)

엄마: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싸구려 홍삼을 찹찹해서 마실 수 있겠어? -. - +

이대리: 산삼은.... --;;

엄마: 당장 취소해라. -. - +

이대리: 엄마.. 미안해..
난.. 그래도 엄마를 기쁘게하려고... 글성글성.. (づ_ -)

엄마: 엄마가 이렇게 큰소리치긴 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받아들였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

이대리: 흑흑.... _ _ T

엄마: 그만 똑~!

이대리: 으아앙~~ 엄마~~ (Π^Π)

엄마: 이구.. 우리 아들 드디어 터졌구나.
좀 징그럽긴 하지만..
엄마가 꼭 안아줄게~ (づ'-')づ

이대리: 흑흑.. 엄마.. 내가 저 홍삼 다 마신테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 (ㄱ ㄱ)

엄마: 그래 엄마도 몇 개 마셔줄게.
아이구 내 새끼~~~ (づ-')づ

— —

이 날 엄마에게 홍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홍삼이 든 팩 하나를 꺼내서 별걱별걱 마셔댔다.

그런데...

다른 이유였는지 아니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홍삼 진액을 원샷하고서 정확히 10분 뒤에 배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참을 수 없는 매스꺼움에 화장실로 급행해야만 했다.

그 순간 엄마는..

아들이 선물한 홍삼이라 한 봉지는 먹어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들었는지 홍삼 한 봉지를 꺼내들어

싱크대 앞에 서서 가위로 팩 모서리 부분을 자르고 있었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홍삼이 생각보다 맛이 죽인다니니.. 기운이 솟는다니니..

괜한 오버를 하시면서 싱크대 하수구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난..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

.

버렸다는 것을.... -_-

그 날 이후로...

홍삼 박스에 든 홍삼 팩은 줄어들질 않았다.

지금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식탁 위에서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무게로 자리잡고 있다.

홍삼의 질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왠지.. 뭔가 의심스럽고 찝찝한 마음에 선뜻 마실 수 없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선물하기도 좀 그랬다.

내가 마시기 싫은 거 다른 사람이라고 마시고 싶겠는가. -_-;

아무래도...

폐기처분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다. -_-;

며칠 후..

네이버에 들어가서 나처럼 홍삼을 경품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지 검색해 보았다.

놀랍게도 나와 비슷한 경우의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모두들 나처럼 착불금을 내고서 홍삼 또는 어떤 경품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원가가 착불금만큼도 안 된 다는 것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반품을 하려고 했더니 반품도 안 된 다는 것이었다. -_-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이러한 기회를 타서 사람들의 공짜심리를 자극시켜 마진을 남겨먹으려는

얕박한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폐기처분해야할 물건들을 이런 식으로 팔아헤치우는 악덕 기업들도

여기저기서 속출하는 듯 하다.

아무리 마케팅전략이라고도 하지만....

모두가 먹고살기 힘든 이러한 불경기에...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네들만 잘 먹고살면 된다는 심보로..

사람들의 공짜심리를 이용하여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되는 걸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월드컵 응원할 때 외치던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이해할 수 없구나... -_-

이러한 일이 온라인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니다.

벌써 오프라인에서도 당해본 경험이 몇 번 있다.

그 때도 홍삼이랑 관련된 사기였다. 빌어먹을.. -_-;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처럼 피해보지 않으려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항상 잘 알아보고 경품을 받았으면 한다.

괜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경품이라는 이유로...

알게모르게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돈 주고 산 물건을 써먹지도 못하고 방 구석에

쳐박아 두기 싫다면 말이다.

만약.. 누군가가 물건을 거저 준다면 따라오라고 유혹하면...

귀가 솔깃해져서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일단 의심부터 해라. -_-+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기꾼들은 많다. -_-

=====☆후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히면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삐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



이대리: 여보세요?

사기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은 남자 이대리입니다.

용건을 진실로 말씀해주세요. _ _

여자: 안녕하세요? 이대리님 맞으시죠?

이대리: 네. 그런데요. 사기가 목적이라면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여자: 풋. 사기라뇨?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서 홍삼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대리: 아하~! 2지망으로 지원했던 그 설문조사이군요. _ _

추가합격인가요? 아니면 바로 합격인가요?

참.. 경쟁률은 몇대 몇이었나요?

여자: 호호.. 농담도 참..

축하드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호호..

이대리: 하하.. 정말 기분이 좋아서 무지개색 내복만 입고 나가서

동네 한바퀴 돌고 싶군요. _ _

여자: 호호.. 웃음소리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정말 기분 좋은신가봐요.

이번에 이벤트 당첨되었으니 어머님께 멋지게 효도 한 번 하세요. 호호..

이대리: 아하하하!!! _ _

이벤트 당첨이라며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말씀하시는군요.

거기서 효도라는 말로 리본까지 묶어주시는군요.

여자: 호호.. 재밌으시네요.

나중에 물건 도착하면 착불비 3만 3천원만 지불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대리: 그 홍삼 얼마짜린데요?

여자: 39만 6천원짜리예요. 거의 40만원이나 다름없죠.

이대리: 우와~~ 그럼 저 완전 땡잡은 거네요. 아하하하!! -_-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크게 소리 좀 지를테니...
좀만 이해해주세요.

여자: 호호.. 그러세요.

.

.

.

이대리: 이봐요!!!! 이거 그냥 다 주는 거라면서요!!!!
나가서 사도 그 정도 돈이면 산다면서요!!!
아니..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뭐요? 효도상품요?????
저 이것 때문에 엄마랑 이산가족 될 뻔했어요!!!

앞으로 사기 치지 마세요!!!! (` ^ ')

〈끝〉

*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전화를
한 통씩은 받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오면 잘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저처럼 억울한 일 겪지 마세요~~ ㅌ_ㅌ

Written by 이대리 (2005.2.6)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는 질문에

"머리 기르는 학교가 제일 부러워요!"

라고 목젓 튀어나오게 대답하던 한 때가 있었다.

바로 고등학교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

아니, 벌써 동해물과 백두산도 변했을 10년 전이구나.

(78년생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가 벌써 10년이나 흘렀군요. 츄르르.. T_T)

그 때만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두발자율화를 외쳐댔고

머리 잘리기 싫어서 결석과 조퇴를 자행하거나 집을 떠나는 학생들도 있었다.

고등학생 때라면 막 이성에 눈을 뜨고 무게중심(?)이 뿔뿔해지며 한참 멋을

부릴 나이인데, 멋의 대명사인 머리를 못 기르게 학교에서 통제를 가했으니

그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개깡, 새우깡으로 머리에 물쓰와 무쓰를 쳐바르며 개기는 애들도

간혹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학생부로 연행돼 먼지 쌓이도록 얻어터지고서

패키지로 영구가 되고 난 후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에 끌려 들어가 반병신이 되어 나와야 했던

애국지사들처럼 우리도 학생부에 끌려가면 온갖 육체적인 고문과 모독을 당한 후

반병신(?)이 되어 나와야 했다.

신기하게도 사람이 한 순간에 병신 되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바리깡에 밀려 머리 가운데 중앙 고속도로가 하나 개통되고 나면

원조 꽃미남이라 불리던 놈도 한 순간에 혐오스러운 야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상태에서 머리에 손 대고 씨익 웃으면 아무리 장동건, 정우성이라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 줄 것이 분명하다.

머리스타일 하나로 사람의 얼굴과 이미지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걸

그 때서야 알게되었다.

우리 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그렇게 머리 한 번 잘리고 나면 매점인생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

얼굴에 철판 깔지 않는 이상. -_-;

아무튼..

머리 기르면 멋 부리는데만 신경 써서 공부 안 한다는 이유로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또는 수업시간에 가위를 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선생님들만 보면 히딩크 어퍼컷을 한 때씩 갈겨주고 싶었다.

참나. 그렇게 남의 머리를 반봉신 말기 상태로 만들어두면 그것 땀에 신경 쓰여

더 공부도 안 되고 오히려 반항심만 만땅 채우게 된다는 걸 모르나?!

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소리 높여 따지지는 못했고..

제발..

가엸은 고삐리땡중들을 위해 누군가가 "난! 빠박이가 싫어요!"라고 외치며

옥상에서 한 명만 다이빙해 주길 간절히 바랬었다.

아니면, 머리 잘린 아들 때문에 성질 더러운 학부모님 한 명 찾아와서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만 빼고 전교생이 머리를 삭발식하며 대항하길 바랬었다.

이 정도로 머리에 대한 애착심이 강했다는 거야. -_-;

그 당시, 머리에 땀뽕있다는 이유로 머리를 장발로 기르는 학생이 전교에서

세 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그들에게 가서 물었었다.

어떻게 하면 땀뽕이 생길 수 있냐고.

한 놈은 싸우다가 맥주병에 찍혔다 그러고 또 한 놈은 어렸을 때

계단에서 굴렀다고 한다.

그 말 듣고서 맥주병을 손에 쥐었다 풀었다를 수없이 반복했었고,

지하철 계단 위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망설였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근데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요 밑에 놈들에 비하면 한 덩어리 애교에 불과했다.

머리를 기르고 싶다는 이유로, 서울대 꿈을 포기하고 3학년 진학 할 때

직업반을 택하는 놈들도 있었다.

왜냐? 직업반은 사복에다가 두발도 자율화거든.

그 당시 직업반은 꼰통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다.

경쟁률 엄청났다. -_-

이렇게 머리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살아나가던 고삐리 시절.

머리를 안 잘리기 위해 별의 별 수법을 다 동원했었다.

항상 선도부와 학생부 선생님들이 교문 앞으로 나오는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학교에 등교를 했고..

가끔 늦잠을 자서 좀 늦게 일어나는 날엔 그들이 들어갈 때까지

근처 야산에 잠복해 있다가 그들이 철수하면 개구멍을 타고

학교로 침투해야 했다.

아마도 내가 1,2,3학년을 통틀어 전교에서 가장 빨리 출석하는

학생이었을걸? -_-v

참... 내가 맨 날 복도 문 활짝 열어주고 교실과 복도에 불 켜주니까

수위아저씨가 음료수도 사줬었다. 멍하했. -_-v

근데..

그렇게 아침잠을 포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는 것도

겨울엔 정말 참기 힘든 끔직한 일이었다.

이른 아침에 등교하면 벽에 걸린 전기난로에 불이 켜지질 않는 것이었다.

보통 8시쯤 되어야 불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한 시간동안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다.

그래서 겨울엔 장갑, 목도리, 내복, 귀마개는 필수품이었다.

그리고 겨울은 보통 아침 7시에서 7시30분 정도까지는 밤처럼 어두운데..

내가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은 항상 7시전이었으니 그 공포감은 장난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라. 아무도 없는 컴컴하고 넓은 건물에 혼자 있는데 안 무섭겠는가?

그것도 학교에 전설이 좀 많아야지.

아침 일찍 와서 공부를 하던 전교 1등과 2등이 싸우다가 한 명이 죽었다는 전설.

그래서 아침 일찍 오면 "통통통 드르륵~! 없네?"라는 말소리가 들려온다는...

교실에 혼자 있을 땐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는 전설.

뒤를 돌아보면 귀신과 얼굴이 마주친다던가??

그리고 음악실에서 피아노소리가 가끔 들려온다는 전설.

음악소리가 들려오면 무조건 귀를 막고 있어야 한다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설들 때문에 정말 오싹하고 소름끼치고 무서웠지만,

그 공포감마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머리는 나에게 고귀한 생명이나 다름없었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그 어떤 공포와 억압과 귀차니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고괴담이란 영화가 만약 그 때 나왔더라면 난 차라리 빠박머리를 택했을 거다.

귀신 나올까봐 종나 무서웠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거든. -_-;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총을 든 공산당이 아니라,

양날의 가위를 든 교련선생님이었는데...

항상 날카로운 가위를 들고 들어와 머리가 좀 길어 보인다고 싶은 애들을 걸러내

무자비하게 싹둑거리는 만행을 펼치는 교련선생님은 우리에게 있어

공포대상 1호였다.

그 선생님이 1분단을 뱅 돌면서 학생들의 머리를 순찰하고 있으면,

1분단 쪽에서 쿵닥쿵닥 거리는 소리가 4분의 3박자로 들려올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런 이유로 교련과목이 들은 날엔 쉬는 시간마다 모자를 꼭 눌러써서

머리를 최대한 죽이고 있어야 했다.

곰솔머리들은 위장에 능했지만 난, 생라이브 머리라 머리가 길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자로 팍팍 죽여야 했다.

그리고 가끔은 아프다면서 그 전 시간에 양호실로 대피해서

몇 시간 누워있다 온 적도 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반 주변을 헐박해 대신 수업을 듣게 하는 간딩이가 세포분열을 일으켜

에어백이 된 놈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간딩이가 부은 놈들은 몇 안되었고 대부분이 교련샘에게

머리를 잘리고서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날카로운 살껍따구들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아낌없이 펴펴 흘려야 했다.

이 때... 난 비극의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랬나루 남겨달라는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달마도사가 되어버려야 했던 한 학생을.

이렇게 교련선생님이 교실을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날 학교 앞 미용실은 대박

터지는 날이었고, 모두들 반 영구적인 모습으로 미용실 앞에서

번호표 뽑아들고 대기해야했다.

아마, 우리 나라의 모자 사업과 미용실의 밥줄은...

교련선생님들 손에 달려있을걸?

아무튼, 난...

피나는 노력과 교활한 수법으로 이리저리 도망 다니며

머리를 계속 기를 수 있었고,

중학교 입학 이후 처음으로..

머리카락을 코구멍에 넣을 수가 있었다.

대성공이었다. 으하핫!! ^.,^v

그렇기 기른 머리는...

방과 후, 집에 가서 외출을 할 때..

7:3 가르마에다 드라이까지 하고 나갈 정도였고

머리카락이 자꾸 눈을 찔러서 방학 때 파마나

해야겠다는 생각도 할 정도였다.

친구들은 이런 날 몹시 부러워하기도 했고 한 편으론 시샘하기도 했다.

난,

그렇게 남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영웅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사진을 찍을 때..

머리 긴 놈이 한 명 있어야 배경이 살아난다며

모두들 나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했고...

또 어떤 놈은 머리가 짧아서 담배를 살 수 없다며

나에게 돈을 주면서 담배 좀 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당구장에 가서 큐대를 들고 자세를 취하면....

날카롭게 내려온 머리카락이 눈을 살짝 덮어서 공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그 때, 고개를 뒤로 획~! 던지는 느낌은 그야말로 천상의 느낌이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묘기가 아니었다.

한 번은 "아! 짜증나네~!"라고 말하며 고개를 뒤로 젖히다가

머리 잘리고 온 애한테 잘 못 걸려서 당구공과 큐대로

맞아죽을 뻔했었던 적도 있다. -.,-v

아무튼...

그렇게 동화 속 주인공 마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다른 학교 키크들을 많이 알고 있는 재훈이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오더니 책상에 엮어져있는 날 깨우는 것이었다.

나?

3교시 때 점심 까먹고 쿨하게~! 주무시는 중이었거든.

전교 1등으로 출석하다 보니 많이 피곤했거든. -_-;

재훈: 야! 일어나!! 일어나 봐!!

이대리: 아흥~ 왜 이래~! (___)

재훈: 울트라 메가톤급 희소식이 있어!

이대리: 원데.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널름 사라져 줘. (-_도)

재훈: 너 저번에 나랑 같이 찍었던 사진 기억해?

이대리: 어떤 거. 너 등 밟고 올라가서 여자화장실 몰래 찍은 사진?

재훈: 그거 말고!

이대리: 그럼. 목욕탕 환풍기에서 내려찍은 여탕 사진?

재훈: 임마! 그거말고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

이대리: 선풍기 틀어놓고 바람에 머리 펄럭이게 하고 찍은 사진?

재훈: 그래.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지금 00예술 고에서 난리가 났대.

이대리: 난리가 나다니. 난리라는 애가 여고에서 태어난 거야?? (-_?)

재훈: 썰렁한 소리 집어치우고...
그 사진 때문에 너 인기가 자자해.

이대리: 으잉??

순간, 잠이 팍 깨버리면서 게슴츠레한 눈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바뀌었다.

이대리: 뭐라고???

용건을 길게길게 자세히 말해봐. +_+

재훈: 바람에 머리 날리는 모습이 완전 c.f에 나오는 모델 같으면서
다들 뺏갔다는 거야.
그래서 너도나도 소개시켜달라고 난리가 났대.

이대리: 아유~~ 리얼리?

재훈: 정말이라니까. 속고만 살았나.

이대리: 그럼... 그럼 나도 팬클럽 생기는 거야? 그런 거야?
아~! 역시 힘들게 머리를 기른 보람이 있구나.
내일부터 사인연습 좀 해야겠구나. 아하하! ^^

재훈: 왕자님아! 그만 헛소리하고 놀라운 사실 하나 말해 줄게.

이대리: 응.. 원데.. 원데.. 뒤로 크게 자빠질 준비하고 있을게. (—.—)3))

재훈: 요즘 청춘드라마에 나오는 아영이 알지?

이대리: 길거리에 모든 눈알들을 몰고 다닌다는 애?
당근 알지. 이 동네에서 개 모르면 동사무소에서 등본도
안 때준다면서.

재훈: 개 어떻게 생각해?

이대리: 어떻게 생각하긴.
난, 그렇게 얼굴값하고 다니는 애들은 트럭 100대를 실어줘도
트럭만 갖고 돌려보낸다는 거 잘 알잖아.

재훈: 정말이야?

이대리: 너, 내 성격 몰라?
난, 아무리 모니터가 고화질이라 해도 콧대 높은
애들은 싫어한다는 거.
차라리 모니터는 고물상에서 주워와도 고장 안 나고
말 잘 듣는 모니터가 좋다구.
근데 겨우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재훈: 그래? 그럼 어찌지. 개가 너 사진보고는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던데.
머리 긴 남자가 좋다면서.

-_-!

이대리: 친구.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지? -_-;

재훈: 이런 중 올리네. 나 수업 들어가야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구.

이대리: 불알친구. 잠깐만 발걸음을 얼음 해줘. -_-;;

재훈: 빨리 가야한다니까.

이대리: 나 주변이거든. 내가 대신 수업 들어갔다 올게.
안색도 안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푹 휴양이나 하고 있으라고. ^.,^

재훈: 괜찮겠어?

이대리: 훗.
이럴 때 공부하지 언제 하겠어. -.^

재훈: 교련선생님인데도??

-_-!

이대리: 참, 주변이 한 명 더 있었군.
그 친구를 설득해 보겠네.
우린 함께 할 얘기도 있고..
하하. 그럼 다녀올게.

재훈: (' ')

녀석에게 살짝 윙크를 해주고는 교실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살짝 고개를 다시 들이밀면서 말했다.

이대리: 사랑하는 친구.
내 가방에 김밥 있으니 먹고 있으라고. 찡긋~ $\wedge \nabla \leq b$

그렇게 교실에서 나와 복도 끝에서 복도 끝까지 양팔을 벌리고

합성을 지르며 날아갔다.

그 날, 3층 복도에 달라 붙어있는 모든 유리창이 내 목소리에

크게 흔들거렸다고 한다.

이대리: 와하하하!!! 이아영이래!! ~0=^0^=0~

이아영이 소개시켜달라고 했대!! ~0=^0^=0~

이아영.

이아영 하면 우리 동네에서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몸매와 얼굴이 조각처럼 뛰어난 애다.

한동안 옆구리에 에어컨 차고 다니느라 동상에 걸릴 뻔했던 나에게

최첨단 히터인 그녀가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한 것은 나에게 있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천둥 행운이나 다름없었다.

난, 그날 이후로 그녀와의 소개팅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토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아직 한 달이란

시간이 남아있었다.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머리를 그만큼 더 기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언젠가 잘릴 수도 있는 불안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내 머리결과 머리 스타일에 뻥 간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의 머리상태를 유지하거나 업그레이드 시켜야 했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와 소개팅이란 세 글자를 머리 속에 떠올리며

머리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머리 결을 유지하기 위해 값비싼 기능성샴푸와 린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머리 결에 좋다는 크림이란 크림을 다 바르기도 했으며

친구를 꼬서 헤어 마사지까지 받기도 했다.

그리고 새벽 일찍 학교에 가기 위해 밤 9시만 되면 잠자리에 다이빙했고

학교에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절대 교실 밖으로 외출하지도 않았고

최대한 선생님들 눈에 안 띄려고 숨죽이며 살아갔다.

이러한 나의 노력 끝에 머리카락은 조금씩 길이를 늘리고 있었고

머리 결은 마치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교한 붓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자라나는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힘들게 구한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그렇게 1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나의 귀신같은 위장술에 지금까지 한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던 머리가

비극을 맞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보통 점심시간 때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식후땀(담배)을 하곤 하는데... (물론 나도 했었다. --;;)

그 날도 많은 날라리생들께서 단체로

너구리를 잡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이었다.

그 날, 난 배가 아파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자욱한 안개 속에서 킁킁거리며 뜨거운 불일을 봐야했다.

위대한 흔적을 남기고서 뿌듯한 맘으로

딱 막혀있던 연기와 함께 밖으로 퇴장하는데....

허걱~!!!

아이엠 뒤져쓰~! *(")x(")*

화장실 순찰을 돌던 학생부 선생님이랑 마주치고 만 것이었다.

그것도 학생들 패는 재미로 학교 다닌다는 미친개라는

별명의 선생님이었다.

공사장 지나가다 떨어진 삽자루 맞고서 기절한 놈처럼

재수 옴 붙은 날이었다.

두둥~!

(---+) ---> (--;)a

이미 내 몸에는 담배연기가 가득 담겨있었고 나도 학교 오면서

아침에 한 개피 피고 왔기 때문에 손가락에도 담배 냄새가

묻어있는 순간이었다.

대략 뒤틀린 상황이란 걸 예상했다.

그 어떤 변명도 먹혀들지 않을 상황이란 걸 짐작했다.

이미 난 영화 속 주인공처럼 거대한 함정에 빠져버린 거나 다름없었다.

미친개: 가자구. -_-+

이대리: -_-;;

그렇게

학생부로 연행되었다. T_T

학생부에 끌려가 무릎을 꿇은 채로...

제발.... 그 어떤 벌이라도 내가 대신해서 닳게 받을 테니

머리만 손대지 말라고 속으로 간절히 외쳐댔다.

만약, 여기서 머리마저 잘려버린다면...

소중한 희망 하나가 한순간에 사라지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2세 꽃 같은 나이에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마지막 처절한 외침을 남기고

불꽃으로 산화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처럼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리로 나가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하라!'고 외치며

이 한 몸 불태우고 말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가장 두꺼운 사회책이

뒤통수를 쿵! 갈겼다.

미친개: 야! 이새까~! 누가 학교에 와서 담배 피우래! 어!!

이대리: -_-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다시 사회 책으로 머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치는 미친개다.

미친개: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선생님들, 부모들, 다 욕먹는 거야. 알아!

이대리: -_-

미친개: 오? 이새끼 봐라. 어디서 인상을 쓰고 지랄이야!

순간, 퍼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면상이 옆으로 날아가 책장에 쿵! 부딪히고 말았다.

미친개: 오라? 이거 끝까지 인상 쓰네? 학교에서 담배 피우고도 잘했다 이거냐?

마치 샌드백을 향하는 권투선수의 주먹처럼 마구잡이로 날아드는 손바닥에

내 얼굴은 이리 채이고 저리채이고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귀싸대기를 맞으면서도 난, 어금니를 바짝 깨물고서

절대 내가 안 찢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빨리 일이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미친개가 날 번쩍 일으키더니 내 머리끄덩이를 잡고는

복도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복도에서 몽둥이로 쥐 패려고 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머리끄덩이를 잡혀 끌려나가고 있는데 그 미친개가

갑자기 내 머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미친개: 어라? 요놈 머리로 장발이네.

아주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구만!

그래! 안 그래도 머리 자르는 연습이나 해보고 싶었는데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그렇게 미친개는 가위를 들고 나왔고 난...

가위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미친개: 머리 대!

이대리: 제발 머리만 자르지 말아주세요...

미친개: 빨리 안 대!!

이대리: 선생님.. 제발요.. (ㅎ_ㅎ)

누명을 쓰고 구타를 당했던 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개기다가는 완전 영구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가엾고 불쌍한 울상을 지으며

매달려야했다.

그러나...

내 머리고뎡이를 확 잡아당긴 미친개가

순간적으로 날렵하게 가위질을 했다.

싹둑!!!

그 소름끼치는 싹둑 소리가 나고서 바로..

발 밑으로 검은 머리카락들이 우루루루 쏟아져 내렸다.

난,

발등을 수북히 덮은 그 머리카락들을 내려보며

미친 듯이 분노했다.

마치..

베지타에게 얻어맞고서

초샤이어인으로 변하는 손오공처럼..

발끝에서부터 신장, 맹장, 대장, 위장, 직장, 된장, 썸장, 고추장을 지나

머리끝까지 열이 뻗쳐 올라와 버퍼링이 완료되고 전투력이 무한대로 상승했다.

눈에 보이는게 없었다.

이런 일을 안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 비참함과 극심한 분노를

1g도 모를 것이다.

정말이지 눈앞에 쭈뼛쭈뼛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보고있으면

잘려나간 머리카락과 함께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가위를 낚아채 선생님의 대굴통을 강렬하게 찍어서

깃발을 세워놓고 싶을 정도다.

박통 때, 장발 금지령이 떨어지고 나서 파출소로 끌려가 강제로 머리를

잘려야 했던 청년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고종 때, 단발령이 떨어지고 조상의 훈이라는 머리를 강제로 잘려야

했던 백성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만약 내가 칼을 들었다면...

120토막을 냈을 것이고...

만약 내가 총을 들었다면...

연발로 놓고 따다다다!!! 갈겨서 벌집을 만들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머리를 잘리고 나면...

왜 살인사건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머리를 잘리고 반병신이 되어 학생부에서 막 출감하자....

복도에서 장난치고 있던 수많은 학생들이 날 피하며

통로를 활짝 열어주었다.

내 눈빛엔 친구들도 두려워할 만큼...

살기가 듬뿍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교실로 돌아와...

미친 듯이 후회했다.

화장실에만 안 갔어도.... π_π

화장실에서 그 놈들이 담배만 안 피웠어도..... π_π

멈추지 않는 분노가 급속도로 버퍼링되면서...

아까 전에 담배 켜던 놈들을 찾아내 반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제발 한 명만 걸려라.."를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된장...

이미 앞질러진 물인데..

후회해봐야 뭐하나...

이젠.....

나의 커다란 설레임이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한동안...

00예술 고등학교 퀸카로 알려진 아영이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었는데..

이젠 내 앞날엔 먹구름만 잔뜩 끼었다.

교실 앞으로 나가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옆머리는 쥐 파먹은 듯 뺨 뚫려 있었고..

코까지 내려오던 앞머리는 땡강 날아가 버리고

태평양처럼 넓은 이마밖에 보이질 않았다.

완전 언발란스 머리였고 코미디에 나오는 개그맨들 머리였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봤던 내 모습 중...

가장 씨박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동안 바라보고 있으니..

웃음이 나왔다.

이대리: 하하하... -_-

내가 봐도 종나 웃긴 얼굴이었다. -_-

근데...

울다가 웃었는데 똥꾸멍에 털 났을까?

머리털은 안 자라나? -_-;

한심한 색히!!

이 상황에서 이런 저질적인 유머나 발상하고 있다니..

쓰박..

그나저나 이 물골을 그녀가 인내해줄까??

나조차도 거울 까부시고 싶은데 그녀가 참아줄까?

아니지..

머리 하나만 보고 소개시켜달라고 한 건데..

이렇게 머리 잘리고 난 내 얼굴에 볼 게 뭐 있단 말이냐.

물론 꽃-_-미남이기야 하지만....

나도 머리 잘리고 나면 별 수 없다. -_-;

아무튼...

그녀와의 소개팅은 3주밖에 안 남았다.

사람 머리가 보통 한 달에 1.5cm씩 자란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아무리 길러봤자...

원상태로 돌아갈 순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그녀를 포기해야한단 말인가??

잠깐...

모자가 있었구나. -_-

아니다.

그녀는 나의 헤어스타일 하나만 보고 그랬으니..

아.. 씨바!! 왜 하필 머리냐고!!

그래!! 포기하자! 포기해!!

언젠가 좋은 여자 또 만나겠지!!

근데...

미친개 이 개자식!!

사람을 이렇게 봉인으로 만들어 놔!!!!

미친개에게 보복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그 날...

미친개 차에 몰래 접근해서 100원짜리 동전으로

길게 줄을 긋고 무늬와 그림도 그려주고

집으로 귀가했다.

그래도 성이 차질 않았다.

차는 기스 나도 돌아다닐 수 있지만..

난, 이 상태로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_-

어쨌든 머리가 영구 되고 나니까..

아무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_-

삶의 의욕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의 희망이

가워질 한번으로 훨훨 날아가버리니까..

너무나도 허무했다.

그러던 그 때....

재훈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재훈: 어라??? 머리가 이 정도였어??

이대리: ... -_-

재훈: 완전 시청률 떨어뜨리는 얼굴이네.

이대리: 상~! 불난 집에 가스 틀고 있냐! -_-

재훈: 그러길래 조심 좀 하지 그랬냐.

이대리: 똥 싸고 온 게 잘 못이란 말이나? -_-

재훈: 됐다. 그만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 대책이나 세워보자.

이대리: 다 필요 없어. 저 앞에 하루살이 보이지?? -_-

재훈: 병 속에 들어있는 하루살이?

이대리: 나, 재랑 생명을 같이 끊을 거야. -_-

재훈: 미친놈! 겨우 머리 잘렸다고 그딴 생각이나 하나?

이대리: 겨우라니.. 머리가 내 삶의 낙이자 행복이었는데.
이제 무슨 낙으로 살라구.
그리고 아영이도 이젠 물 건너갔잖아.

재훈: 아냐.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위기는 기회대! 그런 말이 있잖아.

이대리: 이 상황에선 맥가이버라 해도 기회가 없다. -_-

재훈: 잠깐.... 너 예전에 나한테 막 자랑했었지??

이대리: 뭘? -_-

재훈: 넌.. 체질적으로 남들보다 머리가 빨리 자란다며??

이대리: 그래봤자지. 3주 남았는데 얼마나 자라겠어. -_-

재훈: 만약... 너가 야한 생각까지 하게 된다면 머리는 배로 자라지 않을까??

이대리: 야한 생각?

재훈: 그래.

보통 머리 빨리 자라는 애들을 보면,
너! 야한 생각 하나? 이러잖아.

이대리: 광수 생각도 아니고 야한 생각이라.. -_-

재훈: 어때? 해볼만하지 않아?

그 땀뿜 매꾸는데 3주면 부족한 시간은 아닐걸?

이대리: ... -_-a

재훈: 뭘 가려. 너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야??

이대리: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재훈: 그래.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사실이래.

이대리:

재훈: 어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 번 해볼래?

야한 생각이라...

일말의 희망도 없는 내게..

어쩌면..

한가닥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훈이 말대로...

안 그래도 빨리 자라는 머리인데 여기다가 물까지 뿌려주면

매가패스의 속도로 자라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일단 해보는데까지는 해 보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은가.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이거랑은 안 맞는 말인가?? -.-a

아무튼....

도전해보는 거다.

이대리: 좋아!!

오늘부터 야한 생각만 하겠어!! -_-/

- 상편 끝-



리플이 필요하냐...

Written by 이대리 (2005.1.4)



자.. 이번 편은 좀 야하니..

미성년자인 분들은 '뒤로'버튼을 누르고 당장 나가

달라면 나가겠어요?

그냥 방문 꼭 걸어 잠그고 정독하세요. ^.,^



야한 생각을 하면 정말 머리가 빨리 자랄까?



야한 것을 접하거나 보면 우리 몸을 관리하는 뇌에서
자극에 반응하여 호르몬을 내게 되는데,
이때 그 호르몬 속에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 성장 촉진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자라난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하루에 얼마나 자랄까?

평균 0.5mm라고 한다.

그러나 이걸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예외인 사람들도 많다.

특히 나!!!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나, 남들보다 월등히 빨리 자라니까..

하루에 0.8mm정도라 볼 수 있겠다. -_-v

이런 내가 야한 생각까지 한다면,

하루에 1mm까지는 자라지 않을까? 므하핫!!

그렇다면..

그녀를 만나기까지 3주의 시간이 남았으니,

그 때까지 최소 2cm이상은 기를 수 있다는 수학적 결론이 나온다.

가끔 믿기 어려운 기적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잘하면 3cm도 바라볼 만 하다.

아무튼 이 정도만 자라준다면,

그래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땀뺀 숨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헤어스타일도 갖출 수가 있다.

그리고 그녀와의 소개팅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므하핫~!!!!

포기란 배추김치 썰 때나 쓰는 말이구나!

그래!! 달리는 거야~~!!

오빠~~ 달려~~~~~ 까오오~~ ^0^//

야한 생각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웠다.

아침 - 눈뜸과 동시에 책상 서랍에 있는 누드사진을 꺼내
3분 간 감상하고 1분간 묵상에 잠긴다.

학교 - 매 교시 때마다 연습장에 야설을 적으며 상상력을 키운다.

저녁 - 플레이보이 독서를 하며 지식을 키운다.

취침 전 - 하루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야설, 야사, 야동을 천장에 그려본다.

계획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을 때기도 전에 문을 잠그고서 누드사진을 감상했고

학교에선 열심히 강의하는 선생님의 눈빛을 절묘한 각도로 피하고서

연습장에 온갖 야한 시, 수필, 소설을 쓰곤 했다.

그리고 집에 귀가해서는 성인잡지책을 보면서 상상력을 풍부하게 길렀고

잠이 들기 전에는 천장에 야한 그림들을 떠올리며

꿈나라로 이어지게끔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 끝에,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눈을 감고 있을 때나..

내 머릿속은 항상 야한 생각으로 만원이었다.

그렇게 야동스러운 생활을 하다보니

아침마다 팬티가 축축해지는 건 기본이요, 독수리5형제의 출동은 필수였다.

독수리5형제의 끊임없는 노동(?)과 생산(?)으로 인해

몸이 비실비실 거리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야밤에 문밖으로 새나가는 신음소리 때문에

몸이 많이 허약해져서 그렇다며 엄마가 보약까지 지어다주셨을까.

개-_-소주.

뭐, 그 이후론 몸 다방 손 양(오른손)이 더욱 바빠졌겠지? -_-;

머칠 후, 재훈이로부터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자는 전갈이 왔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집 앞 놀이터로 나갔다.

그네를 타고 왔다갔다하고 있는 녀석의 옆자리에 궁둥이를 깔고

나도 녀석처럼 그네를 왔다갔다했다.

그러자, 녀석이 내 머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재훈: 어때? 효과 좀 있는 것 같아?

이대리: 잘하면 3주안에 김종서 될 것 같다. -_-

재훈: 그 정도야? 대단하다.

근데 너 바지가 왜이리 올라와 있어?

이대리: 섰다. -_-

재훈: 뭐?? 이 상황에서도 서?

이대리: 이제 초인의 경지에 이르렀어.

대화하면서도 야한 생각을 할 수 있다구. -_-

재훈: 우아~ 끝장난다.

인간이 직립보행 한 이후로 너 같은 놈은

처음일 걸? 원쑤다~! ^^b

이대리: 으.... >_<;

재훈: 왜 그래? 0_0a

이대리: 썼어. >_<;

재훈: 그만해라.

재미없다. -_-

이대리: 보자고 한 용건이 뭐냐. -_-;

재훈: 참, 야한 생각도 훈련을 해야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거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 맞춰봐.

이대리: 바쁘니까 널름 내봐. -_-

재훈: 뭐가 바빠?

이대리: 팬티 빨다가 나왔다. -_-

재훈: 그럼 지금 노팬티??

이대리: 응.

요즘 금방 금방 젖어서 빨래하느라 정신없어. -_-

재훈: 대단한 놈.

자... 문제 나간다.

여자의 다리는 두 개, 남자의 다리는 세 개, 침대의 다리는 네 개야.

이대리: 응. -_-

재훈: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침대 위에 같이 있으면 총 다리가 몇 개일까?

이대리: 상!

재훈: 왜? 너무 수준 높나?

이대리: 8개9개,8개9개,8개9개,8개9개.... -_-

재훈: 허거덕~~ 이걸 어떻게 맞혔어?
너 진짜 대단하다. 남들은 8개라고 말하는데.

이대리: 나 이 정도로 변했어. -_-v

재훈: 좋았어. 그럼 다음 문제 나간다!!

이대리: 넌름!

재훈: 여자 두 명을 두 글자로 줄이면?

이대리: 질투!! -_-

재훈: 우아~~~ 그럼 여자 네 명을 세 글자로 줄이면?

이대리: 젓팔개. -_-

재훈: 스승님. -_-

이대리: 아.. 재미없다.
이 정도 문제로 무슨 상상력을 기른다고. -_-

재훈: 너 진짜 무섭게 변했다.

이대리: 누드사진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_-

재훈: 좋았어. 이대로만 나간다면 김종서가 아니라
하리수 머리도 나올 것 같다.
자, 이거 캘리포니아산 신선한 LOBDO(애로비디오)
직수입한 거거든.
집에서 몰래 봐. 아마 효과가 배로 뛰어날 거야.

녀석이 내민 물건은..

뽀뽀뽀 테이프였다.

난,

순간적으로 그네를 멈추고 녀석에 면상에 대고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이대리: 김재훈. -_-

재훈: 임마.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너도 여자친구 한 명 사귀어봐야 할 거 아냐.
힘들게 구한 거 아니니까 그냥 받아.

이대리: 아!! 김재훈!!!! -_-!

목소리를 높여 부르자, 재훈이가 뒤로 주춤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훈: 어라?? 왜 눈을 부라리고 그래?

이대리: 착각하지 마! 짜샤!

넌, 티비 앞에 발가벗고 앉아서 이런 저질적인 장면이나 보면서
코피를 줄줄 흘리고 침을 활활 쏟아내고 새끼들을 바닥에 짹짹 뿌려대는
수준 낮은 인간일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야동스러운 동영상이나 보면서 핸드 인 핸드 하는 그런 본태가
아니니.. 널로 가져가.
지금의 내 상상력만으로도 충분해. 그까짓 거 안 봐도 된다구!
벌써부터 나의 순결과 여자의 신비스러움을 잃고 싶지 않아! -_-

재훈: 애가 야한 생각만 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좋아. 후회 안 하는 거지?

이대리: 쓰박! 너를 알게 된 게,
해변가에서 맨 발로 똥 밟았을 때보다
더 불결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구나.
우리 그냥 이쯤에서 안녕이라고~ 말하자. -_-

재훈: 정말 이럴 거야?

이대리: 앞으로 뽀뽀 치지 마라. -_-

그렇게 녀석에게 냉정한 말을 남긴 채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등뒤에서 재훈이가 크게 소리쳤다.

재훈: 야! 근데 테이프는 왜 가져가~!

-_-!

이대리: **내일** 줄게. ^.,^/

재훈: -_-

이대리: 넌, 정말 의리 있는 놈이야.

내가 그 동안 봐왔던 남자들 중에 가장 멋져. 잇항~ (*^.,^*)/

재훈: 빌려먹을 녀. -_-

그렇게 녀석에게 빌려온 테이프는

1년 12개월 365일 8760시간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처럼 비디오 기계 안에서

내내 살아야 했고, 찌하고 야한 화면에 뜨겁게

닿아오른 난, 자손 번식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서

상영시간 내내 충혈 된 눈과 가빠진 호흡으로

부리나케 화장실로 달리고 달려야 했다. <^>▽<^>

그리고 나서..

파다다다다!!!!!! ㄹ(` ㄴ ´) ㄴ

오른 손이...

그만 할게. -_-

그렇게 화장실을 드나드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내 몸은 서서히 병 들어가는 듯 했다.

학교에서 계속 졸음이 쏟아져 내렸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으며

집중력, 정신력이 떨어지고

얼굴에 노화현상도 일어나는 듯 했다.

솔직히..

야한 생각만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는 건

똥똥이를 가진 한 남자로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에헴. _ _

아무튼...

학교에서 힘없이 비실비실 거리고 있자,

친구들이 물었다.

친구: 이대리, 너 왜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냐?

오늘 그 날이야?

이대리: 친구들아. 뭐 하나만 묻자. @@

친구: 뭐??

이대리: 너희들 하루에 DDR 다섯 번까지 해본 적 있어? @@

친구: 머?? 미쳤냐? 연속으로 세 번만 해도 맨땅에 헤딩할 것 같은데.

이대리: 그렇지? 괴물이 아닌 이상 하루에 다섯 번을 하고도

멀쩡할 수 없는 거지? (x-x;) (휘청.. 휘청...)

그렇다.

몸 안에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서식을 하고 있어야 힘도 넘치고

컨디션도 좋을텐데..

새끼들이 잉태되자마자 전부 하수구로 변기로 쓰레기통으로

안락사 시켜버리니 내 몸이 성할 리가 없었다. -_-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다.

육체에 이어 정신세계도 점점...

병들어 가고 있었다.

몸이 허약해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간호사: 바지 벗고 올라가세요. ^^

이대리: 쭈룩... - ㄱ

어느 빌딩에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안내원: 올라타세요. ^^

이대리: 찰찰찰... ㄴ ㄱ

그녀를 만나기 위한 길은

정말 멀고 험난했다.

그러나 굳게 다잡혔다.

그녀만 만날 수 있다면,

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아.. 아.... 아.... 아영아...

기다려...

반드시 김종서 돼서 나갈게. @@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난 마약에 중독 된 사람처럼

뽀뽀뽀 테이프에 집착을 하게 되었다.

마약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마약중독자처럼 나도

LOBDO를 하루라도 못 보고는 생명을 이어나가기가 힘들었다.

이대리: 재훈아.. 테.이.프... 테이프가 필요해... @@

재훈: 임마, 너 벌써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별로 다 봤잖아.

이대리: 허.. 허... 남아메리카 원주민끼는 아직 못 봤어.
제발.. 테이프 좀... 허.. 허... @@

재훈: 그럼 약속해. 오른손은 잠궤 두겠다고.
반드시 상상만 하겠다고.

이대리: 허.. 허... 알.. 앓.. 어...

재훈: 에이씨. 따라와.

이대리: 허.. 허... ㄴ(─█─)ㄴ

재훈: 대리야..

이대리: 응?? -_-

재훈: 나야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니까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지만..
너 이렇게 나가도 독자들이 다 이해해주는 거냐?

이대리: 몰라. 복구 불가능 상태로 이미지 다운될 것 같아.
너랑 나랑 대역을 바꿔서 시작했어야 하는 건데...
종나 후회 돼. 너만 멋지게 나오잖아. -_-;

재훈: 짜식. 이 글로 나 뜨면 내가 나중에 한 톱 쓸게.
기왕 망가진 거 망가지는 데까지 망가져 보라고. (-_-)\(^_^)

이대리: 그래.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 -_-

그렇게 재훈이네 집으로 들어가 뽀뽀뽀 테왁을 감상하게 되었다.

섹시하고 야시하고 빠리리한 꽃뱀들이 나와서 혀를 낼름거리는데

심장이 팔짝 팔짝 뛰다 못 해 3회전 연속 백덤블링을 해댔다.

내 오른 손은 부풀어오르는 뽕뽕이를 짹 쥐고 있었지만

점점 부피와 면적을 늘리는 녀석의 근육을 이겨내지 못하고

손바닥의 면적이 딸리기 시작했다.

이대리: 으.... >_<

나 이러다가 독수리5형제 출동시킬 것 같아.

재훈아.. 빨리 내 손을 묶어 줘.

재훈: 손을 왜 묶어!!

이대리: 이성을 잃으면 짐승으로 변할지 몰라!

빨리!! 으.... {}_{}>

재훈: 알았어!! 기다려!!

녀석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금새 빨래줄을 들고 오더니

내 두 손을 아주 강 사정없이 꾹꾹 묶어버렸다.

그렇게 묶어버린 손은 피가 멈춰 빨강게 불타고 있었고 심지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곧 TV 화면에선,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타더니 커다란 신음을 내 뱉으며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말달리는 소리에 비례하여..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처럼 그 놈의 크기는 점점 길어져만 갔고

바지가 터질 것만 같은 압박에 뾰뾰 묶인 두 팔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괴성을 질러야 했다.

이대리: 으아아아... <^>▽<)<^

재훈: 임마. 진정해.
그냥 생각만 하라구.

이대리: 으아악!! 나 미칠 것 같아!!! <^>▽<)<^

두 손을 묶고 성인비디오를 보는 것은

천상의 고문이었다.

이해 안 가는 여성들이여....

아름다운 옷 천 벌이 눈앞에 있는데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

바로 그 기분이야. -_-

결국 인간의 본능적 쾌락 욕구를 견뎌내지 못하고

꽂꽂 묶인 손을 뒤흔들며 화장실로 부랴부랴 달려갔다.

이대리: 으악! 못 참겠다!!! 어응~~!!! >_<

재훈: 어디 가!

이대리: 으으... 기다려!!! ㄴ_>_<_

이 후에 있던 내용은 잠깐 편집할게. -_-;

뭐? 계속하라구??? 막 느끼려던 참이었다구??

첫, 내 이미지를 완전 갈기갈기 찢어서 대걸레로 만들려고 그래??

다들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싶어하겠지만....

더 이상 망가질 순 없어. 미안해. -_-;;

화장실에서 나오자 재훈이가 놀라며 물었다.

재훈: 너... 너... 그 손... 그 손 어떻게 풀었어.

이대리: 몰라. 나도 모르는 엄청난 괴력이 줄을 끊어버렸어. -_-

재훈: 바야바 같은 놈. -_-
근데, 어디다가 뿌리고 온 거야.

이대리: 세면대에.. -_-;

재훈: 이런.. **개 플러스 새!** 세면대에 니 새끼들을 흘려?
적어도 몇천 만 마리는 될 텐데...
앞으로 거기서 어떻게 세수를 하라고!!

이대리: 미안해. 자크 열자마자 튀어나왔어. -_-

재훈: 임마, 생각만 하라구 했잖아! 생각만!!!

이대리: 내가 생각하는 갈대냐? 생각만 하고 있게!
그리고 넌 불알도 없냐?

재훈: 에이씨. 못해먹겠네.

이대리: 어디 가?

재훈: 나도 꼴렸어!! (x-x;)

이대리: 빨랑 와~! ^.,^

이 날 이후로도....

녀석의 집을 매일같이 방문해서 함께 LOBDO를 감상했고

교대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누가 더 큰지 내기도 했다. -_-;

이렇게 매일같이 야한 생각을 하고 야한 비디오를 보고

야한 짓(?)을 하다보니 내 머리는 정말로 무력무력

자라나는 듯 했다.

나만의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효과가 뛰어난 것 같았다.

머리에 손을 대고 있으면 불쑥불쑥 뭔가가 튀어 올라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과장이 심했나? -_-a

아무튼...

그렇게 LOBDO를 매일 한 편씩 감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비디오들이 식상하게

느껴졌는지 더 이상 자극이 되질 않았고 중심지에 서식하는

그 놈도 별 반응이 없게 되었다.

뭔가 새롭고 쇼킹한 경험이 필요하던 찰나였다.

그러던 중..

재훈이가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

재훈: 오늘 현장에 나가서 견학이나 하고 올까?

이대리: 현장이라고?? 어디? 0_0a

재훈: 카섹스가 이루어지는 곳.

이대리: 그렇다면... -_-

재훈: 낙성대 공원.

레슬링 야간 경기가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을 걸?

이대리: 너 일부러 내 머리 핑계대면서..

이런 거 즐기는 거 아냐??

재훈: 임마.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냐.

그래서 가기 싫어??

이대리: 친구. 앞장서라고. ^0^//

그렇게 재훈이와 함께...

동네에 있는 낙성대 공원엘 가게 되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달밤에 체조하는 놈들 몇 명과 음침한 곳에

주차되어있는 차들이 보였다.

이대리: 와~ 정말 음침한 곳이네? ^0^

재훈: 쏠! 조용하고 자세 낮춰!

순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휘몰아쳤고...

재훈이와 함께 몸을 바짝 숙여댔다.

재훈: 저기 흔들리는 차 보이지? (+-_-)-^ㄷ

이대리: 어. 보여.

지금 저 안에서 레슬링이 생중계 되고 있는 거야? (*-)

재훈: 짜식, 벌써부터 침흘리기는.

현장으로 접근해서 밀착취재를 해보자고. 고고고. s(-_-)/

우린 최대한 몸을 숙이고서 쥐새끼처럼 짹새게 땅바닥을 기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차에 몸을 바짝 기댄 채로 자세를 낮췄다.

그러자, 차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졌다.

우린, 한 명씩 교대로 일어나서 생라이프 아동을 감상하기로 했고...

친구가 먼저 잼싸게 일어났다 앉았다.

이대리: 어때? 봤어?? 0_0

재훈: 이야~ 죽인다.

너, 저 장면 보면 머리 10cm는 자랄 거다.

이대리: 그 정도야? 0_0

참을 수 없는 두근거림에....

잼싸게 일어나 창문으로 그들을 몰래 엿보았다.

뜨아악~!!!! (@)_(@)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이

남자 위에 올라타 방방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완전, 원초적본능 무식제판 같은 영상이었다.

코피가... 코피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 ㅏ

재훈: 어때? 죽이지?

이대리: 여기다 텐트 치고 싶다. - ㅏ

우린 교대로 계속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고...

(_) (0_0) -> (_) (0_0) -> (_) (0_0) -> (_) (0_0)

그렇게 수십 차례 반복하다가

내가 일어서던 타임에 그만....

(`) ----> <----- (`) 뜨아....

바닥에 깔려있는 여자와 눈이 일직선으로 마주치고 말았다.

재훈: 뭐해? 시간 지났어. 빨랑 앉아.

이대리: 재훈아... (￣▽￣;;)

재훈: 왜 임마.

이대리: 종나게 튀어!! ㄴ(〉_〈;)ㄱ

재훈: 제기랄! 걸린 거야?? ㄴ(〉_〈;)ㄱ

그 날 우린...

능숙한 도움닫기 실력으로..

칼루이스의 신기록을 깨고 100m를 8초에 돌파했다.

아무튼 이렇게...

누드잡지 관람부터 시작해서 야설 창작, 사고력 키우기 훈련,

에로비디오 감상, 독수리5형제 출동, 현장 견학 등..

수많은 테크닉과 노하우와 훈련을 바탕으로..

내 머리는 단기간에 눈에 뵈 정도로 성큼성큼 자라났고

이제는 젤이나 무스로 스타일을 낼 수도 있게 되었다.

비록 태극기처럼 바람에 펄럭이는 머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분위기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수가 있게되었다.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상콤한 헤어스타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모세의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되찾기까지 그 동안의 과정이 좀 빠리리하긴 했지만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성과였다. 흐흐~! (*-~*)

이제...

대망의 소개팅 날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3일만 버티면 아름다운 그녀와 아리따운 데이트를 즐길 수가 있게 된다.

그 날이 너무나 기다려졌다.

내 생일보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보다도! 대학교를 입학하는 날 보다도!

두근거리는 설레임에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때가 시험기간이었지만...

공부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오로지....

'시간아.. 빨리 가라'

라고 주문만 외울 뿐이었다.

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
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
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
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시간아빨리가라

그런데!!!!!!

금같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내게 신이 노하셨던 걸까.

그녀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2일 앞으로 남겨두고 있던 날이었다.

뚜둥~~~

-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 여러분...

이 글은 어디까지나 유머 글이고

야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나중에 임종 때

야한 얘기 막 해서 가족들 많이 당황스러워 한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금씩만 하세요. ^^;

리플이 필요하나...

Written by 이대리 (2005.1.19)

시험시간이었다.

한동안 머릿속에 그녀만 떠올리며

머리 기르는데만 온 열정을 올인시키느라

시험공부를 벼룩에 간만큼도 하지 못했던 난..

밤새도록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만든 컨닝페이퍼를

이불 밑에 전기장판 깔아두듯이,

시험지 밑에 살짝 깔아두고는

은근슬쩍 엿 보면서 답을 눈부신 속도로

적어나가고 있었다. -_-;

좀 비겁한 방법이긴 했지만

이번 성적에서 순위 권 30위로 진입하는 게 내 목표였고

게다가 주관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문시험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참고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한문이었다.

한문 한 자 외우는 것이 영어단어 10개 외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었다.

아마.. 내가 천자문을 다 외우려면 천 년은 걸릴걸?? -_-;

아무튼..

항상 여백의 미를 자랑하던 한문 시험지 주관식 란을

이번 시험에서는 빼곡이 채워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나의 비양심적인 범죄행각은 그만 눈치 6단과 시력 2.0을 자랑하는

수학 선생님 레이더망에 완벽하게 포착되고 말았다.

방구 끼다가 궁딩이에 불붙은 놈처럼

재수 음 붙은 날이었다.

두둥~!

(--+)-->(--;)a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내 앞까지 접근해온 수학선생님이

날렵한 손놀림으로 시험지를 번쩍 들어올리자

깨알같은 한문들이 적힌 종이가 대동여지도 펼쳐지듯 짹~ 펼쳐졌다.

시험지와 같은 색으로 디자인한 최첨단 특수 칼라 용지였는데

그만 확인 사살되고 만 것이다. -_-;

위기모면능력 기사자격증 1급까지 가지고 있는 나였지만..

이렇게 증거물이 발각되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저 '똥됐다'라고 속으로 울부짖는 수밖에.

내 앞에서 나를 철벽방어하고 있는 수학선생님 뒤로는

"아싸~! 지금이 기회다!'라는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남의 시험지를 마음껏 빨기고 있는

동무들의 모습이 보였다.

난 그들의 희생자가 되었고 그들은 나 때문에 꿈과 이상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쓰박~!!!

수학선생님: 가자구. -_-+

이대리: -_-;;

그렇게 또다시..

학생부로 연행되고 말았다. T_T

학생부 앞에서 '발 창문에 걸치고 주먹 쥐고 옆드려뻗쳐' 자세로

오고가는 선생님들에게 꿀밤을 맞고 욕을 먹으며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옆드려 있는 지 30분이 지나면서 온 몸에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네킹처럼 벌을 받아야 했다.

바닥엔 땀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고

얼굴은 피가 몰려 빨갛게 닳아 올라있음을

느낌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한문시험 뺑점처리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벌에 충실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든 책이 내 뒤통수

3:2 지점을 폭격하는 것이었다.

퍽!

친근감이 있는 파워에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다름 아닌..

미친-_-개였다.

쓰박!!!!

조졌다!!!!

미친개: 어이~ 사고맨!
이번엔 또 무슨 사고 치셨나??

이대리: -_-;

묵묵히 고개를 꼭 숙이고 있자

이번엔 출석부로 나의 대굴통을 강하게

더블 클릭하는 미친개다.

팍! 팍!

고개가 크게 흔들리면서 불을 타고 흐르던 땀방울들이

복도 여기저기로 튕겨나갔다.

미친개: 야 이 새끼야! 입술에 자크 달았어!
선생님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냐!

이대라: -_-;;

계속해서 조용히 고개를 바닥으로 깔고 있자

미친개가 내 머리고양이를 잡아 올렸다.

미친개: 어라? 이 자식 봐라?
얼마 전에 머리 잘렸던 놈이 아주 멀쩡하네??
어디 가서 머리 심고 왔냐?

갑자기 화제가 머리로 뒤바뀌자 불안한 마음이 분수처럼 솟구치기 시작했다.

미친개의 성격상 한 번 머리 얘기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가위를 잡는

무서운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매도 맞아본 놈이 안다고 미친개에게 한 번 머리를 잘렸던지라

그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순간,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나돌았고 미친개는 내 머리고양이를

회전목마처럼 빙빙 돌려가며 두발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있는데 미친개의 말 한마디에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침은 밖으로 크게 튀어나오고 말았다.

미친개: 김선생! 가위 좀 던져 봐!

이대리: 쿠에에엑! (0 ■ 0)

상황이 심각해지자..

잼싸게 발을 내려 무릎을 꿇고 두 손 두 발 싹싹 빌어댔다.

이대리: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발 머리만 자르지 말아주세요. T_T

그러나 미친개는 외투를 벗으며 이발사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난, 더욱더 손바닥에 마찰을 일으키며 싹싹 빌어야만 했다.

이대리: 선생님 제발요. 이제 방학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T_T

미친개: 새끼! 그만 빌어! 닭똥 냄새 나!

이대리: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교회에서 신도들이 주님을 열창하며 울부짖듯이

선생님을 열창하며 울부짖어 보기도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표정으로 매달려보기도 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미친개는 결국 가위를 오므리며..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싹둑~!!

싹둑~! 하는 소리와 함께

나에게 살이자 피인 머리카락이 봄날 벚꽃 날리듯

공중에서 흩날리더니 복도바닥 위로 사뿐, 떨어지고 말았다.

쿠쵡~!! -_-!!

복도 바닥 위에 잔인하게 깔려져 있는

나의 머리카락 시체들을 보자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없었다.

난,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미친개를

선생으로 볼 수 없었다.

별명 그대로 짐승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이대라: 아~ 이 미친개야! 너가 사람이야? 너가 선생이야??

왜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귀한 몸에 함부로 가위질을 하고 지랄이야!!

당신 자식도 내가 가서 머리 잘라버리면 좋아!!

왜 남의 행복에 불을 지르냐고!

이런 게 교육이야?? 교육이냐고!!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_-

그러나 퇴학이 두렵긴 두려웠나보다.

그저 용암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주먹을 빠득 쥐어야만 했다.

미친개는 그제야 직성이 풀렸는지 쓴웃음을 한번 짓고는 사라졌고

난 텅 빈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분을 삭혀야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신발 끈으로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참아야 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 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더 많기에....

차가운 복도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한 시간 정도 보냈을까..

시험감독이었던 수학선생님이 오시더니 한문 과목 뺑점이라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처벌을 내려주었다.

안 그래도 머리 잘려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날 두 번 죽여주셨다.

완전 엇친 데 덮친 격이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길 가다가 었어졌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죽도록 짓밟힌 경우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하루에 날벼락을 두 번씩이나 내려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실수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한 것일까??

그렇다면 **뒤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안 될까... T_T

반 붕신 된 몰골에 사형선고까지 받고서 완전 최악의 상태로

학생부에서 출감되었다. -_-

모두 하교해버린 썰렁해진 복도를 힘없이 홀로 걸었다.

희망도 낙도 사라진 나에게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흐릿흐릿했다.

이제 모든 것은 끝이었다.

나의 성적도....

나의 사랑도....

차라리

뺨점처리만 됐어도 막막하진 않았을 거다.

성적이야 뭐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는 성적이니까. -_-;

그런데 머리는...

나의 연애기상도나 다름없고 나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됐다.

이제 나의 연애기상도에는 먹구름이 끼면서

화사함에서 매우 흐림으로 바뀌었다.

아니.. 장마기간으로 돌입했다.

당분간 내 인생에..

태양이 뜰 일은 없을 것이다. -_-;;

아영아...

우리의 인연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인가 보구나.

부디...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제기랄..

생각할수록 분하네!! -_-

어떻게 기른 머리인데..

내가 그 머리 기르려고 오른 손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오른 손이 움직인 만큼 글을 썼더라면

천자문을 천 번씩은 썼을 거고..

그 오른 손이 움직인 만큼 일을 했더라면...

인형 눈깔 300만 개는 붙였을 노동 양인데. -_-

독수리5형제 막노동의 대가가 이런 비극이라니...

너무나 참혹하다. -_-

독수리 5형제여..

미안하다 사랑한다.

앞으로 지구만 지켜라. T_T

교문으로 나가는 길에 장식되어 있는 거울 앞에 멈춰 섰다.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얼굴을 한 대 갈겨주고 싶을 정도로

바보같이 생긴 놈이 날 갈구하고 있다.

나다. -_-;

이번에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실성한 듯이 웃어야만 했다.

이대리: 푸하하하하.....

앞머리가 없구나. 웃기다. 웃겨. ^.^

거울을 보며 한가지 다짐했다.

집에 가는 동안 내 얼굴보고 웃는 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_-!

수위아저씨의 야릇한 눈길을 받으며 쓸쓸히 교문을 빠져 나왔다.

전봇대에 몸을 기댄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마치 교도소에서 출감하는 죄수를 기다리듯이 손에 두부를 들고 있었다.

재훈: 두부 먹어라.

이대리: 고맙다. -_-

재훈: 괜찮냐?

이대리: 꾸역.. 꾸역.... (-■-)

이게 괜찮은 거냐?

재훈: 불쌍한 놈. 넌 왜 맨 날 미친개한테만 물리냐?

이대리: 나한테서 개빠다귀 냄새가 나나보지.

재훈: 그나저나 이 찌그러진 두발 상태로 어떻게 소개팅 나가냐?

이대리: 소개팅은 무슨 얼어뒤질 소개팅.

이참에 절에나 들어 갈란다. -_-

재훈: 그렇다고 포기하진 마.

이대로 포기하기엔 그 동안의 노력이 너무 아깝잖아.

이대리: 노력? 하긴.. 내가 그 열성을 가지고 공부했더라면

전 과목 만점이었겠지?

재훈: 당연하지. 손에 묶인 밧줄도 끊어버릴 집념과 투지였는데.

이대리: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결국 이 꼬라지는 모냐?

재훈: 그러게. 괜히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친구로서

가슴이 아프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해서 너 공부하는 거

방해하고 결국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이대리: 휴~~ 아니다. 이번에 좋은 교훈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련다.

재훈: 무슨 교훈?

이대리: 역시 성공하기 위해선 여자를 멀리해야 겠다고.
여자의 유혹에 말려들면 이 꼴 나는 거라고.
된장. -_-

재훈: 친구야.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_=;;

이대리: 아냐. 이제 내 본 모습을 찾았어.
나 이제부터 머리 밀고 공부나 할래.
이것이 신의 계시일 수도 있잖아.
신이 정해주신 그 운명에 따르겠어.
그러니 나한테 미안해하지마. -_-

재훈: 그래도... (-_\\)

이대리: 미안해하지 말래두.
사실, 지금 여자 만나면 내 인생 조질 것 같아.
일단 학업에 충실하려고.
여자는 나중에 대학가서 만나도 늦지 않거든. -_-

재훈: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우리 엄마가 하던 말을... (-_ㄷ)

이대리: 짜식. 연능 독서실 가서 널 시험 볼 과목이나 공부해.
괜히 나 때문에 기분 잡쳐서 너까지 시험 망치지 말구.
참. 국,영,수 중심으로 하라구.

재훈: 대리야..... (ㄏㅏㅓㅓㅓ)

이대리: 그 동안 고마웠어.
너 때문에 잠시동안 행복했었어. (T_T)\(-_-)

그렇게 나에게 미안해하는 재훈의 어깨를 한 번 쓰다듬어주고는

등을 돌려 아무도 걸어오지 않고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쓸쓸한 골목길을 외롭게 걸었다.

그렇게 50m 정도 갔을까.

녀석이 등뒤에서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재훈: 대리아~~~~

등을 반쯤 돌려 재훈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손바닥만큼 작아져 있는 재훈이었다.

재훈: 아직 희망이 있어~!!!!!!

두 손을 입에 모아 소리치는 재훈의 모습을 보니

쓸쓸한 웃음이 베어 나왔다.

다시 등을 돌려 한 발자국을 내딛는데

녀석이 한 옥타브 올려서 크게 외쳤다.

재훈: 이대에 가면~~~ 머리 붙여주는 곳이 있어~~~~!

녀석의 말을 못 들은 척 하고는 다시 한 걸음 내 댔었다.

녀석이 이번에는 소프라노 톤으로 크게 외쳤다.

재훈: 요즘 그게 유행이야~~~~~!

계속해서 녀석의 말을 못 들은 척 무거운 발을 한 걸음씩 옮기고 있는데...

녀석이 마지막으로 크게 외쳤다.

재훈: 너도 거기서 붙이면 돼~~~~~!

순간, 참을 수 없는 이름 모를 감정에 폭발쳐

쩍싸게 뒤로 돌아 녀석에게로 힘껏 달려갔다.

E=E=E= ㄱ(ㄴ▽ㄴ)ㄴ

그리고 녀석의 목살을 비틀어 잡고 놈을 번쩍 들어올렸다.

이대리: 너 왜 이래! (/ * ` ㄴ ') /

도대체 날 언제까지 유혹하려 그러는 거야!

여기서 날 더 망가뜨려야 속이 풀리겠어??

재훈: 썩썩....왜.... 왜.. 그..래..

이대리: 방금 말했지! 이제 깨끗이 잊고 공부하겠다고!

근데 왜 자꾸 날 방해 하냐고! 왜!!

친구가 바른 길로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아파??

재훈: 썩썩.. 이것 좀 놓고... $\geq \blacksquare \leq$

이대리: 얼마야? 얼마면 되는데!! $\ni (` ㄴ ') /$

재훈: 썩썩.. 한 뭉탱이에 5천원씩. $\geq \blacksquare \leq$

이대리: 어디야! 어디냐구!! $\ni (` ㄴ ') /$

재훈: 이대에 있어. 썩썩. $\geq \blacksquare \leq$

이대리: 쪼옥~! ($^{\blacksquare} \wedge^*$)

당장 가자구. ($=^{\wedge} \nabla^{\wedge}$) /

재훈: —"—

이대리: 뭐해? 안 오고. 내가 업어줄까?

자, 올라타라구~ ($\cup^{\wedge} \exists^{\wedge}$) $\cup$

그 날, 우린 이대입구(이화여대입구)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엔 재훈이 말대로 머리를 붙여주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실리콘에 열을 가해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접착시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

1주일 용돈을 달달 털어 앞머리에만 5만원 어치를 붙이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니 좀 전에 비취던 바보 같은 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웬 레오나르도 디카트리오가 날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돌 날아오려나?? -_-;

이마를 살짝 가리며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앞머리가

전체적인 기장과는 다르게 유독 길어 언밸런스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 보였고 또 발랄하며 산뜻한 이미지를 풍겨주었다.

아.. 드디어 멋진 내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아.. 상큼한 머릿결.

아.. 럭셔리한 헤어스타일.

거울에 비친 멋진 내 모습을 보고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말았다. @@

어디서 돌 줍는 소리가 들리네? -_-;;

아무튼..

그렇게 미용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고

새까맣게 먹구름이 켜던 연애기상도는 아주 맑음으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야 말았다.

으하하하!!

그러나 모든 게 좋기만 한 건 아니었다.

진짜 머리와 가짜 머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실리콘이 굳어버리니까

꼭 유리테이프로 머리를 둘둘 감아둔 것처럼 느낌이 이상하고 무거웠으며

손으로 만지면 울퉁불퉁한 게 걸리적거렸다.

그래서 샴푸할 때 머리를 조심히 해서 감아야 하고

빗질을 할 때도 조심해서 손질을 해야 했다.

자칫하다간 머리털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에.. -_-;

하지만 이게 어디란 말인가.

영구에서 디카트리오로 변했는데. 믹스~! $\wedge \nabla \leq b$

드디어....

짜증나던 시험기간이 끝나고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온 그녀와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녀와 만나기로 한 커피숍에서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자..

재훈이가 아영이를 데리고 커피숍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을 사진 속으로만 봐오다가 현실에서 그녀와

맞부딪히니 너무나도 황홀했다.

그녀의 이름을 모르면 동사무소에서 등본도 안 떼 준다는 말이

헛소문이 아닐 정도로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였고 학생답지 않은 복장에

세련미가 넘쳐 났다.

꼭 연예인이랑 같이 있는 기분이었다.

재훈: 자.. 난 이제 임무에 충실했으니까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라구. ^^

재훈이가 서로에게 인사를 시켜준 다음 커피숍에서 퇴장을 하려했다.

사실..

아영이와 단 둘이 있는 것이 좋긴 했지만..

오늘따라 재훈이를 붙잡고 싶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대사를 한 마디도 못하는 엑스트라가 될 것만 같았다.

이대리: 재.. 재훈아.....

재훈이를 붙잡아보았지만...

녀석은 가벼운 미소를 남긴 채 커피숍에서 널름 사라져버렸다. --;;

테이블을 가운데 끼고 마주보고 있는 그녀와 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라 불리울 정도로

말이 많은 나지만....

그녀 앞에선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입 닥치고 있어야 했다. --;;

어린이처럼 수줍어하며 얼굴이 빨개져 있는 나를 뚱뚱히 바라보며

그녀가 재밌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이아영: 풋.... ^^

뭔가 한 마디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중압감에..

스피킹을 시도해보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서 진동모드가 되어버렸다.

이대리: 바...밥...먹..었..어...? --;

이아영: 할 말이 그렇게 없니??

이대리: 그.. 그럼... 밥.. 먹..을.. 거... 야? --;;

이아영: 푸훗~! 보기보다 수줍음이 많네.
귀엽다. 귀여워. ^^

이대리: 부끄부끄... *^^*

그녀는 생각보다 매우 털털했다.

그녀의 털털한 성격 때문인지..

그녀가 편안하게 느껴졌고 금새 대화도 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아영: 근데.. 너희 학교 머리 단속 심하다던데
넌 왜 그렇게 머리가 길어??

이대리: 아.. 그건 말이지. ^^a

이아영: 응.

이대리: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전교 5등 안에 드는 애들에게만
특별히 머리를 기르게 해주거든. 하하.. ^^

어쩔 수 없었다.

위급하면 부처도 거짓말한다. -_-;;

이아영: 에이.. 공부 못할 것 같은데??

이대리: 푸에에에~~~~ 0_0

마시던 사이다를 내 뺨을 뺨했다.

어쩔 저렇게 예리할까... -_-;;

이아영: 푸훗. 농담이야.

근데 사진에서 보던 스타일이랑은 많이 틀리네?

이대리: 아.. 난 항상 변화를 추구하거든. ^^

이아영: 그래? 앞머리를 내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넘기는 게 더 이쁠 것 같은데....

이대리: 아.. 오늘 침으로 내려봤는데 역시 이상하구나.
앞으로 절대 안 내려야지. 하하... ^^

이아영: 이리 와봐.
내가 빗어줄게.

그러면서 핸드백에서 빗을 꺼내는 그녀다.

이대리: 아.. 아냐. 괜찮아. ^^;
난, 남이 내 머리 만지면 기분이 이상해지거든.

이아영: 아이~ 한 번만 넘겨보자.
더 멋질 것 같단 말야.

필사적으로 빗을 들고 접근하는 그녀다.

이대리: 제발 이려지 마.
다음에 만날 땐 꼭 넘기고 나올게. ^^;

이아영: 흥. 나 빠졌어.

이대리: 아잉~~~ 왜그래.. o(^^o

이아영: 풋. 그래 알았어. 한 번만 봐주지.

이대리: 헤헤.. (^■^*)

휴~ 듯 될 뻔했네. -_-;;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활기를 띠어갔고

그녀는 설문조사라도 나온 사람처럼

나에게 쉴 틈 없이 질문공세를 펼쳐댔다.

이아영: 너 혈액형이 모야?

찔끔...

여자들은 왜 혈액형을 물어볼까... oo——oo

이대리: 응? 나 A형. ^^

사실.. B형이다. -_-;

이아영: 그래?

난 B형이 제일 좋던데.

남들은 B형이 다혈질이라 싫어하지만

난 B형이랑 성격이 잘 맞더라고.

아쉽네.. B형일 거라 생각했는데...

분하다. -_-

이아영: 좋아하는 운동은 뭐야?

축구라고 말하고 싶었다.

근데... 여자들은 축구얘기 싫어한다며?

이대리: 야구 좋아해. ^^

이아영: 그래??

난 야구보다 축구가 재밌던데.
박력 있고 힘차고 패기 있고 남자답잖아.
근데 보통 남자들은 축구를 가장 좋아하지 않나??

제길슨. -_-;

이번에 물어보면 이실직고하자.

이아영: 좋아하는 계절은?

이대리: 겨울. ^^

이아영: 그래??
난 추운 게 너무 싫던데..
그래서 한겨울엔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더라.

아... 죽고싶다. -_-;;

어떻게 객관식문제 찍을 때랑 똑같이 돌아가냐.

이 확률에 저주받은 색히!! -_-

이아영: 우린 인연이 아닌가봐.
공통된 게 하나도 없네. 파~

이대리: 몇 개만 더 물어봐 주면 안 될까? ^^;;

이아영: 아냐. 그런 게 뭐 중요하나.
서로 닮아 가면 되는 거지.
그래도 너 머리결 하나만큼은 정말 맘에 든다.
그거 아니었으면 벌써 일어났을걸?

이대리: 하하.. 그래. ^^

몸 안에서 식은땀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만약, 이 머리로 내 머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귀싸대기 3연타로 날아오겠지?? -_-;;

커피숍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시간이 되자 함께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U☆U\(^) 짬~ 원샷!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우린 더욱 더 친해지게 되었고

그녀도 내가 맘에 들었는지

내가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포근한 미소로 반겨주고

손뼉을 치며 호응도 해 주었다.

이렇게 그녀와 마주보며 웃고 떠들 수 있다는 현실이

마냥 행복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비록 머리로 잘리고 한문도 뺑점 처리되었지만

그 정도의 마이너스쯤이야 플러스이자 곱하기인 그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 행복에 금이 가지 않고 영원히 둥글게둥글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그녀와의 데이트를 맘껏 즐기다가

늦은밤 그녀의 집 앞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다.

그녀의 집 앞 골목길에 있는 어느 가로등 앞에서 그녀가 걸음을 멈추더니

가로등 조명을 받으며 활짝 미소를 지었다.

이아영: 오늘 즐거웠어.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되어 너무 반갑고 바래다 줘서 너무 고마워.

이대리: 하하.. 뭘..

남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걸. ^^a

쑥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그녀가 핸드백에서 펜과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바쁘게 적더니 종이를 내밀었다.

이아영: 내 뽀뽀번호야

아무 때나 연락해.

이대리: 아... 하하. ^^a

그녀가 준 종이쪼가리를 받고서 부끄럽다는 듯이

헤죽헤죽 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내 얼굴을 뽀뽀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대리: 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

이아영: 대리야..

이대리: 으.. 응??? (^ ^)

이아영: 잠깐만 눈 감아볼래?

이대리: 왜애? ^0^a

이아영: 그냥. 뭐 좀 해보고 싶은게 있어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오호라~~

이것은.. 대략 굿나잇 키스 분위기???

이거 진도가 넘 빠른 거 아냐?? ^0^

이대리: 설마 몰래 도망가려는 건 아니겠지?? ^^;

이아영: 걱정 마.

흐흫.. 걱정 안 하고 있어. ^0^

이대리: 자.. 나 눈감았어. ()

이아영: 그 전에 한가지만 약속해 줘.

이대리: 뭐?? ()

이아영: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화내기 없기.

흐흫... 당근이쥬.

화 절대 안 낼 테니까.. 맘껏 하라구. ^0^

이대라: 음... 좋아. 원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번만
특별히 봐주겠어. ()

이아영: 그래. 고마워.
절대 눈뜨지 마.

이대라: 응. 꼭 감고 있을게. ()

앗...

그녀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다.

숨을 최대한 죽이고 온 감각을 입술에 집중시켰다.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순간이기에

이 느낌을 잊지 않으려면...

모든 세포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기억해야만 했다.

부시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몇 초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녀가 서서히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 얼굴 쪽으로 그녀의 손이 다가 오는 게 느껴졌다.

아..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구나.

앗. 카운트다운 들어가야겠다.

3초...

2초....

1초...

제로!

이대리: 으아악~~!!!!!! *(")x(")*

순간.. 내 입에선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곧 그녀에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아영: 까아아악~!!!!!! 0__0

우린.. 왜 비명을 질러댔을까??

입에 냄새가 나서???

혀를 씹어서???

이빨 끼리 부딪혀서???

위와 같은 일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저런 행복은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빛으로!!!

내 머리를!!!!

빗어 올렸던 것이다!!!!

뜨아아아!!!! ≥ ■ ≤

그녀의 손에 들린 빗에는

머리 뭉탱이 몇 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녀는 머리가 뜯겨 나간 내 얼굴을 바라보며

경악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완전 뒤틀린 상황이었다!

이아영: 너... 너.. 이 머리 뭐야!!!!

이대리: 그게 그러니까 말이지....

이아영: 이 나쁜 자식.
영구주제에 사람을 속여??

이대리: 그게 아냐. 내 말 좀 들어봐..

이아영: 듣기 싫어!
난 너처럼 머리카 붙이고 다니는
양아치는 정말 싫어!!

이대리: 아영아...그게 아니라니까...

이아영: 아! 재수 없어!!
연락처 당장 내놔!!

그녀는 내 손에 포근하게 감싸져 있던

메모지를 꾹싸게 빼앗더니

어둠 속으로 급하게 뛰어갔다.

이대리: 앗! 아영아..... 돌아와..... ㄴ(ㄱ_ㄱ)ㄱ

그녀를 이대로 놓칠 수 없어

그녀의 뒤를 달려가 보았지만..

그녀는 마치 호랑이에게 쫓기는 토끼처럼

무서운 속도로 내 시야에서 행하니 사라지고 말았다.

이대리: 아영아.... 안돼.... 돌아와줘....T_T/

그녀가 사라져버린 골목 모퉁이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방향해 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끝내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의 향기조차도.....

아...

또 한 번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행운의 여신은 나에게서 등을 돌린 것인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니...

이젠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된장..

나란 놈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도대체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비극의 연속이란 말이더냐.

완전 16부작 비극 미니시리즈구나... T_T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허탈한 마음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전봇대에 몸을 기대어 새까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까지 그녀를 만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장면 장면들이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하늘 위에 펼쳐졌다.

그리고는 내 눈에서 피와 같은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이아영..

내가 널 만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까짓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머리아 기르면 되는 거 아냐?? (ㄱㄴㄴ)

커다란 희망과 행복이 한 순간에 무참히

무너져내렸다는 좌절감에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그 괴로움의 압박을 못 이겨..

나머지 머리를 손으로 쥐어뜯으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대리: 으아아아!!!! (/≥■≤\)

그래도 멈추지 않는 괴로움과 억울함에...

전봇대에 머리를 미친 듯이 박아가며 오열해야 했다.

이대리: 으아아아아!!! 쿵! 쿵! 쿵! <(>▽<)>

내가 미쳤었지!! 내가 미쳤었어!!

쿵! 쿵! 쿵!

두 번 다시 여자한테 관심 안 갖는다!!!!

쿵! 쿵! 쿵!

이제 공부만 할 거라구!!!!

콰양! 콰양! 콰양!

그 날 밤 서울에서는..

한 남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침까지 메아리쳤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하늘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내렸다고 한다.

쏟아아아아아.....///..///////////..///////////..////////.///.//

그리고 몇 개월 후...

재훈: 야! 일어나!! 일어나 봐!!

이대리: 아흥~ 왜 이래~! (_)

재훈: 슈퍼 울트라 헤비급 희소식이 있어!

이대리: 원데. 요점 정리만 하고 널름 사라져 줘. (-_ど)

재훈: 놀라지 마!

이대리: 원데 그리 호들갑이야.

재훈: 너 체육시간에 축구하는 모습 보고서 1학년 후배애들
다 너한테 뽕갔대.

이대리: 무슨.. 지나가는 개 배짱빠지는 소리야.
나 개발인데... (-_ど)

재훈: 너가 운동장을 이리저리 누비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며 신입생들이 아주 뽀 갔다는 거야.

이대리: 그러던가 말던가.
신경 안 써.
잠이나 자련다.

재훈: 과연 잠이 올까?
이번 신입생 중에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수연이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말야.

번쩍!!! 0_0+

이대리: 친구,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지?
용건을 길게길게 자세히 말씀해봐.+_+

재훈: 아마 지금도 창가에 나와서
너 나왔나 지켜보고 있을걸???

이대리: 그.. 그게 정말이야?? 사실이야???

재훈: 그렇다니까. 내가 언제 뺑치는 거 봤어?

이대리: 이런 상!!!!

재훈: 왜 그래?

이대리: 아까 체육시간에 주변으로 남았었던 말야!!

재훈: 이그.. 팬들이 많이 기다렸겠네.

이대리: 너 오늘 체육 들었어???? 들었냐구!!!!

재훈: 응. 이번 시간인데.
앗. 종울렸다. 나 그만 나가봐야겠다.

이대리: 잠깐!!!!
발걸음을 잠시 일시정지 시켜줘!

재훈: 왜??

이대리: 내가 대신 나간다!!!!

재훈: 미쳤어??

내가 너 대신 수업 들어가라구??

이대리: 존경하는 친구~!

저번에 카세트 갖고 싶다고 그랬지?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 카세트가 두 개 있더군.

재훈: 근데??

이대리: 카세트 두 개 다 줄게.

대신 앞으로 너에게 체육시간이란 없다.

어떤가? 친구.

재훈: 나야 좋긴 하지만....

그래도... 너 이제부터 수업 안 빠지기로...

이대리: 쏘~!!!

친구.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거 아니겠어? (^■^)

재훈: 너가 굳이 그렇게 나온다면야...

이대리: 자. 난 빨리 옷이나 갈아입고 나가야겠어.

이럴 시간이 없다구.

친구. 앞으로 잘 부탁해~ 찡긋.. (*-^*)

들뜬 마음으로 교실에서 나와 복도 끝에서 복도 끝까지 양팔을 벌리고

합성을 지르며 날아갔다.

그 날 역시, 3층 복도에 달라 붙어있는 모든 유리창이 내 목소리에

크게 흔들거렸다고 한다.

이대리: 와하하하!!! 수연아!! 기다려라!! ~o=^0^=o~

오빠가 간다~!! ~o=^0^=o~

.

.

그 날 이후로 학교운동장엔...

쉬는 시간마다 체육복을 입고 나와서

축구공을 몰고 야생마처럼 종횡무진 운동장을 누비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그렇게 또 다시 폐인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 ㄱ

〈감사합니다〉

리플이 필요하냐...



Written by 이대리 (2005.1.25)

축구하다 쫓겨난 이유



하루 뒤면 5월 5일 어린이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어려서부터 새마을 운동을 해오며 운동과 친하게 지냈던 난,

이번 체육대회 때 계주와 축구 스타팅멤버로 나가게 되었고

한동안 숨쉬기운동, 방바닥 굴러다니기 운동, 손가락 운동(?)만..

열심히 해왔던지라 급히 몸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내일 중간고사 시험 있으면 오늘 독서실 가서 밤새듯이

나도 내일 있을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벼락치기로 몸 좀 풀려고 그러는 거지. --;;

우리 집에서 옆어지면 이마 깨지는 거리에 학교가 하나 있어

츄리닝차림으로 축구공과 축구화가방을 들고 학교로 향했다.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하고 1g정도 걱정을 했었는데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자,

다행히도 네 사람이 축구골대 앞에서 열심히 볼을 차고 있었고

난 그들에게 걸어가 한판만 꺼달라고 싹싹 빌며 사정했다. _-;;

그들은 흔쾌히 승낙을 했고...

3:2로 편을 먹고 음료수내기 게임을 하기로 했다.

내가 키도 크고 운동도 잘_-;하게 생겨서 그런지..

우리 팀이 두 명이었다.

좀 불만스럽긴 했지만..

그들의 볼 차는 모습이 영 형편없었기에

입 다물고 나도 합의했다.

그러자 상대팀 한 명이 말했다.

상대팀 선수: 골대는 하나 쓸까요? 두 개 쓸까요?

솔직히 이 인원으로 골대를 두 개 다 쓰는 것은

모두다 거품 물고 맨땅에 헤딩하자는 미친 짓이었지만..

골대 한 개로 축구시합을 하자니 영 품이 안 날 것 같아

두개를 다 쓰자고 했다.

원래 축구는..

공을 뺄 차고 겁나게 뛰어다니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 —"

다행히도..

운동장 넓이가 우리 집 뒷마당 넓이밖에 안 되었고.. _-;

골키퍼 없이 자유킥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뭘빠지게 뛰어다녀야 하는 건 마찬가지. —"

난, 츠리닝을 벗어 그 안에 입고 왔던 반바지 차림으로 변신했고

축구화로 갈아 신은 다음 축구스타킹을 무릎까지 쭈욱 땡기며

필승을 다짐했다. —"

어느덧 금세기 최고의 게임은 시작됐고..

초반부터 나의 날센 돌파와 위협적인 몸놀림을 바탕으로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완전 기울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작한지, 채 5분도 안 되어..

뛰어난 스피드와 현란한 볼 드리볼로

상대팀 문전까지 순식간에 달려가서 슈팅을 날렸고,

대포알처럼 날아간 축구공이 골네트를 시원하게 흔들어버렸다.

이대리: 아싸가오리~! 한 골!!! ^0^/

초반부터 맥없이 무너져버린 상대팀 선수들은 서로를 헐뜯으며 욕을 퍼부었고

그들의 조직력과 사기는 경기 초반부터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른 돌파력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었고 나의 화려한 개인기에 농락 당하면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 다니던 이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었다.

(*■~)" 헤벌레~~

골대에 자리잡고 있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을 몰고서

그라운드를 나의 안방 마냥 이리저리 누비고 다니다가

문전으로 뛰어드는 우리편 선수에게 공중으로 패스를 했고

내 앞을 막고 있던 상대팀 선수들을 몸싸움으로 잽싸게 돌파하고

골대 쪽으로 달려가면서 다시 2:1패스를 받아

강력하게 중거리 슈팅을 날렸다.

빠엥~~!!!

그렇게 초고속 광통신망의 속도로 날아간 축구공은

네트를 찢어버릴 듯한 파워로 골키퍼가 손 쓸 새도 없이

골대 모서리에 정확히 꽂히고 말았고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처럼 골네트가 크게 펄럭였다.

이대라: 유후~! 두 골~!! y(^o^)y

뽀빠라 뽀빠밤~ 뽀바~ 뽀바~! ㄱ(▽ ▽) /) (\ (▽ ▽) ㄴ <- 골 세러머니

이렇게 허무하게 두 골씩이나 내준 상대팀은

전력을 가다듬고 역습을 통해 반격을 펼쳐봤지만

나의 두터운 수비벽을 뚫지 못하고 모두 공을 빼앗기거나,

간신히 날린 슈트가 나의 선방에 걸리는 등,

끝내 골 맛을 볼 수 없었다.

결국,

세 명의 인원으로 넓은 운동장을 여러 번 왕복해야 하는

미친 짓의 영향으로 상대팀은 많이 지치게 되었고..

난, 폭죽 터지듯이 뽕뽕! 터져 대는 골 맛으로 지친 줄도 모르고

광야를 가르는 한 마리 표범처럼 모래바닥을 쓸며 날뛰었다.

이대리: 획획~! 획획~! _(^▽^)/ㄹ

이번엔 우리팀 선수가 재빠르게 왼쪽 측면을 돌파했고

그에게 패스를 요구하자 반대쪽에 있는 나에게로 공을 뽕! 날려댔다.

그렇게 날아드는 볼의 착지점을 정확히 계산하여

공을 향해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가 크로스를 받고서

절정에 다다른 득점포를 가동해 최상의 골 감각을 과시하며

논스톱으로 중거리슈트를 날려버렸다.

그렇게 맞은 볼은 공기회오리를 발생시키며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더니

또다시 골문을 시원하게 갈라버리며

꿈에서나 그리던 해트트릭을 달성하게 만들었다.

난 3호골을 터뜨려 해트트릭을 달성했다는 크나큰 기쁨에

우리팀 골대까지 양팔을 벌려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골 세러머니를 보여줬다.

그 골 세러머니는 마치 2002월드컵 4강전에서 홍명보 선수가

승부차기 마지막 슛을 넣고 이에 열광하는 관중석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멋지게 뛰어가는 모습과 같았다.

이대리: 와~~~!! ~o(^_^)o~

3골에 멈추지 않고..

우리팀의 공격은 계속해서 쉴 틈 없이 이루어졌고

또다시 내가 볼을 드리볼하며 상대팀 문전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이번엔 두 명의 수비수가 나를 철저히 개인 마크하고 있었는데

수비수가 달라볼을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두 번의 볼 터치를 선보이며 그들을 쉽게 따돌렸고

골키퍼와 1:1상황이 되자,

오른발로 공을 잡아 놓고 왼발 발등으로 정확하게 뺨어 차

골문 오른쪽을 시원하게 꿰뚫어버렸다.

이대리: 아! 골!! 또!! 골이에요!! (=^▽^)/

이렇게 나의 환상적인 골 맛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갔고

전반전에만 3골을 더 몰아쳐 무려 7 : 0 의 완승을 이뤄냈다.

왼쪽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땅볼 스루 패스로 넘겨받은 공을

골키퍼보다 한발 먼저 골문 안으로 차 넣어 한 골을 기록했고,

상대팀 문전 앞에서 볼을 짹싸게 뉘아쳐서 강력 슈팅을 날려

또다시 네트를 갈라버렸고,

왼쪽 측면을 질풍 드리블로 돌파한 뒤 강하게 날린 황금의 슈트

크로스바에 맞고 튀겨 나오자

몸을 부웅 날려 오버헤드킥으로 강하게 차 넣어

또다시 한 골을 넣으며 7점을 이뤄낸 것이었다.

전반전 내내 나의 독무대나 다름없었고

우리팀과 상대팀의 전력차이는

브라질과 몰디브의 차이와 다름없을 정도였다.

사실, 내가 축구를 그리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오늘 나의 성과를 보고서 내 자신에게 너무나 놀라웠다.

그리고 이 정도면 프로에 가도 전혀 손색없을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므하하하핫! ^____^v

그렇게 전반전을 마치고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친구: 이대리! 뭐하냐?

이대리: 으하하하! 축구 한다!

친구: 축구? 개발이 무슨 축구를 하나!

이대리: 야! 전반전에만 7골 넣는 개발도 있냐! 으하하헛! ^__^

친구: 미친 샘플~! 구라는..

그냥 판타지아 소설이나 쓰지 그러냐.

이대리: 정말이라니까! 다들 내 화려한 개인기에 찢찢매고 있다니까.

이참에 프로무대로 한번 진출해볼까?

참! 너 국가대표축구 감독 전화번호 좀 알아낼 수 있냐?

친구: 끝까지 미친님.

이대리: 농담이 아니라니까!

내가 프로축구에만 입단한다면 2006년 독일월드컵 우승은..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대~한~민~국! 짜자자짜짜!! ^__^

친구: 재수없는 왕자님!

정신이 나가다 못해 잠수타버렸구나!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친구는 핸드폰요금 아깝다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전화통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팀 선수가 놀라며 말했다.

우리팀 선수: 우와~ 정말 잘 하시던데요.

난, 쑥스럽다는 듯이 웃음으로 대답했다.

이대리: 와하하하! ^0^ <----건방진 웃음

우리, 파이팅을 외친 후 그라운드로 다시 들어섰고

곧,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상대팀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지

후반전 초반부터 무서운 총공세를 펼쳤다.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바탕으로 순식간에

우리 쪽 문전으로 침투했고

골문 정면에서 낮게 깔리는 슈팅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모두 나의 철벽방어 같은 선방에 막혀버렸고

또다시 내가 볼을 몰고서 번개같은 속공을 펼쳤다.

우리팀 아크지역에서부터 단독 드리볼로 상대 진영까지 깊숙이 돌파한 다음

끝까지 따라붙어 몸싸움으로 날 짜증나게 만드는 선수 두 명을 쉽게 따돌리고

오른발 끝으로 공을 강하게 찰러 찼다.

그러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골문 오른쪽 옆 그물을 뚫, 갈라버렸다.

이대리: 우와~~ 8호골!! 야호~! 우르르르~ 빠세이~! ㄴ(^_^)ㄴ

난, 점점 많아 오르는 골 감각에 스스로 광분해서 미친 듯이 날뛰어댔고

상대팀은 이런 날 따라다니면서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마도 죽을 맛이었을 거다.

또다시 우리의 공격이 이어졌고 우리팀 선수가 크로스해준 공을

지면에서 멋지게 솟구친 다음 절묘한 헤딩슛으로 꽃아 넣어

왼쪽 골네트를 크게 흔들어버렸다.

축구왕 슛돌이도 하기 힘든 멋진 그림 같은 슛이었다.

이대리: 와하하!!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뵤~~ ^0^/

이렇게 내 몸에 맞고 날아간 공은 무조건 상대팀의 골네트를 흔들어버렸고

상대팀 선수들은 이에 뚜껑이 열렸는지,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시도했다.

그러나 나도 절대 몸싸움에선 밀리지 않는 체격이었고..

큰 키로 제공권에서 우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그들을 약올리는 듯이 먼저 볼을 얻어내 멀리 달아났다.

이제는 뚜껑이 날아갔는지 상대팀이 몸싸움에 죽기살기로 임했고

나도 이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격하게 몸싸움을 해댔다.

그렇게 경기는 점점 난폭해지기 시작했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의 진로를 방해했다.

나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상대팀 선수의 옷을 세게 잡아당겼고

옷을 왜 잡아 당기냐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그 정도는 축구에서의 애교라며 몸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걸잡을 수 없이 치열해지는 몸싸움은 끝없이 격해져만 갔고

내가 팔꿈치로 살짝 찌던가 엉덩이로 살짝 걷어차는 동작을 취하면

모두들 비명을 내지르며 모래바닥에서 앞구르기를 보여줬다.

상대팀 선수: 으악! <(>▽<)< _(>▽<)ノミ

괜히 헐리우드액션으로 엄살을 부려

파울을 유도하려는 이들의 만행에 분노하여

더욱더 몸싸움을 펼쳐댔고 미(' ㄷ ')ノ

공중에서 나와 크게 부딪힌 한 선수가

커다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미꾸라지처럼 몸부림쳤다.

상대팀 선수: \>)>_<(/ 으악~!

일부러 엄살을 부리는 줄 알았지만..

그의 코에서 빨간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츤르르르... - ㄱ

그렇게 흥미진진하던 게임은 잠시 중단되었고

쓰러져있는 선수에게 관찮냐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앞구르기 뒤구르기를 멈추지 않으며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그는

끝까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난 대략 난처함에 빠져들고 있었고..

순간, 스탠드 위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여선생이 우리 쪽으로 재빨리 달려왔다.

그리고는 나에게 손가락으로 샷대질을 해가며 화를 내는 여선생.

대략 돛대는 분위기로 전락하고 마는데..

여선생: 이봐요!!

이대리: 보고 있습니다. -_-!

여선생: 내가 처음부터 쭈욱 지켜보고 있었는데!
당신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이대리: 원래 잘 웃깁니다. -_-

여선생: 당신! 초딩들이랑 축구 하니 좋아?!

-_-!!

이대리: 저.. 그건..... -_-;;

여선생: 초딩들 가지고 노니까 좋냐구요!!

이대리: 그러니까.. 그게... -_-;;

된장!!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볼게.

실은..

.

.

초딩들 데리고 축구 한 거야. -_-;

팍!! 김 새버리는 순간이지??

미안해. -_-;;

근데 내 실력으로 어딜 가서 저렇게 골을 넣을 수 있겠어.

내 또래랑 하면 맨 날 수비만 봐야 되고

볼도 3초 이상 잡고 있질 못 하는데. -_-;;

솔직히 나도 한번 멋지게 공격 좀 해보고 싶었고

화려한 개인기도 좀 부려보고 싶었고

골대 안으로 골도 한 번 넣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초등학교 찾아간 거야.

잠깐동안 속여서 정말 미안해. --;;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여선생: 참나! 어이가 없어서!

꼬마애들 상대로 골 넣고 좋다고 뛰어 다니는 건 뭐예요!!

그리고 싫어요?!

이대리: 참아보려고 했지만 기분이 너무.. -_-;

여선생: 할 짓이 그렇게도 없어요!!

이대리: 처음엔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_-;

여선생: 내가 초등학교 교사경력 5년 동안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 알아! 나이 처먹었으면 조기축구회 가서 축구를 해야지!

왜! 이런 어린애들을 상대로 하냐고!! 왜!

애 이렇게 피 흘리는데 어쩔 거야!

이대리: 뭐라고 할 말이.. 정말 죄송.. -_-;;

여선생: 됐으니까! 빨리 나가요! 빨리!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이대리: 저.. 아까 음료수 내기했었는데.. -_-a

선생님: 음료수는 무슨 음료수야!
이 사람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웃기는 사람이네!!

이대리: 그.. 그냥 갈게요. 애들아.. 형 그만 가볼게. -_-;;

상대팀 초당1: 빨리 꺼져요! 재섭씨요!

쿠궁! -_-^

패 버릴 수도 없고. -_-

상대팀 초당2: 뭐 저런 싸이코가 다 있냐!
애들이랑 하면 좀 봐주면서 해야지..
존나 무식하게 하고 지랄이야.

쿠궁! -_-!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까. -_-

선생님: 아! 빨리 안 가고 뭐해요!

이대리: 애들아.. 잘 놀았어. -_-/

초당: 즐! -_-凸

쓰박색히! -_-!

이렇게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고

축구공을 들고 쓸쓸히 학교에서 나와 담배를 하나 입에 물었다.

이대리: (—.-)ず ~ 아~ 잘나가다가 뒤통수치고 마는구나.

아깝다. 10골 채울 수 있었는데.... (￣へ￣)ず

경기가 이렇게 끝나버려서 많이 아쉽고 서운하기도 했고

선생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많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초딩녀석이 했던 말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였다.

초딩한테 대놓고 [졸! -_-凸]을 당하다니!!

분노게이지가 상승하는구나. -_-

아무튼 이 날,

골 맛에 흥분해서 무리하게 뛰어다닌 결과..

온 몸에 파스로 도배를 하고 자야했고..

다음 날 체육대회에서 알배긴 몸을 이끌고

뛰어다니느라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그래도 체육대회날, 이 날의 훈련 결과로 멋지게 1득점을 올렸고

결승까지 올라갔다가 아쉽게 준우승을 할 수 있었다. 흐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날 이후로..

나한테 싸가지없게 대했던 그 초딩들이랑

겜방에서 우연히 마주치게되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는데..

쿠쿵~! -_-!

오케바리~!!

다 뒤져쓰~!!! ギ.ゴメ

게임 끝나고 나가면서...

버퍼링 완료된 분노의 힘을 손가락에 가득 모아

녀석들의 뒤통수 45도 각도 + 정수리와 뒷덜미의 비율 3:2 지점에..

종나 멋지게.....!!!

꿀밤 한 대씩 썰려주고 나갔다. -_-!

□

-끝-

* 글 남기고 가면 내일 무조건 만원 줍니다.

Written by 이대리 (2004.12.16)

천사의 선물! 그리고 불알친구의 선물!

고 3때.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들고

항상 친구와 함께 이대입구(이화여대)로 옷을 사러 다녔다.

내가 비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날엔..

함께 따라다니며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역할을 해준 친구에게

티셔츠 한 장을 사주는 선행을 베풀었고,

어쩌다 돈이 없는 날은 친구를 졸레졸레 따라다니면서

굽신굽신 거리며 티셔츠 한 장이라도 얻어내려고 바빴다.

오늘도 친구와 함께 이화여대 앞에서 아이쇼핑을 즐기고 있고..

오늘은..

내가 돈 없는 날이다. --;;

그러나 저번에 내가 이녀석한테 위, 아래로 옷 한 벌 사줬으니

나도 오늘만큼은 좀 큰 기대를 하고서 녀석과 함께 관광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대식: 야! 저 옷 멋지지 않냐?

이대리: 우아~ 별로 멋진데~ ^^

대식: 개새끼님. 멋지다는 거야, 안 멋지다는 거야.. -_-

이대리: 하나도 결코 멋지다는 소리야. ^^

대식: 미친 1인분. -_-

친구는 밖에 진열되어 있는 옷들을 하나씩 걸쳐보았고

난 늘 예행연습 해왔던 대로 친구의 모습을 보며

점수를 매겨주어야 했다.

잠시 후..

친구가 옷을 무더기로 사가지고 쇼핑백을 잔뜩 들고 나오더니

나에게 쇼핑백을 한가득 내밀었다.

대식: 무겁다. 이거 좀 들어라.

이대리: 손에 토큐했냐? 니가 들어~

대식: 씨불~ 뭐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갑자기 김이 팍 새버리네!!

녀석의 손에 들린 쇼핑백들을 겹싸게 가로챘다.

이대리: 칭구! 다음 코스로 가자구! ^_^/

오늘만큼은 반드시 구두를 하나 건져서 돌아가야겠다는 일념 하에

녀석의 꼬봉처럼 졸레졸레 따라다니며 온갖 아부와 아양을

고도의 테크닉으로 떨어댔다.

구두 하나에 무너지는 내 자신이 좀 비참하긴 했지만

춡고 배고프고 힘들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 -_-

난 계속해서 20세기 최첨단 아부정신을 선보였고,

놈은 지가 왕이라도 된 듯 어깨에 힘을 빠득 주며

날 종처럼 부려댔다.

대식: 아.. 목마르다. 가서 콜라 두 개만 사와라.

쿠쿵! -_-!!

이대리: 쓰박! 보자보자하니까 너무하네...

내가 니 종이나? 넌 발도 없어?

오늘 돈 좀 있다고 빠기는거야? 응!!

이렇게 말하면 구두와는 영영 안녕이야. -_-;

이대리: 어떤 걸로 사올까? 펩시? 코카? ^^a

대식: 아무거나 사 와. 남는 걸로 너 먹고싶은 거 사먹고.

쓰박색해! -_-

돈 좀 있다구해서 갈수록 건방짐이 상승하다 못해 추락하는 구나.

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짹짹 책가방에 있는 두껍고 뽀뽀한

공책 한 권을 꺼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친구의 싸대기 앞으로 날려댔다.

이대리: 뽀뽀~~ 어때? 시원하지? 땀이 금방 식어버리지 않아?

금방 사올 테니까... 이걸로 땀 좀 식히고 있어. 알았지? 뽀뽀~ \(^▽^)\

이런 식으로..

나의 비참함은 2시간 넘게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달려갔고

녀석은 돈이 없어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난도질해댔다.

=====

☆ 사례1.

대식: 야. 들어가서 이 옷 얼마지 좀 물어보고 와.

이대리: -_-

대식: 왜, 싫어? 아... 오늘 돈 좀 들고 왔는데..

이대리: 아줌마~ 이 옷 얼마예요? ^0^

☆ 사례2.

대식: 이 옷은 좀 비싸네. 너가 좀 깎아봐라.

반명처리 해줄게.

이대리: -_-!

대식: 잘하면... 너가 사고싶은 거 두 개정도는 사 줄 수도...

이대리: 아줌마 이거 왜 이리 비싸요!!!

옆집에선 만 팔천원에 파는 거라고요!!

안 깎아주면 불매운동할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 ˆ ´)

=====

이런 식으로 놈의 비위를 맞춰줘야 했고

녀석의 만행은 멈추질 않고 계속되었다.

난 점점 끓어오르는 분노에...

길거리에 있는 허리띠로 놈의 목을 졸라버리려고

잡았다 놔다, 잡았다 놔다를 반복했다. -_-

허리띠집 아줌마: 학생! 사지도 안을거면서 왜 자꾸 만지고
지랄 난리 법석 호들갑이지?!

-_-

아무튼 이화여대 앞을 몇시간 동안 방황하면서..

녀석의 짐꾼과 심부름꾼이 되어야 했고..

지금까지 내 봉사의 대가로 구두 하나 못 얻어낸다는 것은

분명한 노동착취라 생각하고서..

난, 꼭! x10000000

구두를 얻어내야 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_=

사실,

이렇게까지 구두를 얻어내려하는 이유가 다 있다.

이 때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 랭킹 1위가 구두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미팅을 나갈 때, 나도 남들처럼 광 뻗질나게 나는

구두를 단정히 신고 나가고 싶었고

또 그 당시에..

케주얼 정장, 차이나 정장이 유행이었는데

정장에 운동화를 신을 순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집에 구두가 한켠레도 없었던 건 아니다.

딱! 한 켠레=_=; 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선물로 받은 구두인지라

굽도 다 닳고 갈라진 곳도 많아 완전 켠레나 다름없었고

그 구두를 신고 걸어다니면 불안정하게 생긴 구두굽때문에

미끄러지거나 자빠지거나 하는 일들도 많았다.

암튼..

옷, 오토바이, 카메라, MC스퀘어, 성인--;;잡지...

이런 것보다도..

때깟스럽게 광나는 구두,

아니.. 굽 멀쩡한 구두 하나가 절실히 필요했다.

구두랑 발바닥이랑 포옹해보고 싶은게

작은 소원이자, 바램이었다. -_-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습으로 보면..

솔직히 구두를 얻어내는 것이 좀 무리였다.

열심히 따라다니면..

만원 정도의 티셔츠 한 장이나, 허리띠나..

가방정도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지만..

최하 3만원은 줘야 하는 구두는 좀.. --;;

그런 만큼 놈에게 끝까지 쫓득쫓득한 아부를 떨어야했고

놈이 무슨 만행을 저질러도 웃음으로 인내해야 했다.

그렇게 자존심까지 짓밟아가며 열심히 노력했으니..

분명 구두를 얻어낼 수 있을거란 자신감이 들었고

마침 구두집이 앞에 보여 녀석의 마음을 한 스푼

떠보기 위해 물었다.

이대리: 어라? 상콤한 구두 많이 나왔네?

우리 같이 들어가서 신어볼까? (*^o^*)

대식: 난 집에 구두 잔뜩 있어. 신어 보고 와.

쓰박색해! 유인술에 안 자빠지는 구나. -_-

이대리: 참.. 아까 너가 산 청바지에..

저 구두 신으면 캡송 잘 어울리고 멋질것 같은데...

아마 여고딩들 10명정도 쓰러뜨리는 건 누워서 떡먹고

후식으로 사라다 먹는 일일걸? ^^

대식: 힙합바지에 구두가 어울리냐? 붕~!

-_-!

이대리: 앗!! 너 저번에 입었던 정장이랑은 무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쌍의 바퀴벌레보다 더 잘 어울릴걸? 하하.. ^0^

대식: 그거 형꺼야. -_-

쓰박! 학교 옥상에서 언젠가 밀어버려야 할 색히!

형도 없는 색히가 형을 팔아먹다니!! -_-!

이녀석도 좀 눈치가 빠른 놈이라 쉽게 넘어오질 않았다.

괜히 들어갔다가 내꺼까지 사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녀석도 눈치까고 있는 것이었다.

더이상 나의 팬티엄 4급 잔대가리가 먹혀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막나가자는 심정으로 구두집으로 혼자 송~ 들어가버렸다.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놈도 어쩔 수 없이 들어 올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씹새는...

죽어도 같이 안 들어가겠다는 심리를 보여주기 위해

교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집 앞에서

줄담배를 뽕뽕 피대며.. (—.-)す ~ 후~~

내가 나올 때 까지 담배 릴레이를 펼치고 있었다.

63빌딩 옥상에서 밀어버려야 할 색히! -_-

어쩔 수 없이 녀석에게 교활한 작전으로 맞서기 위해

구두가게 아저씨한테 친구를 가리키며 속닥속닥 말했다.

이대리: 아저씨, 저 친구가 걸어다니는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재 좀 끌고와 주세요. (+-_-)-^{ES}

아저씨는 화심의 미소를 쓰윽 날리더니 녀석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학생!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하고 있어.

부담갖지 말고 어여 들어와~ ^0^/

그러나 녀석의 치사뽀스틱한 고집은 대단했다.

친구: 전 구두냄새만 맡으면 눈동자에도 알레르기가 생기거든요. -_-

아저씨: ... 0_0 (할 말을 잃음)

녀석의 완강한 고집에 난, 다음 작전을 써야했다.

이대리: 아저씨, 여긴 어두워서 잘 안보이니까,

밖에 나가서 신어볼게요. ^^;

그러면서..

구두를 손에 잔뜩 쥐고는 친구가 서있는 곳까지 갔다.

아저씨는 거울을 들고 날 따라나왔고... --;;

녀석은 또다시 치사뻘쓰한 뻘뻘스러움으로 고개를 휙 돌려

지나다니는 여고생들을 바라봤다.

난..

그런 녀석이 들으라 큰소리로 외치며 구두를 번갈아가며 신어댔다.

이대리: 와~~! 이 구두 나한테 와장창창 잘 어울리네.

하핫! 가격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고 말야.

친구한테 선물하기 딱 좋은 부담없는 가격인걸? 아하하! ^0^

대식: -.-a (귀 후비는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진국 될때까지 패도 시원찮을 색히.. -_-!

분노게이지가 만땅을 채우는구나.

이대리: 와~ 이 구두는 완전 신데렐라 구두랑 커플구두 같은데? 죽인다~!!

하핫! 내 생일날 생일선물로 받으면 아주 안성맞춤이겠는걸? ^0^ <-- 가공 웃음.

대식: o-.-, -o (어느새 이어폰 끼고 있다.)

회를 쳐서 씹싸먹어도 시원찮을 색히! -_-!

진열된 하이힐로 대굴통을 찍어버리고 싶구나.

난 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열된 구두를 하나씩 계속 갈아신어댔다.

종업원들은 내가 신고 벗어둔 수많은 구두들을 치우며

뒤치닥거리 하느라 정신이없었고 주인아저씨의

얼굴은 후끈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으며

녀석은 끝까지 모른 척 하며 다른 곳을 주시했다.

두리번~ 두리번~ (")(..)(")

어느덧...

종업원과 주인아저씨의 얼굴은 점점 대인저러스한 표정으로 굳어가고 있었으며..

머리 위에서 수증기가 승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구두를 안 사고 그냥 나가게 될 경우...

난, 다음날..

조선일보 첫 면을 멋지게 장식하고 말 분위기였다. =_ =

이 쓰박색히가 그래도 나랑 우정을 10년이상 지켜온

씨불알친구라면 친구가 위기에 처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절대 모른 척 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녀석의 의리를 믿고 수십 켄레의 구두를 계속해서 갈아 신어댔다.

그런데..

이어폰을 끼고 흥얼흥얼 주둥아리 댄스를 펼치고 있는 (- ■ -) ♪ ♪ ♪ ~

녀석의 눈앞에 제발 한켄레만 사달라는 시내루를 발사해가며

구두를 번쩍 들어올리는 액션을 취해보기도 했으나,

녀석은 끝까지 침묵으로 묵비권을 행사했고

난 점점 난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식은땀을 분수처럼 쏟아내야했다. 00——00

결국 그 쓰박색히는 좀 불안했는지..

울리지도 않은 뺨뺨을 내려다보더니..

친구: 어??? 엄마한테 호출왔네? (___)

라고 씨부리며

급하게 공중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ㄱ(00—,.—)ㄴ

그리고 난..

구두주걱을 손바닥에 내리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그들에게

밟혀죽기 1분전이 되어야 했다.

내 앞에 펼쳐져있는 구두들을 찢싸게 하나씩 원상복귀시키며

주인아저씨에게 최대한 싱그러운 웃음을 띄운채

상냥하고 친절하 말투로 말했다.

이대리: 하핫. 아저씨, 제가 나중에 친구들 데리고 꼭 다시 올게요. ^0^
와~ 내 친구들이 한 켄레씩만 사 신어도 여긴 쑥대밭 되겠네. 아하하! ^0^

이렇게 말하면서..

애교스러움을 총 동원했다.

눈웃음에.. ㄴ ㄴ ■ 억지로 가공한 보조개에.. (^■^*)

낙지가 꿈틀대는 듯한 표정에.. (~^▽^)

다행히도..

다른 손님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와서

그들을 정신없게 만들었고..

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잽싸게 36계 줄행랑을 쳤다.

으다다대!! ㄱ(〇〇—,.—)ㄴ

전광석화와 같은 도움발달기 실력으로

탈옥은 성공했지만 왠지 좀 불안했다.

아까 종업원 형이..

내 교복에 달린 학교마크를 보면서 메모를 해뒀던 것 같다.

나중에 학교 찾아와서 깔 것만 같은... -_-;

내가 그놈에게 자행했던 온갖 더럽고 비겁하고 비참했던

순간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공중전화박스 앞에서 실실쪼개고 있는 녀석에게 달려가

45도 각도에 멋지게 좇방을 한 방 꽂아주고 싶었지만..

내 불알이 허락하질 않았다.

된장! 망할놈의 불알친구!! =_=!

대식: 구경 잘 하고 왔어? (ㄱ■ㄴ)

이대리: 이 처죽일 색히야!

돈도 많이 갖고 왔으면서 친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구두 한 켤레 좀 사줄 어디가 덧나냐!!!

니꺼 그렇게 한 가득 사고 친구꺼 하나 사주는 건 아깝냐??

예전에 너한테 손목시계 사준 거 무진장 후회된다. 이.. 개와새야!!

대식: 떨떨한 분.

갖고싶다고 말하지 그랬어.

난 도무지 모르고 있었잖아. (─■─;)

이대리: 하늘에서 내려온 개색히! (` ˆ ´)

대식: 왜 사람 미안하게 만들어. 다시 갈까? (┐ □ ┐)

이대리: 지옥이나 가라. 9x2놈아!!! s(─^─)z

결국 친구가 사주겠다는 허리띠랑 팬티를 무시하고

옛같은 맘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겨우 버스비만 있어 그 쓰박색히 택시올라 탈 때

혼자서 버스 두번 갈아타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찔끔했다.

죽일색히! π_π

솔직히 구두 한 켤레라고 해봤자

돈 3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겨우 그거 가지고 그런 비참한 짓을 왜 했는 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 집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관계로..

3만원을 모으려면 한 달동안 한 푼도 쓰지 말아야 했다.

물론 늘 해왔던 대로..

책산다며 돈 좀 뺄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 일이 잘 안풀려서 힘들어하시던

부모님의 안쓰러운 얼굴을 보고있으면

거짓말하려 했다가도 맘을 바꿔야만 했다. -_-;

암튼..

제대로 된 구두 한 켤레가 없어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운동화만 신고 다녀야 했고

친구들과 방과후에 당구장에 가면

광이 번쩍번쩍 나는 구두를 바라보며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π_π

그런데..

과연 신은 존재했던 것일까?

그렇게 구두 한 켤레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삶의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나에게

신이 가엾게 여기셨는지

어느 날....

커다란 행운을 선물해주셨다.

대식이와 함께 낙성대 전철역 공중전화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당시에 친구가 몇 없어서.. 이 놈이랑 다시.. -_-;)

저 멀리 공중전화 옆에 낡아보이는 핸드백이 하나 놓여져 있었다.

녀석도 봤는지..

우린 서로 눈알을 한 번 부딪혔고.... (``)---〉찌리릿 〈---(``)

젼싸게..

.

.

.

달렸다.

이대리: 앗! 핸드백이다!! ㄱ(〇〇—,.—)ㄴ

대식: 그거 내꺼야! 내가 먼저 봤어!! ㄱ(〇〇—,.—)ㄴ

0.0001초 차이로 내가 먼저 그 핸드백을 낚아챘고..

녀석은 울분을 토해내며 반땡을 외쳐댔다.

일단, 녀석과 함께..

주위를 한번 쓱 살피고나서 핸드백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대피했다.

안전지역으로 들어가서 핸드백을 열어봤는데...

허걱~! 0_0

얇은 핸드백이라 몇만원 들어있으면

횡재하는 거겠지 생각했었는데..

내 예상을 완전 깨부시고

세종대왕 1개사단 병력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세어보니..

정확히 80만원이었다. 0_0

그 당시에..

현금 80만원을 손에 쥐고 있는 그 떨림은..

은행강도가 현금 몇천만원을 훔쳐서

손에 쥐고 있는 떨림처럼...

날 흥분에 도가니탕으로 담궜주었다.

솔직히 고삐리가..

부루마불 돈도 아닌 현찰을 80만원이나

손에 쥐고 있을 일이 없잖아.

대식: 야, 우리 옷사러 한번 더 갈래?

이번엔 내가 너 따라 다닐게. ^^

비열한 색히! -_-

내가 왜 이런 색히를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 걸까..

녀석은 끝까지 나에게 아부를 떨어대면서

돈을 나눠갖자니, 나이트를 가자니, 옷을 사러 가자니,

이런 싹통바가지 없는 발언을 해댔고..

난, 녀석을 따돌리고서 핸드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 순간에 생긴 일확천금의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갈팡질팡 고민을 해댔다.

그냥 경찰서에 기부할까?

그렇게 해도 그 돈의 10분의 1은 받을 수 있잖아.

지랄! 니가 언제부터 인간도덕책이었냐..

확그냥 신이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서

아무런 죄책감없이 다 써버릴까?

솔직히 이 돈이면..

내가 그토록 사고 싶어했던

구두도 여러 켤레 살 수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엄마 눈치보며 손바닥 벌릴 일도 없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 수 도 있는 돈이잖아.

후~~ 이걸 좀 너무했나? -_-;;

쓰박! 돈이 생겨도 맘이 편치 않구나. -_-

이렇게 행복한 고민에 빠져..

80만원의 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있는 중...

핸드백 밖으로 살짝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는

다이얼리가 보였는데..

잡싸게 펼쳐보았다. -_-

제일 앞 칸에 주민등록증이 보였다.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많은 20살이었고..

여자님-_-;이셨다.

뭐 몽타주는 그럭저럭 주먹 안 날라갈 정도...

농담이고... 좀 예뻐던 것 같다. --;;

다이얼리를 한 장씩 넘겨가며

종이에 적힌 내용들을 읽어보았다.

정말 성실한 여자인지..

일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그리고 꼼꼼한 여자인지..

여러가지 스티커로 이쁘게 꾸며놓기도 했다.

그렇게 그녀의 일기를 훑쳐-_- 보았는데..

중간에 대충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비슷하게 적어볼게. -_-;)

1996년. 0월 0일.

요즘들어 모임을 가질 때마다 내가 정말로 초라해지는 기분이다.

다들 남친이랑 팔장끼고 나오는데 나만 혼자다.

치.. 나쁜 지지배들...

우리들 모임에 꼭 남친까지 끼고 나와야 하나?

남은 속타서 죽겠는데 말야.

그런 친구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다.

흠.. 내 백마 탄 왕자님은 지금쯤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나도 멋진 남자 만나서 예쁜 사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개들 앞에서 자랑 좀 하고 싶은데...

1996년. 0월 0일.

이제 끝있으면 월급날이다.

사회생활 하면서 받는 첫 봉급이라 그런지

설레이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다.

월급 받으면 뭐할까...

우선 엄마한테 30만원 부쳐드려야겠다.

그동안 엄마한테 용돈 드려본 적이 한번도 없으니..

엄마가 많이 기뻐하겠지?

그리고 나머지 50만원으로 저금도 하고 내가 사고싶은

것들도 사야겠다.

뭐뭐 사지?

예쁜 원피스도 사고 싶고.. 향수도 사고싶고.. 카세트도 사고싶고..

아냐..

일단 낡은 핸드백부터 바꿔야겠다.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두개의 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실.. 내 기억력의 유통기한이 좀 짧아서.. --;; 8년 전이거든. -_-!)

이 일기들을 읽고나니까...

웬지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남이 힘들게 고생하며 번 돈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릴순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 많은 여자도 아닌 것 같고...

또 첫 봉급인데 그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양심은 있는 놈이기에.. --;;

그러나..

구두의 유혹은 정말 끈질겼다.

그냥 이 돈에서 구두 한 켤레만 사고 주면 안될까?

그래도 그 여자는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았으니까..

최소한 75만원은 버는거잖아.

그리고..

10분의 1은 어차피 내 몫이니까.. -_-;

에이싸~!! 됐다!

그냥 너덜너덜한 구두 신고 말지.

이렇게 여자가 힘들게 번 돈을

내 맘대로 써가면서까지 치사해질순 없다.

돌려주자! -_-;

결국 그 돈을 전원 다 돌려주기로 맘먹었고..

그 친구놈은..

이런 날 미친놈이라며

마구 손가락질 해댔다.

녀석의 손가락질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다이얼리에 적혀있는 뽀뽀번호를 보고서

그 여자에게 뽀뽀를 쳤다.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마치 죽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아니...

내가 생명의 은인이라도 되는 듯..

고맙다는 말을 연신 해댔다.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_-a

암튼 그녀와 약속을 했고..

바로 다음 날, 그녀의 회사근처인..

신사역 4거리 앞 어느 주유소에서 만났다.

(근데 왜 주유소에서 만났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주유소 알바? -_-a)

나보다 더 일찍 나와서 날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만나게 되자

그녀는 내게 계속 고맙다는 말만 하면서 허리를 굽신굽신 거렸다.

여자: 정말 고마워요.

오빠같은 사람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

오빠?

내가 좀 착아보여서 그런지 오빠로 착각했나보다.

하긴.. 나이트 가서 뽕찌먹어본 적이 없으니. -_-

여자: 저..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식사대접?? -_-a

순간, 그녀의 일기장에 있던 내용하나가 문득 떠올랐다.

-흠.. 내 백마 탄 왕자님은 지금쯤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나도 멋진 남자 만나서 예쁜 사랑하고 싶은데..-

혹시...

날 백마 탄 왕자로?

우훗~! 그렇다면..

대략.. 작업이 필요없는.. -_-

이대리: 그냥 가볼게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_-;

쓰박! 왜 하필 그날이

내 생일이었는지.... -_-

여자: 그럼...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 성의예요.

웬 편지봉투같이 생긴 걸 내미는 그녀다.

이대리: 저.. 돈이라면 사양할게요. -_- (괜히 멋진척..)

여자: 돈 아니니까 부담갖지 마세요.

잠깐!

그렇다면.. 혹시 편지???

아..

이대리 이렇게 엮이는 거란 말인가..

내 이상형은 아니지만..

이것이 운명이라면

기꺼이 접수하도록 하지. 음.. -_-

이대리: 네. 잘 읽어보겠습니다. -_-

여자: 네~? 아.. 풋.... ^^

난..

그녀가 준 편지봉투를 받고

핸드백을 건네준 다음..

전철에 몸을 실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 도중...

편지에 적힌 내용이 무엇일까..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젼싸게 그 편지봉투를 펼쳐보았다.

그런데....

봉투를 열자..

내 시야에 환하게 들어오는 숫자가 보였다.

일, 십, 백, 천, 만, 십만..

십만이었다.

그 종이쪼가리를 조심히 꺼내들어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금강제화 구두 티켓 10만원권이었다.

허걱.. 세상에 이런 일이.... 0_0

이번엔 그 티켓 뒤에 가려진 종이 쪼가리를 펼쳐보았다.

그러자 이러한 글이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아직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돈 잃어버리고 나서 절대 못찾을거라는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큰돈이자, 소중한 돈이거든요.

근데 님의 전화를 받고나서 전...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 아직까지는 이런 선량한 사람들이 있었구나...하고 말이죠.

전화통화 목소리로 봐서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일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돈으로 보답해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구두티켓을 준비했어요.

님에게 꼭 필요한 티켓이었으면 해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나 신기했다.

내가 구두를 사고싶어한다는 걸 꼭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정말로 이것이...

신의 선물이었던 것일까?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구두를 이렇게 갖게되다니...

츄르르르.. π_π

아무튼..

나도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솔직히 이런 경우에...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서

밥 한끼 정도 함께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정성껏 미리 준비한 구두티켓으로

나에게 보답을 해 준 것이었다.

내 손에 들린 구두티켓을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 이렇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그 돈을 안주고 다 써버렸으면 어떠했을까?

핑핑 쓸 땐 좋았겠지만..

분명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평생 수치스러운 기억거리로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내가 좋은 일을 행함으로서.. --;;

행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주웠던 핸드백은..

신의 시험이고,

시험에 합격해 만나게 되었던 그녀는..

신이 내려보낸 천사이고,

천사가 주었던 금강제화 티켓은..

신의 선물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만났던 그녀는 천사.. ^^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티켓은..

천사의 선물. 으훗~ ^0^

그렇게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워지질 않았다.

너무 흐뭇했다. ^^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약속장소에 도착하니

기다리다 지친 친구들이 술과 안주를 깔아두고서

먼저 판을 벌려두고 있었다.

물론.. 대식이도.. -_-

잠시 동안 행복했던 마음이

대식의 얼굴을 보자...

확~ 사라지고 다시 짜증이 나는 순간이었다.

늦어서 미안하단 말과 함께 자리에 앉자..

대식이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대식: 돈 주고 온 거야?

이대리: 치.. 알아서 뭐하냐.

대식: 짜식! 아직도 빠져있는 거냐?

아무튼 잘 됐다.

솔직히 좀 아깝기는 하지만 말야.

그 돈이면 구두 20켤레는 살텐데..

이대리: 구두애기 한번만 더 꺼내면 주둥아리 찢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구두 필요없다.

대식: 소심한 색히! 남자색히가 그까짓 구두 하나 안 사줬다고 빼지긴...

그러면서 쇼핑백을 들어올리는 친구다.

대식: 자, 선물이다. 냐름 열어봐라.

이대리: 너 선물은 받기 싫다. -_-

대식: 임마! 열어보라니까.

내가 계속 선물을 안 받고 있자

녀석이 쇼핑백 안에 든 물건을

테이블 위로 쏟아냈다.

오잉~! 0_0a

테이블 위에 떨어진 그 물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광이 번쩍 번쩍 나는 구두였다.

대식: 임마! 너 낱아빠진 구두 신고다니는거 보고서
지나가다 멋진거 있길래 나중에 생일선물로 주려고
미리 하나 사뒀었다!
근데.. 이대 갔을 때 또 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날 일부러 못들은 척 연극 좀 했지. 헤헤.
받아. 생일 선물이야. ^^

아직까지도 그녀석한테 빠져있어서..

놈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이대리: 쓰박! 웃기지마! 괜히 미안하니까 오늘 사 온 거겠지. =_=

대식: 이 자식 불알이 터져버렸나. 너 불알친구를 그렇게 못 믿냐??

이대리: 니가 믿을 짓을 했냐? =_=!

그러자..

녀석이 궁당이를 들며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웬 종이쪼가리를 펼치면서...

대식: 봐라~! 영수증에 날짜가 며칠인지..

휴~ 영수증 버렸으면 dots될뻔했네..

난 무심코 그 영수증을 받아들게 되었고..

거기에 적힌 날짜를 얼핏 들여보자..

눈가가 촉촉히 젖어가기 시작했다.

분명....

그 날보다 전 날이었다.

아후~! 붕신! 머저리! 꼴통!! >(<=

그런 것도 모르고 그동안 빠져있었다니...

어쩐지..

그럴 친구가 아닌데...

괜히 오해하고 있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대식: 임마. 빨리 신어봐. 안 맞으면 내일 바꾸러 가야 하니까.

이대리: 쓰박! 눈물로 샤워시켜주고 싶은 색히! π_π

대식: 아휴~ 계집애같은 색히!
이래가지구 생일빵이나 때리겠어!!

이대리: 대식아.. 엉엉~~ π_π

그 해 생일은 정말 기억에 남는 생일이었다.

내가 갖고 싶어하던 구두 두켤레를 공짜로 얻게 되었으니 말이다.

생일빵 맛고 온 몸이 멍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날의 감동은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는다.

그리고 그 날 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

하나.

남의 물건을 주우면 반드시 돌려주자.

(돌려준만큼은 아니지만 암튼 행복할 정도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

둘.

불알친구를 절대 의심하지 말자.

(불알 떼기 전에는.... ^^;)

-끝-

Written by 이대리 (2004.12.6)

★ 스타 카의 몰락

한 때 나의 첫 작품 [왕자님 배달하기]라는 글이 책으로 출간되고나서,

영화사와 잦은 만남을 가지며 무척이나 잘나갈 뻔 했던 행복한 시기였다.

영화사와 출판사에선 이 책이 영화로 나올 것을 대비해 그 전에 먼저 광고를 때리자는

의견을 내세웠고 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 내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차로 돌아다니는 일도 많으니까

택시처럼 내 승용차 옆면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자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돌아다닐 때마다 흥부가 기가막힐 정도의 홍보가

되기 때문에 좋은 마케팅전략이 될거라 생각했다.

아름답게도 영화사, 출판사, 나.

이렇게 만장일치로 회의는 끝나게 되었고 얼마 후,

책표지를 컨셉으로 주위 사람들과 작업에 몰두하여 어느 정도 완성된

시안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는 형을 통해서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수정한 다음 인쇄소에서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로 뽑아냈다.

다행히도 디자인과 색이 슬프도록 아름답게 나왔고 기쁜 마음으로 차에 풍풍물을

발라가며 그 스티커를 차 옆면에 붙이게 되었다.

그렇게 완성된 차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 \\ \\ \\ \\ \\ \\ \\





차가 엑센트라 좀 옛같았지만

스티커가 너무나 황홀하게 아름다워 차까지 빛나는 실정이었다.

너무나 눈이 부셔 실명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는. -_-;

아무튼 이러한 차를 몰고 도로를 신나게 질주할 때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내 차로 집중되었고 급기야

고빼리들이 환호성까지 질러주었다.

고당: 까악!! 옴빠옴빠~! 나두 태워줘!! ^.^*

이대리: 야! 타! ^.^

부우우웅~~~3333

덜덜덜덜덜..... 덜덜덜덜.....

고딩: 우와~~~ 이 차 경운기네? ^^*

이대리: 내려. -_-

이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거야. -_-

아무튼 내 옆에 반짝반짝 거리는 BMW가 있어도

근사하고 화려한 렉서스가 있어도 사람들은 내 차를,

강동원 바라보듯이,

전지현 바라보듯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맞이해주었다.

(^.(^_(^.(+.(^.(+.(^.*).^).+).^).^)_^).,^)

그리고;;

뽕뽕!!

이런 시끄러운 경적소리가 아닌,

달콤한 여성의 멘트가 16화음으로 울려대는

자동차 경적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1번을 누르면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2번을 누르면

"감사합니다~♡"

3번을 누르면

"먼저 가세요~♡"

4번을 누르면

"빠오빠오~~!!!!"

라는 음성과 사이렌 소리가 밖으로 크게 흘러나갔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어찌나 매콤하고 달콤한지

지나가는 남자들이 이 목소리에 도취되어 질질 쌀 정도였다.

사람이 많은 비좁은 거리를 지나갈 때;;

살짝 1번을 눌러준다.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내 차를 동시에 쳐다본다.

광고 스티커 말이다.

(-.(-.(-.(-_-).-)_-) 웅성웅성.....

이대리: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아싸~! 책 열 권 팔렸네? ㅎㅎ. ^,^

그렇게 그 사람들이 활짝 열어준 그 길을 지나가면서 2번을 누른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킥킥 웃고 난리난 사람들도 있고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그들을 가로질러 가면 내 뒤에서

차 뒷유리에 새겨진 대리운전 전화번호

스티커를 바라보며 전화번호를 적는다.

이대리: 아싸~! 오늘 한 건 올리고! ^,^

가끔 신호등이 깜빡 거릴 때,

건널목을 건너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을 볼 때면 어김없이 3번을 눌러준다.

"먼저 가세요~♡"

행인: 우와~~ 마음씨 좋은 사람이네.. 가만 있어봐. 왕자님 배달하기??

이대리: 앗싸~! 이미지 살리고! ^.,^

그리고 무전기 기능도 있어서 가끔 교통방해를 하는 나쁜 택시들이나

틈이 1cm만 있어도 벼락같이 달려들어 끼어들기를 범하는

저질적인 승용차들을 보면

싸이렌을 울리며 마이크로 외쳐댔다.

이대리: 뺐오~ 뺐오~~!! 후.. 후..! 1624!! 1624!!

차 좀 뺐세요!!

2345! 2345! 새치기 좀 하지 맙시다!!!

그리고 가끔 밤길을 다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88열차 내려가듯

무지막지 달려대는 인간들에게는 싸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그럴 때면

열 명 중,

아홉은..

쫓아서 줄행랑 쳐버리고

나머지 한 명은,

갓길에 차를 정지시킨다.

그런데 방금과 같은 상황엔

내가 도망가야 한다. -_-;

그리고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로,

이대리: 후우...!! 2127!!! 한 걸음 물러서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 곧바로 1m 후진하기도 했다.

뭐;;

이런 사이렌 기능을 악용하려는 뜻은 아니었고

단지 숨막히는 서울의 교통 상황을 내가 좀..

질서있게 정리해주고자 하는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지나친 사랑이었다. -_-

그렇대두. -_-

아무튼 내 차는;;

도로의 VIP급 스타가 되어가고 있었고,

내 차가 도로를 활보하는 장관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도로가에 4열횡대로 줄을 서서

줄줄이 사탕으로 파도타기를 하며 만세 3창을

외치면서까지 날 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심지어 집 나간 아들과 10년간 잠수타던 녀석들도

그곳에 나타났다.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가족이 모처럼

상봉하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음하하. -_-

난, 그들에게 카퍼레이드 하듯이 천천히 도로를 달리며 창문 밖으로

손 한번 쓰옥~ 흔들어 주면 됐다.

할로우~~ -.,-/

그것이 그들에게 삶의 낙이자 박카스였다. -_-

때론 이것이 꿈이나, 생시나를 운운하며

서로 대굴통을 부여잡고서

싸대귀 100만대를 갈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_-

그런데...!!!!

하늘을 찢르고서 달까지 찢러버릴 나의 인기에 신이 질투가 났는지

나의 그 찬란하게 빛나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_-

어느 순간부터 옛같은 일이

한강에서 폭죽 터지듯이 뽕뽕 터져댔기 때문이다.

그 비극의 씨앗은 바로..

우리 동네에서 잉태되었다. -_-

버스정거장 앞 쪽에 잠시 주차를 하고서 핸드폰을 내려보고 있는데

어느 낯선 여자가 뒷문을 활짝 열어제끼면서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한 큰 목소리로 외쳐대는 것이었다.

여자: **아저씨! 부평역 가요??**

쿠궁!!! -_-!

뭐? 부평역 가요???

내 차가 택시인줄 알았나보다. -_-

뭐;;

인생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 아니겠어?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스러운 사건이 터져야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울릉도 호박 옛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 사건의 현장을 풍당 빠져보겠다.

풍당~ \))\(/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다.

배가 고파 제과점 앞에 차를 세운 다음 비상감박이를 켜두고서

제과점으로 들어가 빵을 골랐다.

그렇게 10분 정도 제과점에서 개기다가 빵을 사고 나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며 정신없이 차에 올라타게 됐다.

그리고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카레이서 마냥 한 손으로

핸들을 빙글빙글 돌리며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얼마 못 가서 난 비명을 지르며 차를 급정거 해야 했다.

이대리: ㄱ ㅌ ㅅ ㅌ ㅅ ㅌ ㅅ ㅌ 악!!!!!! {}_{} }

끼이이이악~!!!!

다름이 아니라..

백..

백미러에....

한.... 남자의 얼굴이 비춰는 것이었다.

뜨아아아아아.... @_@

헐떡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허걱!!! 0.,0

술취한 아저씨가 뒷자석에서

목을 뒤로 젖히고 태평하게 자고 있는 것이었다.

이대리: 아.. 아저씨!!! 누,,, 누구세요!!!!!!

놀란 목소리로 아저씨에게 소리쳐봤지만..

그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그렇다!!

술을 만땅으로 주유한 아저씨가

내 차를 택신줄 알고 탄 것이었다.

그리고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_-

이대리: 아저씨!! 일어나봐요!!! 일어나보라니까요!!!

그 술에 절은 아저씨를 깨우는데만 30분 가량 걸리고

그 아저씨 내리게 하는데만 20분이나 걸렸다.

근데 길거리에 뺏어버린 그 아저씨를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인가.

나름대로 정의의 사자 이대리인데. -_-

택시를 잡아드리려고 지나가는 택시를 볼 때마다

크게 손을 흔들어 댔다.

이대리: (-_-)/~ 택쉬!!!! 택쉬~~~!!!

그러나..

술에 만땅 취한 사람이라..

택시들이 모두 줄행랑을 쳐버리는 것이었다.

거룩하게 아름다운 사회. -_-

택시가 너무 안 잡히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아저씨 핸드폰을 꺼내들고

사모님되시는 분과 어색한 통화를 해야 했다.

이대리: 안녕하세요? 전 제 차 운전사인데요..

지금 남편 분이 술에 취해 제 차에 올라타셨다가...

지금의 상황과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며 모시고 갈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사모님 되시는 분은 자신의 집 위치를 나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더니

책임지고 집까지 데리고 오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뚝... 끊어버리셨다. -_-

아.. 미치겠네 증말.

담배 한가치 태우면서

사색에 잠겨야 했다. (-_-)す ~ 후~~

버릴까?

모셔다 드릴까?

된장..

걸어다니는 인간 도둑책이

이런 상황을 못봤다는 듯 회피할 순 없지.

다시 차에 태워드렸다.

그리고는 아줌마가 가르쳐 준 주소를 찾아 떠나야 했다.

미치도록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찌란 말인가. -_-

부우웅~~~~~33333

다행히도 우리 집(부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신월동이였다.

대리운전 하던 솜씨를 발휘해서 아줌마가 가르쳐준 00아파트 00동 앞에

정확히 모셔드렸다.

아줌마가 달려오시더니 고맙다며..

손에다가 조폐공사 전속모델 한 명을 쥐어주셨다.

파란색 모델이였다. -_-

얼떨결에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마도.. 대리운전하던 시절과 혼동을 했던 것 같았다.

이대리: 고맙습니다. -_-

아줌마가 아저씨 먹살을 부여잡고 집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방금 있었던 일을 떠올려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무리 차 옆에 광고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도 그렇지..

택시랑은 차종도 틀리고 지붕에 모자도 안 달렸는데

왜 내 차를 택시랑 분간을 못하냐고요~~ -_-;;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만원짜리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래. 착한일 했다 치면 되잖아.

그 사람이 뭐..

택시랑 승용차를 분간할 수 있는 정신이었겠어??

그리고 만원도 벌었잖아.

그래. 너 오늘 참 잘 한거야.

아주 대단한 일 했어!!

언젠가 노벨상 받게 될거야!! 짜식.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방금 있었던 뜨끈뜨끈한 사건을 식기전에 냅따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돈 벌어진 게 장하다며

피자 한 판 시켜주시드라. _ _

지금 까진 그럭저럭 참을 만 했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릴레이를 펼쳐대는 것이었다.

밤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내 차를 멀리서 보고 막 뛰어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택쉬~!!!! 태액쉬~~!!!! @_@/"

어떤 성격 급한 사람은..

"구의동!!! @_@/"

이라고 외치며,

차 뒷문을 활짝 열어제치는 헐리우드액션을 취했고,

또 어떤 사람은..

"따블!!!! @_@/"

을 외치기며 길을 차단하기도 했다.

난 그들을 피해 악셀을 힘껏 밟으며 도망다니기 바빴다. -_-

그러다가 어떤 날은..

도망가는 날 쫓아와서 승차거부하냐며..

먹살 잡고 파출소로 끌고가려는 사람도 있었다. -_-;

이 뿐만이 아니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내 옆으로 바짝대며

크렉션을 뽕뽕! 울리기에 오른쪽 창문을 내리자,

운전자: 이봐요! 여기 한양 아파트가 어딴어요?

라며 택시에게 물어볼 말을 나에게 묻는 것이었다.

난, 숨을 크게 내쉬고는 성심성의껏 친절히 가르쳐드렸다.

이대리: 뒷 차한테 물어보세요. _ _

그러자, 샷대질을 해가며 16옥타브의 톤으로 악을 쓰는 것이다.

운전자: 니미~ 사양~! 택시하면서 그 정도도 몰라!!

이대리: .. _ _;

이렇게 비참한 사건들을 겪다보니..

예전엔 자랑스러워 보이던 내 차가

이 날 따라 까부수고 싶었다.

난 더 이상의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

그동안 정들었던 그 스티커를 떼어내기로 맘먹었지만

스티커를 떼내면 그 자리에 하얀 자국이 남는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쥐어뜯어야 했다.

으.. 으.. 미치겠다. 미치겠어. 왜 이상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이런 고생을 하나!!

나의 그 잘나가던 VIP급 슈퍼울트라 카는..

서서히.. 서서히..

택시로 몰락하고 있었고

난 이렇게 비참한 나날을 계속 상대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칠대로 지치게 된 난..

한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좋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후로 난,

지도를 보면서 도로공부를 열심히 했고,

항상 차를 끌고 나갈 땐,

잔돈을 가득채운 비닐주머니를 항시 휴대하고 나갔다.

그리고 취객들이 몰려있는 거리를 더이상 피하지 않고

뚝뚝하게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취객 한 분이

내 차를 가로막으며 소리 쳤다.

손님: 봉천동~!!!! @_@/

난..

오른쪽 창문을 서서히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대리: 얼른 타요. -_-

그러자,

손님이 차에 오르면서 허꼬인 발음으로 주정을 부렸다.

손님: 뭐야? 택시가 왜 이리 후졌어? 이 차 모야!! @@

이대리: 엑센트 리무진입니다. -_-

손님: 아무튼 빨랑 가자구! @_@

난, 손님이 가르쳐준 대로 손님의 집 앞까지 친절히 모셔다 드렸다.

손님: 모야! 여기 어디야! @@

이대리: 엎어지면 집에 이마 닿을 겁니다. -_-

손님: 허, 그래? 어라~ 우리 집 맞네?

요금 얼마 나왔어? 가만, 미터기도 없잖아?

내가 취한 건가? @_@

이대리: -_-;;

손님: 항상 여까지 만원 주고 왔으니까, 만원 받아~! @@

이대리: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_-

손님: 뭐 짜사? 그래... 자, 3천원 더 줄게. 이거 먹고 떨어져. @@

이대리: 감사합니다. -_-;

그렇게 손님을 내려드리고

다시 차들이 달리는 도로로 합류하였다.

그리고 어느 건널목 앞에 정지해 있는데..

어떤 고급 승용차가 내 옆에 바짝 붙으며 길을 물었다.

운전자: 저기... 영덕빌딩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난 고개를 돌려 씨익 웃고는 친절하게 설명해드렸다.

이대리: 다음 사거리에서 3차선으로 바짝 붙어
하나은행 건물 나오면 우회전하고
3거리를 지나 다음 사거리에서 다시 우회전을 하고
sk텔레콤을 끼고 들어가서 50m직진하면
바로 우측에 보일겁니다. -_-

운전자: 아이구~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한 택시기사네요. 허허. ^^

그는 비상감빡이를 키면서 고맙다는 싸인을 보내고

사라졌고 난 다시 집을 향해 달려댔다.

그런데 얼마 못가서..

어느 취객 한 명이 또 다시 팔을 흔들어들었다.

취객: 야! 강남 좀 가자! @@//

창문을 살짝 내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대리: 교대시간이라 안돼요!

손님: 에이! 따블로 줄게! @_@

이대리: 어서옵쇼! -_-

부우웅~~~333

그렇게 강남을 향하던 중..

어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받고 있는데,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한 여자가

다가오면서 소리쳤다.

여손님: 사당동!!!!

이대리: -_-;

뒤에서 코를 골고 있는 아저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대리: 손님, 합승 좀 하겠습니다. -_-

부우웅~~~~~333

난..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태우고서

어둠속으로..

저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 뒤에선...

경찰 차 한 대가 시끌벅적하게 사이렌소리를 울리며

누군가를 추격했다.

"후! 후! 불법영업하는 5413! 5413! 차 정지 시켜라!! 뺐오~! 뺐오~! 뺐오~!"

그 날..

난,

.

.

종나게 튀어야 했다! ㄱ(∞—,.—)ㄴ



〈끝〉

Written by 이대리 (2004.11.6)

제목에 19금!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초딩, 중딩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말로!!!

잘 들어오셨어요. ^.^
아빠, 엄마한테 걸리지 않게 끝까지 읽고
꼬릿말 하나 남기고 가요~! ^^*



목욕탕 사람들

모처럼 큰 맘 먹고서 때밀고 광내러 목욕탕을 가기로 결심했다.

사람들 눈치보지 않고 집에서 은밀하게 혼자 때 미는 것을

좋아하던 내가 목욕탕을 방문하는 것은..

매년 한 번씩 치러지는 체육대회나 가을 축제처럼 연중행사로 있는

고귀한 날이었으니 정말 큰 결심을 한 것이다. -_-

삼푸, 린스, 칫솔, 타올, 폼클렌징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 근처 목욕탕으로 향했다.

나의 럭셔리한 조각같은 몸매가

대중탕 안에 모습을 드러내자;;

욕탕에 물을 쏟아내고 있는 수도밸브에서 물이 뚝! 멈춰버리고

때를 밀던 사람들도 정지화면모드로 돌입하면서

날 미친듯이 부러워하며 감탄사를 연발해댔다.

거품내던 아저씨,

"허얼~~~ 쇼케이스에 진열된 마네킹 같은 저 몸매.... 0_0"

때밀이 아저씨,

"우아~~~ 근육공장인데? 1세기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훌륭한 인간문화재야.

제발 나에게 때 밀 수 있는 행운을 선물했으면... 아... @_@"

온탕에서 반신욕하고 있는 아저씨,

"오우~~~ 남자가 봐도 캡짱 섹시하네. 아.. 꼴리는걸..

제 발 내 옆자리로 살포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 아.... 아... 0_0"

으음.. -_-

허헛..! -_-;

아..

알았어! 알았어!!

사실대로 볼게. -_-

거품내던 아저씨,

"저 쓰박새끼! 저거 ET야? 배가 싸가지 없게 많이 튀어나왔네.. 아.. 징글러브. -_-"

때밀이 아저씨,

"둘리 같은 새끼... 때 밀어달라 할까봐 겁나네. 쓰벌. -_-"

온탕에서 반신욕하고 있는 아저씨,

"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얼른 나가야지. 저 췌히 배만 살짝 담궜도 바로 익사할 것
같단말야. -_-"

움하하하하....

사실, 내 배가 좀 나왔어.

흐흫.. ^,^

비웃었지. -_-!

처음부터 얘기가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주제로 다시 풍당 빠져보겠다. -_-

온탕에 들어가 따끈따끈한 물에 몸을 푹 삶은 다음,

온 몸에 비누거품을 묻히고 샤워를 시작하는데

아까부터 어떤 비계덩어리 아저씨가 나의 몸을

시시탐탐 훑쳐보고 있는 것이다.

뿌연 거울로 그 비계 덩어리의 동태를 살펴보았는데

꼭 무대에서 섹시 춤을 추고있는 쇼걸을 바라보는 듯한

므흣한 시선으로 날 쳐다보는 것이다.

아저씨: 흐웃~! 엉덩이가 먹음직스러운 사과같은걸? ^^

그냥 늘 있는 일처럼 내 아름다운 뒷모습에 뻑 반했나보구나라고 생각하고

룰루랄라 샤워를 마쳤다.

그리고는 바가지처럼 생긴 의자에 앉아 슬슬 때를 밀려고 준비자세를 취하는데..

그 아저씨가 고개를 내려 자꾸만 내 상큼하고 향기로운

정글숲을 내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우~ 민망민망~ ^.,^;

그렇게 낮이 나간 상태로 입을 떠억~! 벌리고는

나의 거대한 물건을 한참동안 감상하더니 아저씨가 말했다.

아저씨: 워우~! 천하장사 최홍만 안다리 제껴 날려버릴 정도로
힘도 꽤나 쓸 것 같은데, 내 등 좀 밀어주겠수?

뭐야!!

기껏 때 밀어달라고 여태 그런 시선으로 날 보고 있었던 거야??

치잇!!

이래서 내가 목욕탕을 안 가려고 하는 거라니까. _ _

어차피;;

나도 그동안 숙성시켜온 두꺼운 살껍따구들을 벗겨내야 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자는 뜻에서 쌍방향합의를 하고서는

아저씨의 등 뒤로 몸을 옮겼다.

그러자;;

아저씨: 그래도 내가 먼저 권했는데, 자네가 먼저 대야지. ^0^

그러면서 날 마주보더니 내 몸을 팽이 돌리듯 핵~! 돌려버린다.

그리고는 나와 끈적끈적하게 밀착하더니 손에 때타올을 꺼낸다.

순간,

내 탐스럽고 어여쁜 똥꼬에 접촉된 그 무엇인가가

날 끔찍하도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대리: 아저씨! 좀 떨어져서 밀어요!!! >_<;

아저씨: 허허.. 너무 붙었었군. 알았다구. ^0^;

기분 드럽네. _ _

열탕에 찰찰찰 흘러내리는 용암같은 따스한 물로

한 바가지 부어 주고 싶었다.

아무래도 동성연애자가 아닐까하는 드러운 마음에

그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참을 인 자를 손바닥에 세 번 새긴 다음;;

참을 인!

참을 인!

참을 인!

꿀꺽 먹어삼켰다. (-■-;)

뽁뽁뽁~!!!!!! ♪ ♪ ♪~

때~ 때~ 때~ 때~~! ♪ ♪ ♪~

곧;

아저씨는 내 등을 열심히 밀기 시작했고

내 등에서는 마치 지우개 가루 나오듯이

끊임없이 때가 밀려 나왔다.

그 때 잔뜩 묻어있는 때 타올을 내 앞으로 내밀며

아저씨가 시원스럽게 웃어댔다.

아저씨: 허허허.. 이걸로 기념품 하나 만들어줄까? ^0^
탁구공? 야구공? 골라봐.

이대리: -_-

아저씨는 요리조리 몸을 움직여대며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때를 밀어주셨고

밀려나오는 때에서 보람을 느끼셨는지

충분히 내가 밀 수 있는 팔까지

때타올 왕복운동을 해주셨다.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섬불리 대사가 튀어 나오질 않았다.

사실, 내가 밀어도 되지만

자신이 미는 것 보다 남이 밀어주는 게

더 잘 나오고 더 시원하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나 정성스럽게 때를 밀어주시는지,

내 팔을 번쩍 들어가며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고

풀이 웅성하게 자란 그 위대하도록 향기로운 곳 까지

누렁지 뽀뽀 긁어내듯이 온 열성을 다해 비벼주셨다.

(^/^\)/~ 뽀뽀!!!

그렇게 내 더러운 때를 마치 어린 아이의 양증맞은 때마냥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고 상큼하게 봐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막노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꼭, 내 아빠같은 느낌이.. -_-;

어느새 내 옆구리까지 간지럽히며

때를 뽀뽀 긁어모아주는 그 분에게

1g정도의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을 괜히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뻔 했기 때문이다. -_-;

어느덧 내 차례가 돌아왔고

나도 그 분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아까전 나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기 위해,

오늘 이 한 손 불살러보겠다는 다짐으로

고무장갑 끼듯이 때 타올을 손에 팽팽하게 꺼냈다.

그리고는 때밀기의 적극적인 자세인

앞아 똥 싸 자세로 돌입하기 위해

붙어있던 바가지의자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그런데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서 발을 헛 딛는 바람에

앞으로 살짝 미끄러져 그 아저씨 등에 스파이더맨 처럼 철썩~!

달라붙으면서 자빠지게 되었는데..

철푸덕~! _($\geq \nabla \leq$)ノミ

이게 웬일인가!!!

넘어지면서 때타올로

등을 살짝 스쳐갔던 것 뿐인데

때 타올에 칼국수 한 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은!!

~~~~~

허거덕~!!!! \*(")x(")\*

기겁을 하고는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쿠광~!!

아니겠지.. 아니겠지...

어디서 묻었던 거겠지...

설마.. 설마..

그렇게 속으로 현실을 외면하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그것은...

요렇게 보고

조렇게 보고

요리조리 봐도

분명, 거룩한

때! 였다.

쓰박!!!

속은 것이다. -\_-!

아저씨: 어서 안 밀고 뭐하나. 좀 밀어보라고. ^0^

사우나를 올리는 아저씨의 낮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괴물이 울부짖는 소리로 들려왔다.

그냥 만원 기부하고서 때밀이 아저씨랑 터치할까? -\_-

된장!

딸랑 500원 남았구나. -\_-

에이!

까짓거 인간이지 지우개겠어?

때 타올을 등에 올리고서는

손에 힘을 빼둑! 주고 힘차게 피스톤운동을 해댔다.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허거덕~!!! 0\_0

아니나 다를까.

인간 지우개였다!!

한번 쓱 밀 때마다 사정없이 길어지는

그 잔인한 때는 고무줄놀이할 때 쓰는

고무줄과 다름없어 보일정도였으니 말 다한 거다.

이렇게 높은 밀도와 넓은 분포로 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목욕 안 한 사람으로

세계 기네스북 1위에 올라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강산이 변할 때까지 노숙자생활을 했던 사람일까?

그 무엇이 되었든 때돈 벌 사람인건 확실했다. -\_-

아저씨: 가운데만 밀지 말고 요쪽도 좀 밀어보라고. 갓길은 길이 아닌가?

그러면서 팔을 번쩍 들어올리는 아저씨의 포즈. ( ^/^\)/

그 팔이 본위치에서 사라지자,

그곳에 숨겨져 있던 넓은 평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야에 짹악~! 펼쳐졌다.

허거덕~!!! 0.,0

옆구리 살이 장난이 아니었다.

대형 손잡이 두 개가 옆구리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내 옆구리는 이 아저씨에 비하면

그저 애교덩어리였다.

내 튀어나온 옆구리가 한국 땅이라면..

이 아저씨는 중국 땅이었다.

아니, 쇼킹아시아였다. -\_-

dotdot!! dotdot!!

아까, 내 팔 들어올릴 때 부터 알아차렸어야 하는 건데!!

이 포라이 등쳐먹을 색히!!!

이걸 언제 다 미냐??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

여긴 문 안 닫나??

악!! 여긴 24시간 사우나잖아!!! {}\_{}\_

그냥 여탕으로 달려가 다이빙하고 싶었다. π\_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칼국수 생산에 힘썼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손을 초고속으로 왕복시켰다.

이 때..

나의 손은...

빛의 속도를 초월했음이 분명하다.

속도의 비례해서 처참할정도로 밀려드는

수많은 때를 더이상 바라 볼 수 없어

눈을 짝 감고서 밀어댔다.

영차... 영차... 영차....

어히야.. 디야.... 잇... 잇... >\_<

나의 구호가에 맞춰

바닥에 수북히 쌓이는 때는

어느새 내 발을 삼켜버렸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그렇게 악을 써가며 때를 미는 나의 모습과

지우개 가루 밀려나오듯 대량생산되는 그 때의 양을 보고 있는

주위의 벌거숭이 아저씨들은 모두들 놀라서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벌거숭이1: 호오~! 저사람 때 정말 잘 미는데. 자격증 따도 되겠어.

벌거숭이2: 하하.. 신의 손인가봐.

벌거숭이3: 무슨 소리? 자넨. 경제 공부도 못했어?

저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야!

이대리: .. -\_-;

모두들 때가 많은 그 아저씨를

홍보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만들어 내는 내 모습에 놀라

나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었다.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 좋을듯하면서 기분 드러운

발언들이었다. -\_-

결국;;

수북히 쌓여있는 때에 목이 서서히 잠겨가고 있을 때쯤 게임이 오버됐고

내 온 몸은 힘이 빠져 탈진 모드로 돌입하고 있었다.

퇴폐 이발소 유리간판 처럼 천장이 뱅글뱅글 도는 것만 같았다. @\_@

몸을 추스리고 때타율이 입혀진 손을 대야에 푹 담그자,

길쭉길쭉한 껌대기들이 물 위를 동동동.... 떠다니며

자유형, 배영, 접영을 하는 듯 했다.

완전 칼국수 탕이었다. -\_-

이렇게 자신의 몸에서 생산된 때를 내려보고 있는 아저씨는

무척이나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찌그러진 얼굴에 보조개를

만들어 내며 살인의지를 북돋아주는 강력 멘트를 날리고야 마는데..

아저씨: 금요일마다 여기 오는데 우리 때밀기 친구 할까? ^0^

쿠쿵!!! -\_-

때타율 낀 손으로

싸대기 100만대를...

조심스럽게..

정통으로 꽃아드리고 싶었다. -\_-

아무런 대답이 없자,

아저씨는 개운하다는 표정 반,

아쉽다는 표정 반으로 샤워를 마치더니

수건을 걸치며 밖으로 퇴장했고..

난,

고개를 땅에 처박고 한숨을 푹푹 쉬어댔다.

휴우~~~ 후~~~ ( )

배도 밀어야 하고,

다리도 밀어야 하고,

허벅지도 밀어야 하는데

더이상 힘이 남아있질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축쳐진 모습으로

멍하니 시선을 바닥에 깔고 있는데,

지금까지 옆에서 이 광경을 주욱 지켜보던

한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아저씨: 이보게. 나도 등 좀 밀어줄텐가.

다 죽어가는 눈빛으로 살며시 고개를 들어

그 아저씨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애절한 눈빛으로 나의 심정을 표현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pi_{\pi}$ "

그러나;;

아저씨는 나의 다 죽어가는 눈동자를 보고도

내 앞에 와서 등을 척하니 내밀고는

뻘뻘스런 말을 내뱉었다.

아저씨: 음료수 살게.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의 등 뒤로는

수많은 아저씨들이 번호표 뽑아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때를 밀어주던 때밀이 아저씨는

날 스카웃해야겠다는 기세로

때 미는 침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듯 했다.

쓰박!!

음료수건.. 로또 1등이건..

다 필요없었다.

그냥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고싶은 맘밖에 없었다.

젼싸게 물품을 챙겨

목욕탕에서 뛰쳐 나왔다.

로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만..

비극적으로 그 아저씨의 때를 뽁뽁 밀어드려야만 했다.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던가.

그리고 내가 저 등을 안 밀어주면

누가 저 넓은 등판을 뽐뽐 밀텐가.

종나 착해서 탈이라니까. -\_-;

아저씨의 때타올을 손에 끼고선...

초고속으로 등을 밀었다.

파바바바바~!!!!!! \_ (≥▽≤)ノミ

그리고..

사정없이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까만 때들을 바라보며

한가지 다짐을 했다.

죽어도 목욕탕 안 간다!! 파바바바바!!  $_{(\geq \nabla \leq)}$ ノミ

〈끝〉

Written by 이대리 (2004.11.6)

# 이대리의 짧은 유머

블로그

글쟁이들의 글모음

[http://blog.daum.net/bk\\_qwerty](http://blog.daum.net/bk_qwerty)

저자

Thomas

발행일

2013.01.04 23:04:16

 블로그